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제 106 회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 형 환

상주권공재 작법무 춤사위 동작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한국음악이론전공
남 미 애
2020년 2월

상주권공재 작법무 춤사위 동작 분석 연구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한국음악이론전공
남 미 애

남미애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0년 2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7
II. 이론적 배경	24
1. 불교의식의 의의 및 개념	24
2. 불교 재의식의 종류 및 절차	26
3. 상주권공재 작법무의 의의 및 종류	40
III. 상주권공재 법문 내용과 사용 작법무	50
1. 시련(侍輦)	50
2. 관욕(灌浴)	55
3. 신중단(神衆壇)	58
4. 상단권공(上壇勸供)	61
5. 소결론	74
IV. 상주권공재 작법무의 춤사위 동작 분석	77
1. 나비 작법무	77
2. 바라 작법무	106
3. 법고 작법무	127
V. 결 론	164

참고문헌	169
국문초록	173
Abstract	176

표 목 차

<표 1-1> 상주권공재와 관련한 선행연구	8
<표 1-2> 영산재 중심 작법무 선행연구	12
<표 1-3>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는 영산재 작법무에 관한 선행연구	17
<표 1-4> 작법무의 개별적 연행 절차와 과장, 기타 선행연구	21
<표 2-1> 상주권공재 의식절차 및 세부과장	27
<표 2-2> 시왕각배재의 의식절차 및 세부과장	29
<표 2-3>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와 과장	31
<표 2-4>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와 세부 과장	31
<표 2-5> 수록재의 의식절차 및 세부과장	34
<표 2-6> 영산재 3일간의 의식절차	37
<표 2-7> 영산재 의식 절차 및 세부과장	37
<표 3-1> 옹호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51
<표 3-2> 다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52
<표 3-3> 괴경 법문과 사용 작법무	53
<표 3-4> 상주권공재의 시련 절차 중 과장 및 사용 작법무	54
<표 3-5> 관육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55
<표 3-6> 화의재 법문과 사용 작법무	56
<표 3-7> 상주권공재의 관육 절차 중 과장 및 사용 작법무	57
<표 3-8> 옹호계 법문과 및 사용 작법무	58
<표 3-9> 다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59
<표 3-10> 상주권공재의 신중단 절차 중 과장 및 사용 작법무	60
<표 3-11> 정례 법문과 사용 작법무	61
<표 3-12> 복청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62
<표 3-13> 천수바라 진언 과 사용 작법무	63
<표 3-14> 도량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65

<표 3-15> 삼남태 법문과 사용 작법무	66
<표 3-16> 향화청 법문과 사용 작법무	67
<표 3-17> 옥건만나라 법문과 사용 작법무	68
<표 3-18> 다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69
<표 3-19> 사다라니 법문과 사용 작법무	70
<표 3-20> 운심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71
<표 3-21> 상주권공재의 상단권공 절차 중 과장 및 사용 작법무	73
<표 3-22> 상주권공재 법문 내용 및 사용 작법무	75
<표 4-1> 나비작법무 사용 상체·하체 춤사위	105
<표 4-2> 바라작법무 사용 상체·하체 춤사위	126
<표 4-3> 법고작법무 사용 상체·하체 춤사위	162

사진 목차

<사진 2-1> 나비작법무 사용 법구	44
<사진 2-2> 바라작법무 사용 법구	47
<사진 2-3> 법고 작법무 사용 법구	49
<사진 4-1> 합장 사위	78
<사진 4-2> 차고 나가기 사위	79
<사진 4-3> 양손 벌리기 사위	80
<사진 4-4> 양손 접는 사위	81
<사진 4-5> 치기 사위(좌, 우)	83
<사진 4-6> 양팔 벌리고 앉기 사위	85
<사진 4-7> 사선으로 서고 앉기 사위	86
<사진 4-8> 정면으로 무릎꿇고 앉는 사위	87
<사진 4-9> 뒤로젓히기 사위	88
<사진 4-10> 앞으로 숙이기 사위	89
<사진 4-11> 꽃치기 사위	90
<사진 4-12> 쳐올리기 사위	92
<사진 4-13> 마주보고 앉기 사위	93
<사진 4-14> 등지고 앉기 사위	94
<사진 4-15> 엇갈려 앉기 사위	96
<사진 4-16> 발차고 나가기 사위	97
<사진 4-17> 90도 회전 사위(좌, 우)	98
<사진 4-18> 무릎 구부리기 사위	99
<사진 4-19> 무릎 피는 사위	100
<사진 4-20> 양팔 벌려 앉는 사위	101
<사진 4-21> 바라 합장사위	107
<사진 4-22> 바라 올리는 사위	108

<사진 4-23> 바라 내리는 사위	109
<사진 4-24> 한 손씩 올리는 사위	110
<사진 4-25> 양손 올리는 사위	112
<사진 4-26> 바라 올리는 사위	113
<사진 4-27> 양손치기 사위	114
<사진 4-28> 머리 위에서 올리는 사위(좌, 우)	115
<사진 4-29> 머리위에서 내려 올리는 사위(좌, 우)	117
<사진 4-30> 바닥에서 올리기 사위	118
<사진 4-31> 두 손 모아치고 뒤로 넘기기 사위	119
<사진 4-32> 무릎구부리고 피며 이동하는 사위	120
<사진 4-33> 회전 사위	123
<사진 4-34> 복채 모으는 사위	128
<사진 4-35> 변죽 훑기 및 치는 사위	129
<사진 4-36> 손 엮기 사위	131
<사진 4-37> 어르기 사위	132
<사진 4-38> 양손치기 사위	134
<사진 4-39> 복채 넣기 사위	136
<사진 4-40> 좌우치기 사위	137
<사진 4-41> 숨고르기 사위	138
<사진 4-42> 복채로 목감기 사위(좌, 우)	139
<사진 4-43> 허리 젓혀 변죽돌기 사위	142
<사진 4-44> 정곡 치기 사위	144
<사진 4-45> 마무리 사위	145
<사진 4-46> 빠른 걸음 이동 사위	148
<사진 4-47> 양발 뒤꿈치 들기 사위	149
<사진 4-48> 발 모으기 사위(좌, 우)	150
<사진 4-49> 돌기 사위	151
<사진 4-50> 뒤꿈치 들기 사위	152

<사진 4-51> 한 발 들기 사위	153
<사진 4-52> 무릎 들기 사위	154
<사진 4-53>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	156
<사진 4-54> 도는 사위(緩.急)	158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불교 의식은 불교 의례를 총칭하는 것으로 불교에서 의례가 지니는 의미는 불교의 교리의 발현임과 동시에 교리의 형식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역사적으로 불교의 의례는 우리 사회에 수용되고 민중사이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정착되어 왔다. 비록 고도로 발달한 불교 교리의 관념 체계가 결여되어 있더라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영위되고 그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져 내려오고 있다. 또한 의례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는 교리가 내용적인 것이고, 의례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으나 그 형식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법(修行法)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이라는 데 종교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즉 교리의 뒷받침이 없는 의례 행위는 없다는 것으로 불교 의례가 지니는 종교적 의의는 종교적 대상에 실재감을 고양시키고, 사회와 집단에 대한 확인감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의례는 집단의 공통 감정의 상징화와 결합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544~545).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많은 문화유산을 남기고 그 가치는 높이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문학, 미술, 음악 등 각 예술 분야에서 불후의 명작을 창작 할 수 있었음은 불타(佛陀)¹⁾의 심오한 진리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투철한 불교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불교의식에서 많은 불교음악을 발전시켰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범패(梵唄)와 작법인 범무(梵舞)의 발전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홍윤식, 1970: 217~218). 즉 불교의식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불교음악

1) 운허용하(1995), 『불교사전』, (서울: 동국역경원), 338쪽.

일명 Buddha, 부도(浮圖), 부타(浮陀), 부두(浮頭) 등으로 음역, 각자(覺者)라고 번역하며 불(佛)이라고 약칭한다. 미망(迷妄)을 여의고 스스로 모든 법의 진리를 깨닫고, 중생을 교도하여 깨닫게 하는 자각(自覺)·각타(覺他)의 두가지 행(行)을 원만히 성취한 이를 말한다.

악인 범패와 불교무용인 작법무(作法舞)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불교의식에서 의례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의례는 조석으로 부처님 전에 드리는 예불(禮佛)에서 부터 불공시식(佛供施食), 재의(齋儀)에 이르기까지 불교의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의식 가운데 독경의식(讀經儀式)과 재의식(齋儀式)에서 행하여 지는 것이 범패 의식인데, 범패 의식은 범패(梵唄)와 작법무(作法舞)로 구분된다. 즉 범패는 훗소리, 짓소리, 안채비소리, 곁채비소리로 구분되며 의식을 진행 시 법문(法文)과 진언(眞言)²⁾ 등의 소리 및 음악 일체를 말한다. 또한 작법무(作法舞)는 법문(辭說)과 진언 등에 맞추어 법구(法具)를 들고 연행하거나 혹은 의상을 갖추고 추는 춤을 말한다(능화, 2006: 38).

이와 같은 범패와 작법무가 불교 의식 중에서 사용되는 의례는 일반적으로 영가천도이며 진혼재 성격의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 생전에 공덕을 쌓아 사후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 명부시왕(冥府十王)³⁾을 청해서 지장보살님의 서원력으로 중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 수종고혼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을 위해 지내는 “수륙재(水陸齋)”, 영산 당시의 설법(說法) 과정을 찬탄하며 불보살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는 “영산재(靈山齋)” 등 5가지의 재의식에서 그 활용과 쓰임새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불교 의식 상주권공재·생전예수재·시왕각배재·수륙재·영산재 등 5가지 재 의식을 구성하는 예술적 요소에는 범패와 작법무가 중요한 요소로 동반된다고 하겠다. 범패는 가곡과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성악곡 중 하나이다. 범패는 일명 어산(魚山)·범음(梵音)·범성(梵聲)·성

2) _____, 상계서, 832쪽.

범어 만달라(Mantra)의 번역으로 밀주(密呪), 다라니(陀羅尼)라고도 하며, 진실된 말(眞實語)이라는 뜻.

3) 운허용하(1995), 상계서, 208쪽, 507쪽.

명부는 명토(冥土)의 왕인 염마왕(閻魔王)이 있는 곳으로 염라부(閻羅府)·지부(地府)를 말한다. 시왕(十王)은 죽은자를 심판하는 열명의 왕으로 진광왕(秦廣王), 초강왕(初江王), 송제왕(宋帝王), 오관왕(五官王), 염라왕(閻羅王), 변성왕(變成王), 태산왕(泰山王), 평등왕(平等王), 도시왕(都市王), 오도전륜왕(五道轉輪王)을 말한다.

명(聲明)·인도(引導)소리라고도 하며 불교에서 재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이다. 이러한 범패의 사설은 한문(漢文)이나 범어(梵語)로 사설이 구성되어 있어 사설적 측면에서 우리말로 되어있는 화청이나 고사염불(告祀念佛)과는 다른 불교의 노래이다(송방송, 2012: 767).

또한 불교 재 의식에서는 구업공양(口業供養)⁴⁾을 의미하는 범패가 있다면 신업공양(身業供養)⁵⁾을 의미하는 작법무(作法舞)가 있다. 작법무는 일반적으로 ‘범무(梵舞)’ 또는 ‘불교무용(佛教舞踊)’이라고도 하며 불교의식에서 범패와 함께 연행된다. 불교의식에서 연행되는 작법무의 종류로는 바라(銅)를 들고 추는 ‘바라작법무’, 육수장삼과 육수가사를 입고 불보살을 찬탄하는 ‘나비작법무’, 장삼을 입은 스님이 법고(法鼓, 弘鼓)를 북채를 이용해 변죽을 훑거나 치면서 연행하는 ‘법고작법무’, ‘나비작법무’ 범복을 착용한 스님이 타주채를 들고 연행하는 ‘타주작법무’ 등 4가지의 작법무가 5가지 재(齋)의식에서 연행된다. 즉 불교의식에서 사용되는 ‘범패’와 ‘작법무’는 재(齋)의식의 형식성을 강화하고 재를 지내는 도량(道場)을 더욱 장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심이 자연스럽게 발원되도록 유도하여 신앙심을 고취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님들의 수행의 행위이며 예술적 행위인 범패와 작법무는 불교예술의 상징성과 교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불교 재 의식의 형식성을 강화하고 예술적 요소와 상징성, 그리고 수행적 행위들이 내포되어 있는 ‘범패’와 ‘작법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재의식 중 한 부분이나 한 장르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명열(慧日明照)은 불교의식과 관련한 연구들 대부분이 ‘영산재’를 중심으로 범패, 사용음악, 작법무, 사설에 관한 연구, 불교 의례에 초점을 맞춘 한정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재의식 진행을 위한 음악적 설명이 포함되지 않

4) _____, 상계서, 54쪽, 81쪽.

구업(口業)은 어업(語業)으로 삼업(三業: 身業·口業·意業)의 하나로 입으로 짓는 업을 말하며, 공양(供養)은 공급하여 자양(資養)한다는 뜻이다. 즉 구업공양은 음성으로 드리는 공양을 말한다.

5) 홍윤식(2009), 『범패와 작법무』, (서울: 민속원), 13쪽. 신업공양은 몸짓으로 올리는 공양을 말한다.

은 불교의식 개론서 형식들의 연구로 되어 있어 불교의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011: 17~19).

또한 작법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경우에도 ‘영산재 중심의 작법무 연구’,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는 영산재 작법무 연구’, ‘상주권공재 작법무와 관련한 연구’, ‘작법무에 대한 개별 연행 절차와 과장, 기타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작법무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영산재’를 중심한 연구와, 지역별로 전승되는 ‘영산재’ 비교 연구, ‘영산재’에 포함 되어 있는 개별 절차나 과장에서 사용되는 일부분의 작법무 중심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불교 재의식에서 가장 기본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주권공재’에서 연행되는 작법무에 관한 연구는 희소하다고 하겠다.

불교 의식에서 재(齋)는 공양을 올리면서 기원을 드리거나 명복을 비는 불공의식이다(장사훈, 1984: 649). 이러한 불공 의식 중 사찰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연행되는 재(齋)의식이며, 불교의식 구성 및 작법무의 기본이 되는 상주권공재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주권공재에서 사용하는 작법무의 유형과 춤사위 동작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불교의식의 구성과 작법무에서 기본이 되며 사찰에서 많이 활용하여 대중화되어 있는 상주권공재 의식의 의의(意義)와 의식 절차, 작법무가 사용되는 절차와 과장, 그리고 법문 내용 등의 검토를 통해 상주권공재의 의식구성 요소를 고찰하겠으며, 이와 함께 상주권공재에서 연행되는 작법무의 유형과 춤사위 동작의 의미와 내용을 통하여 전통적인 불교 재의식(齋儀式)에서 연행되는 작법무의 의의와 춤사위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상주권공재 의식을 구성하는 절차인 “시련”, “대령”, “관육”, “신중단”, “상단권공”, “관음시식”, “봉송” 등 7개 의식 절차 중 작법무가 진행되는 “시련”, “관육”, “신중단”, “상단권공” 등 4개의 절차에 출현하는 작법무의 춤사위 동작에 한정하여 연구하겠다. 이유는 첫째, 상주권공재는 불교의식 구성 및 작법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례로 관련 선행 연구들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상주권공재 의식에서 사용되는 작법무를 중심으로 의식 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문 내용과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작법무인 나비작법무·바라작법무·법고작법무의 춤사위 분석으로 상주권공재 7개 의식절차 중 작법무가 출현하는 절차는 “시련”, “관육”, “신중단”, “상단권공” 등 4개의 의식 절차에서 출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중심적 연구를 통해 불교의식 중 작법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와 불교의식의 의의와 개념을 정의 하고, 현행 5개의 불교 재의식인 상주권공재·생전예수재·시왕각배재·수륙재·영산재에 관한 절차 및 세부 과정에 관하여 검토하겠다. 그리고 상주권공재에서 사용되는 작법무의 의의와 종류에 관하여 탐색 하겠다.

둘째, 상주권공재 의식절차 중 작법무가 활용되는 시련·관육·신중단·상단권공 과정(科場)의 법문 내용과 사용 작법무에 관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탐색하겠다⁶⁾.

6) 심상현(2001), 『불교의식각론V』, (서울: 한국불교출판부); 능화(김종형)편저(2018), 『법패의식』, (인천: 도서출판 예림원), (2006), 『한국의 불교무용』, (서울: 도서출판 푸른세상); 법현(김응기)(1997), 『영산재연구』, (서울: 운주사).

셋째, 상주권공재 작법무 춤사위 동작 분석을 위해 ‘나비작법무’·‘바라작법무’·‘법고작법무’의 춤사위를 상체와 팔 동작, 그리고 시선 중심의 ‘상체 중심 춤사위’와 무릎과 발동작 중심의 ‘하체 중심 춤사위’로 구분하여 춤사위 동작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넷째, 상주권공재에서 사용되는 작법무인 ‘나비작법무’·‘바라작법무’·‘법고작법무’ 춤사위 동작 분석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시연한 사진무보⁷⁾를 활용하겠다.

7) 나비작법무·바라작법무·법고작법무에 관한 사진 무보는 2019년 9월 7일 경남 거제시 거제면 소재 벽수암, 2019년 9월 11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만장사, 2019년 10월 11일 서울시 중구 소재 동국대학교 대각전에서 촬영하였음.

3. 선행연구 검토

불교의식 중 상주권공재 작법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응기(1996)의 「작법무 연구」에서 상주권공재의 작법무에 관하여 의식 구성 순서에 따라 작법무 유형을 구분하였다. 즉 상주권공재의 의식절차인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상단권공, 신중퇴공, 시식, 봉송 절차 중 시련 절차에서는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를 사용하고, 관육절차와 신중작법 절차에서는 바라무, 상단권공 절차에서는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법무 반주음악인 범패와 기악반주가 사용되는 절차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한정미(2010)는 「불교의식의 작법무 연구」에서 작법무의 종류와 내용, 의미를 살피고, 춤사위의 정형화를 위해 무보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용되는 법구와 복식, 음악을 살펴 작법무의 상징적 의미와 사상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나비춤 · 바라춤 · 법고춤 · 타주춤 등 영산재와 각배재, 상주권공재에서 진행되는 작법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나비춤은 인과사상, 연기법을 형용한 춤이다.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진 언바라는 진언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법고춤은 중생 제도와 승(僧)을 상징하며 대승보살(大乘菩薩) 정신⁸⁾을 핵심 사상으로 한다. 타주춤은 식당작법 시 진행하며 모든 작법무의 사상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작법무의 내용과 춤사위, 작법무에 나타난 삼보사상⁹⁾과 밀교의 삼밀사상¹⁰⁾의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800~801쪽). 대승보살은 본생보살(석가모니)이 아닌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등 석가모니가 아닌 별개의 개성, 인격을 지닌 보살을 말한다. 대승(大乘)불교는 누구든지 성불(成佛)하겠다는 서원을 일으켜서 보살의 길로 나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이 된다는 사상. 핵심사상은 서원(誓願)과 회향(回向)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이며, 자기가 쌓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회향이다.

9)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3』, (서울: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220쪽. 삼보(三寶)사상은 불교도가 존경하고 섬기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보배로 불(佛), 법(法), 승(僧)이다. 이것은 깨달음, 교법, 교법 수행을 말한다.

연관성을 고찰하고 있다.

윤미혜(2017)는 「불교의식무 상주권공재 현대적 변화 연구」에서 불교 재의식의 많은 재들 중에서도 상주권공재 내에서 현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불교 재의식과 불교무용의 변화에 대한 수용 과정과 공연화, 무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일련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으로 변화된 불교문화와 현장에서의 촬영과 스님, 무용수, 재주들의 대담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실제적으로 불교의식무의 현대적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즉 현대적인 불교 무용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불교문화적 변화에 있어 불교무용의 무대화, 공연화에 대한 제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의 상주권공재에서 사용되는 작법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표1-1>과 같다.

<표 1-1> 상주권공재와 관련한 선행연구

순서	연구자	주요내용
1	김응기 (1996)	불교 작법무 연구에서 상주권공재의 작법무 의식구성 순서에 따라 작법무 유형을 구분하였다. 즉 상주권공재의 의식절차인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상단권공, 신중퇴공, 시식, 봉송 절차 중 시련절차에서는 바라무,나비무, 법고무를 사용하고, 관육절차와 신중작법 절차에서는 바라무, 상단권공 절차에서는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범패와 기악반주가 사용되는 절차에 관하여 고찰.
2	한정미 (2010)	불교의식의 작법무 연구에서 영산재, 각배재, 상주권공재에 관하여 종류와 내용, 의미, 춤사위의 정형화를 위해 무보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용되는 법구와 복식, 음악을 살펴 작법무의 상징적 의미와 사상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3	윤미혜 (2017)	불교의식무 상주권공재의 현대적 변화 연구에서 변화하고 있는 불교 재의식과 불교무용의 변화에 대한 수용 과정과 공연화, 무대화 등 불교의식무의 현대적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작법무는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타주춤으로 구분되고, 불교의식무 상주권공재의 현대적 변화에 있어서 불교무용 무대화, 공연화에 대한 제언함.

10) _____(2001), 상계서 2, 686쪽. 운허용하(1995), 상계서 401쪽.

밀교(密敎)는 일반적으로 해석이나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전, 주문, 진언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한 유파(流派)이다. 삼밀사상은 진언밀교에서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을 말한다.

불교의식의 작법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 영산재 중심의 작법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응기(2004)는 「영산재 작법무 연구」에서 영산재의 의식절차의 축소 요인은 첫째,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온전한 전승이 쉽지 않고, 둘째, 형식적 의례를 중요시 하지 않는 경향성 때문이다. 셋째, 불교의례를 불교 교리사상의 자연스런 실행 실천과정으로 보지 않는 측면이라고 고찰하고 있다. 넷째, 영산재 의식의 진행 과정 및 절차에 담긴 교리·사상적 의미가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고 체계적 전승의 도구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향후 영산재의 올바른 전승을 위하여 불교의례의 전통적인 교리와 사상적 의미를 밝히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정현(2006)은 「불교무용 나비춤 동작 연구」에서 영산재의 구성과 절차, 나비춤 가운데 ‘삼남태 작법’을 중심으로 반주와 춤사위에 대해 검토하고, 여타 작법의 종류를 살펴 보았다. ‘삼남태 작법무’ 반주음악의 상관관계 연구 및 나비춤의 종류, 조선시대 일부 감로탱화에 보여지는 춤사위, 복식, 의식 무용의 보전과 전승, 대중화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정정희(2006)는 「식당작법 무용 구성 연구」에서 영산재 의식 가운데 식당작법 의식 진행에서 이루어지는 작법무 구성을 중심으로 식당작법 절차와 바라춤, 나비춤, 타주춤, 법고춤 구성과 반주음악의 형태, 경전에서 보이는 공양의식, 감로탱화에 나타난 작법무 등을 연관지어 연구하였다.

민경환(2006)은 「향화계작법 구성에 관한 연구」에서 영산재의 상단권공 의식에서 향화계작법의 구성을 살펴 보고, 춤사위를 세분화 하여 이론적인 내용을 고찰하였다. 내용은 향화계는 범패 훗소리로 1인 독창으로 진행되어지며, 악기는 태징, 호적, 삼현육각이 사용된다. 향화계작법은 나비춤의 기본 춤사위인 사방요신과 사방좌립 형태, 다계작법과 도량계작법으로 구성되며, 특징은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춤사위가 많고 그 움직임이 공경하는 마음, 가라앉는 마음, 자비스런 마음, 해탈하는 자세, 정진하는 자세, 순결함

등을 표출하는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고찰하였다.

김민재(2007)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바라춤 음악 연구」에서 조선시대 감로탱화에 그려진 스님들의 연주형태를 중심으로 현행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에서 진행되는 불교의 악·가·무를 중심으로 반주 형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로 영산재의 구성은 13단계의 절차로 진행되며, 바라무가 사용되는 의식은 10개 의식에서 바라무가 부분적으로 사용 된다. 즉 영산재 의식 진행에서 작법무는 4개 종류인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 타주무 구성으로 진행 되며 영산재 진행시 바라춤은 총 7가지가 사용 된다고 고찰 하였다.

김동찬(2008)은 「영산재 범패·작법 태징요에 관한 연구」에서 영산재 범패·작법에서 태징의 타법과 리듬유형을 살펴 본 연구이다. 종류와 명칭, 기원과 유래, 태징의 타법과 쓰임, 불교경전에 나타난 태징(요)의 기록들을 정리하여 첫째, 태징은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쓰이고 태징의 중요성 고찰하였다. 둘째, 태징의 타법은 4가지로 나뉘고 태징은 음악적으로 화음을 이루며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신호와 음악의 변화를 지시하는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셋째, 훗소리 태징 타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뀔 수 있으며, 넷째, 짓소리 태징 타법은 훗소리보다 복잡한 유형을 갖는 다고 고찰하였다. 다섯째, 영산재 작법은 바라춤과 나비춤으로 나뉘는데 바라춤의 태징은 반복적인 현상이 없고 나비춤은 반복적 형태를 나타낸다. 안채비소리는 중간에 태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훗소리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영산재에서의 태징에 관한 구체적 패턴을 연구하였다.

강명화(2011)는 「영산재의 식당작법에 관한 연구」에서 영산재의 구조와 범패의 구성을 살펴보고, 장엄과 범패 소리의 종류, 영산재의 공양과 반승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영산재에서의 식당작법의 전개에 대해 기존의 절차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식당작법의 준비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끝으로 영산재 식당작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공양과 반승 그리고 식당작법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식당작법

시행 상의 과제를 대중성, 운영상의 과제, 교육적 과제로 구분하여 고찰 하였다.

김복영(2012)은 「영산재 법고춤에 관한 연구」에서 영산재의 작법무 중 법고춤의 불교의식 무용이 수용되어진 과정과 전승계보, 서울의 봉원사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의 법고춤의 특징과 종류, 춤사위와 반주음악을 연구하여 문헌상으로 기록 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법고춤은 작법 속에서 법고, 즉 북을 두드리는 의식을 별도로 떼어 붙인 이름으로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의식무임을 알 수 있었다. 춤사위 분석결과 거의 제자리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방향만 전환하는 나비춤과 별 동작 없이 팔정도(八正道)¹¹⁾만 도는 타주춤에 비해 동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법고가락은 단순한 리듬을 지닌 북 가락이지만 법열(法悅)¹²⁾의 춤을 만들어 내고 신명풀이를 절정으로 이끈다. 종교적인 상징으로써 법고의 기능은 법고의 울림으로 해서 부처와 중생이 하나 되는 일체감을 불러 일으켜 진여(眞如)¹³⁾에 도달하며, 또한 현재 영산재는 절차와 방식이 어렵고 복잡하며 체계적인 전승 방법이 부족하여 실연 시 많은 부분이 축소 생략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옥정원(2018)은 「영산작법 중 나비춤 비교 연구」에서 영산재는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한국 전통 불교 의식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 춤사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나비춤은 다른 영산재의 작법무인 바라춤, 법고춤, 타주춤에 비해 가장 예술성을 갖춘 춤사위로 불교 무용의 꽃이라고 고찰 하였다. 영산작법 중 나비춤 연구에서 첫째, 영산재의 뜻과 유래, 범패와 작법, 장엄, 사물 등 구성에 대해 알아본 뒤 진행 절차를 파악하였다. 둘째, 영산작법에

11) 운허용하(1995), 상계서, 905쪽. 팔정도(八正道)는 팔성도지(八聖道支), 팔정도분(八正道分)이라고도 하며,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을 말한다. 팔정도는 중정, 중도의 완전한 수행법으로서 부처님이 최초의 법문 가운데서 말하신 것.

12) _____, 상계서, 277쪽. 법을 듣거나 생각하거나 행하거나 함으로써 생기는 기쁨.

13) _____, 상계서, 832쪽. 대승 불교의 이상개념(理想概念)의 하나로 우주 만유에 보편하며 상주하는 불변하는 본체이다. 진여는 우리의 사상개념으로는 미칠 수 없는 진실한 경계로 거짓이 아닌 진실이란 뜻과 변천하지 않는 여상(如常)하다는 뜻이다.

서 나비춤의 명칭과 유래 특징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서울경기(경제), 충청(중제), 영남(영제), 호남(완제) 지방의 영산작법 중 나비춤의 의식절차, 춤사위의 특징, 복식과 무구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영산작법 중 각 지방의 나비춤을 비교 연구 하였다. 결론으로는 경제와 중제의 나비춤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영제는 간결하고 투박한 반면, 완제는 전통 무속과 결합된 요소를 가지고 있어 춤사위가 타 지방에 비해 다양하고 동작이 크며 화려하며, 경제의 무구는 다양한 종류의 꽃과 색이 사용된다고 고찰하였다.

이상의 영산재 중심의 작법무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영산재 중심 작법무 선행연구

번호	연구자	주요내용
1	김응기 (2004)	영산재 작법무 연구에서 영산재의 의식절차의 축소요인은 첫째,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온전한 전승이 쉽지 않고, 둘째, 형식적 의례를 중요시 하지 않는 경향성 때문이다. 셋째, 불교의례를 불교 교리사상의 자연스런 실행 실천과정으로 보지 않는 측면이라고 고찰하고 있다. 넷째, 영산재 의식의 진행과정 및 절차에 담긴 교리·사상적 의미가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고 체계적 전승의 도구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 함.
2	박정현 (2006)	불교무용 나비춤 동작 연구에서 영산재의 구성과 절차, ‘삼남태 작법’을 중심으로 반주와 춤사위, 여타 작법의 종류를 고찰. ‘삼남태 작법무’ 반주음악의 상관관계 연구 및 나비춤의 종류, 조선시대 일부 감로탱화에 보여지는 춤사위, 복식, 의식 무용의 보전과 전승, 대중화에 대하여 고찰함.
3	정정희 (2006)	식당작법 무용 구성 연구에서 영산재 의식 가운데 식당작법 의식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작법무 구성을 중심으로 식당작법 절차와 작법에 사용되어진 바라춤, 나비춤, 타주춤, 법고춤 구성과 반주음악의 형태와 더불어 경전에 보이는 공양의식, 감로탱화에 나타난 작법무 등을 연관지어 연구함.

번호	연구자	주요내용
4	민경환 (2006)	영산재 의식 중 상단권공에서 사용하는 향화계작법의 구성, 춤사위 분석. 나비춤의 기본 춤사위인 사방요신, 사방좌립형태 고찰, 특징으로 반복적 춤사위가 많고, 움직임이 공경하는 마음, 자비스런 마음, 정진하는 자세, 순결함 등을 표출하는 춤임.
5	김민재 (2007)	영산재 바라춤 음악 연구에서 조선시대 감로탱화에 그려진 스님들의 연주형태를 중심으로 불교의 악. 가. 무를 중심으로 반주의 형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로 영산재의 구성은 13단계의 절차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작법무 중 바라무가 사용되는 의식은 10가지 의식에서 바라무가 부분적으로 사용 되었다. 영산재 진행시 바라춤은 총 7가지가 영산재에서 사용 된다는 내용을 담는다.
6	김동찬 (2008)	영산재 범패 작법의 태징 연구에서 영산재 범패·작법에서 태징의 타법과 리듬유형을 살펴 본 연구이다. 종류와 명칭, 기원과 유래, 태징의 타법과 쓰임, 불교경전에 나타난 요의 기록들을 정리함. 태징의 타법은 4가지로 나뉘고 태징은 음악적으로 화음을 이루며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신호와 음악의 변화를 지시하는 점에서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영산재 작법은 바라춤과 나비춤으로 나뉘는데 바라춤의 태징은 반복적인 현상이 없고 나비춤은 반복적 형태 나타남. 영산재에서의 태징에 관한 구체적 패턴을 연구함.
7	강명화 (2011)	영산재의 식당작법에 관한 연구에서 영산재의 구조와 범패의 구성, 장엄, 범패 소리의 종류를 분석. 영산재의 공양과 반승에 대해 고찰함. 영산재 식당작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공양과 반승 그리고 식당작법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식당작법 시행상의 과제를 대중성, 운영상의 과제, 교육적 과제로 구분하여 고찰함.
8	김복영 (2012)	영산재 법고춤에 관한 연구에서 영산재의 작법무 중 법고춤의 불교의식 무용이 수용되어진 과정과 전승계보, 영산재의 법고춤의 특징과 종류, 춤사위와 반주음악을 연구함. 법고춤은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의식무임. 춤사위 분석결과 나비춤 또는 타주춤에 비해 동적임.
9	옥정원 (2018)	영산작법 중 나비춤 비교 연구에서 영산재는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한국 전통 불교 의식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 춤사위에도 큰 영향을 줌. 나비춤은 다른 영산재의 작법무들 보다 가장 예술성을 갖춘 춤사위로 불교 무용의 꽃임. 서울경기(경제), 충청(중제), 영남(영제), 호남(완제)지방의 영산작법 중 나비춤의 의식절차, 춤사위의 특징, 복식과 무구 등을 살펴보고 각 특징을 고찰함.

불교의식 중 지역별 영산재에서 사용되는 작법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효순(2006)은 「영남 불모산 영산재와 전라북도 영산작법 비교 연구」에서 영산제 나비춤은 대부분 서울 봉원사에서 추어지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영남, 전라북도 지방 운심계 작법의 음악적 형식, 동작의 구성, 무복 및 무구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향토 문화와 지리적 영향을 받아 변형된 영남 불모산 운심계작법과 전라북도 운심계작법이 갖는 차이점을 고찰하고, 두 지방 운심계 작법의 한국무용,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로 작법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전라북도 지방의 운심계작법은 선 작법과 후 작법으로 나뉘는데 반해 영남 불모산의 운심계 작법은 나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불모산 지방의 운심계 작법은 어장스님의 운심공양 진언 범음을 중심으로 연행하고, 전라북도 지방의 운심계작법은 범음 뒤에 하는 태징 연주와 어장스님의 구음을 중심으로 연행한다고 분석하였다. 불모산 지방의 범음은 소리가 크며 장엄한 특징을 지니고 전라북도 지방의 범음은 소리가 구성지며 소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일호(2011)는 「범패승의 계보와 전승 연구」에서 범패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무형문화재 및 각 지방 무형문화재인 범패승들의 계보와 전승과정, 범패승의 관리 및 교육과 제반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이다. ‘영산재’의 계보와 전승과정 각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천·영남·전북·제주·충청의 범패승의 계보를 밝히고, 각 지방 범패승의 보존과 전승과제에 관한 고찰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로 승가와 재가를 구분하여 승가는 전문화 된 교육으로 범패승 양성에 주력하고, 재가는 포교 일환으로 다양한 불교음악을 문화예술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불교의식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무대화 와 세계화, 불교 문화 콘텐츠개발을 제안, 전승지원 방안으로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재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전수교육의 과제로 전승관 및 전수교육관 건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

심상현(2012)은 「작법무의 연원과 기능에 대한 고찰」에서 경산제(京山制)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작법무는 외적 美가 아닌 내적 정신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작법무 각각의 거행 시점과 성격에 바탕해서 귀납적방법(歸納的方法)으로 그 연원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법고무는 거행하는 시점이 의식의 서막(序幕)으로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활달한 춤사위를 가지며, 바라무는 명발(鳴鉞)과 요잡(繞匝)외의 바라무는 반드시 다라니를 가사(歌詞)로 거행한다. 또한 착복무의 연원과 기능, 착복무와 바라무 거행의 기본자세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중의 마음을 경책하며, 앉는 자세와 무용으로써 제법개공(諸法皆空)¹⁴인 반야(般若)¹⁵의 경지를 거쳐 제법실상(諸法實相)인 법화(法華)의 세계로 인도하는 고차원적인 작법무임의 고찰하고 있다.

양영진(2015)은 「영제 바라무 동작과 범패 선율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마산 백운사 석봉의 사다라니바라와 천수바라를 연구 자료로 삼아 바라무와 범패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은 천수바라의 기본동작은 사다라니바라의 동작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선율형식은 상·하행 선율진행하는 점이 동일하고 모두 La로 종지한다고 분석하였다. 광쇠 및 징의 신호는 무용음악의 시작과 끝에 관여하며 특정무용 동작을 지시하고, 바라무의 특정 동작은 Mi음을 수반하여 악구 구분과 바라무 동작 단락 구분의 기준점이 되며 동일한 단락 구분 지점을 공유한다고 고찰하였다. 또한 범패 리듬의 변화나 특정음의 사용 및 반주 악기의 연주가 바라무의 동작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확인하였다.

14) 윤희용하(1995), 상계서, 787쪽.

제법개공(諸法皆空)은 물(物)·심(心)과 같은 제법은 항존성이 없는 것으로 모두 공적(空寂)으로 돌아 간다는 뜻. 즉 인연으로 생긴 것은 실재성(實在性)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물건의 당체(當體)가 공(空)하다는 것이다.

15) _____, 상계서, 242쪽. 반야(般若)는 혜(慧)·명(明)·지혜(智慧)라고 한다. 최상의 지혜로 이 반야를 얻어야만 성불하며, 반야를 얻은 이는 부처님이므로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스승, 어머니라고 일컫는다.

김봉열(2017)은 「영남 천수바라 작법무에 관한 연구」에서 어장 한파스님의 영남지역 범음범패와 천수바라 작법무를 분석하였다. 영남지역의 범음범패와 천수바라 작법무는 대승보살의 사상적 체계와 육바라밀행¹⁶⁾을 계승하여 전통의식 속에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 특이 사항이다. 천수바라 작법무의 기본 동작은 6가지가 있고, 육바라밀 사상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육바라밀 사상은 다시 십바라밀¹⁷⁾로 전개되는데, 십바라밀로 형상화된 특수 문양에 나타난 것들을 바라의 6가지 기본 동작과 비교하여 대조, 분석하였다. 따라서 영남지역의 어장 한파스님의 천수바라 작법무는 대승불교의 십바라밀 사상에 의거하여 도식화된 형상과 천수바라 작법무의 연관성을 고찰해 본 결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방현(2017)은 「중제 영산재 연구」에서 충남무형문화재 제40호 내포제 영산대제의 전승내용을 중심으로, 중제 영산재의 지역 분포와 범패승의 범패를 고증하고, 장엄 준비와 의식 절차와 내용, 범패의 선율 및 작법무의 춤사위와 연행구조를 고찰하여 지역적 특징을 규명하고 있다. 불교경전과 관련된 문헌에서 엄숙한 불교의식인 측면이 크지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또한 중제 영산재의 준비과정에서는 다른 영산재와의 구성요소는 유사하나 전승활동이 축소되어 제작 능력 구비가 시급하고 재의식의 기본구조는 동일하며, 어장승의 부족으로 식당작법이 소멸되어 축소 진행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중제 영산재는 다른 영산재와 내용이 다르며, 범패의 범성 역시 시김새와 장단이 상이하고, 연행구조의 춤사위 기법과 발디딤이 다르지만 악가무의 종합예술형태를 갖추고 있어 전승보존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16) _____, 상계서, 680쪽.

육바라밀은 생사의 고탈을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르는 6가지 방편을 말한다. 1.자비로 널리 사랑 하는 행위(보시)로 단바라밀 2. 불교 도덕에 계합하는 행위(지계)로 시라바라밀 3.여러가지로 참는 것(忍慾)인 찬데바라밀 4.항상 수양에 힘쓰고 게으르지 않는 행위(精進)으로 버리야바라밀 5.마음을 고요히 통일하는 것(선정)인 선나바라밀 6. 참 지혜를 얻는 행위(智慧)인 반야바라밀을 말한다.

17) _____, 상계서, 529쪽.

도피안(到彼岸)이라고하며, 육바라밀 이외에 방편을 말하는 오파야바라밀, 원(願)을 말하는 바라니 타나바라밀, 력(力)을 말하는 바라바라밀, 지(智)를 말하는 야양낭바라밀을 말한다.

서정매(2015)는 「영제 범패 영산작법 연구」에서 범패는 윗넙소리인 경제와 아랫넙소리인 영제로 나뉘는데 경상지역 영제 범패승들의 계보를 지역적으로 정리하여 영제범패의 전승현황을 검토하고 영산작법의 의례절차를 시대별로 검토하여 시대적 변화 및 특징을 현행의 절차와 비교하여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부산과 마산의 범패승의 계보를 정리, 부산은 메나리조이며, 마산은 메나리와 육자배기토리를 갖고 있는 것 등 악곡분석을 통해 영제범패의 영산작법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상의 불교의식 중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는 영산재에서 사용하는 작법무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지역별로 전승되고 있는 영산재 작법무에 관한 선행연구

순서	연구자	주요내용
1	양효순 (2006)	영남 불모산 영산재와 전라북도 영산작법 비교 연구에서 영남, 전라북도 지방 운심계 작법의 음악적 형식, 동작의 구성, 무복 및 무구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향토 문화와 지리적 영향을 받아 변형된 영남 불모산 운심계작법과 전라북도 운심계작법이 가지는 차이점을 고찰하고, 두 지방 운심계 작법의 한국무용, 음악적 특징을 분석함.
2	이일호 (2011)	범패승의 계보와 전승 연구에서 범패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무형문화재 및 각 지방 무형문화재인 범패승들의 계보와 전승과정, 범패승의 관리 및 교육과 제반 문제점을 분석. '영산재'의 계보와 전승과정 각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천·영남·전북·제주·충청의 범패승의 계보, 각 지방 범패승의 보존과 전승과제에 관한 고찰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발전방안을 제시함.
3	심상현 (2012)	작법무의 연원과 기능에 대한 고찰에서 경산제(京山制)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작법무는 외적 美가 아닌 내적 정신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작법무 각각의 거행 시점과 성격에 바탕해서 歸納的方法으로 그 연원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법고무는 거행하는 시점이 의식의 序幕으로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활달한 춤사위를 가지며, 바라무는 명발(鳴鉢)과 요잡(繞匝)외의 바라무는 반드시 다라니를 歌詞로 거행한다. 또한 착복무의 연원과 기능을 찾고 착복무와 바라무 거행의 기본자세를 분석하였다.

순서	연구자	주요내용
4	양영진 (2015)	영제 바라무 동작과 범패 선율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마산 백운사 석봉의 사다라니바라와 천수바라를 연구. 바라무와 범패의 연관관계를 분석. 동작구성은 천수바라의 기본동작은 사다라니바라의 동작과 유사한 부분이 있고 선율형식은 상·하행 선율진행 하는 점이 동일하고 모두 La로 종지. 광쇠 및 징의 신호는 무용음악의 시작과 끝에 관여하며 특정무용 동작을 지시함.
5	김봉열 (2017)	영남 천수바라 작법무에 관한 연구에서 여장 한파스님의 영남지역 범음범패와 천수바라 작법무를 분석하였다. 영남지역의 범음범패와 천수바라 작법무는 대승보살의 사상적 체계와 육바라밀행을 계승하여 전통의식 속에 실행되고 있음을 고찰. 한파스님의 천수바라 작법무는 대승불교의 10바라밀 사상에 의거하여 도식화된 형상과 천수바라 작법무의 연관성을 고찰 확인함.
6	방현 (2017)	중제 영산재 연구에서 내포제 영산대제의 전승내용을 중심으로, 중제 영산재의 지역 분포와 범패송의 법맥을 고증하고, 장엄 준비와 의식 절차와 내용, 범패의 선율 및 작법무의 춤사위와 연행구조를 고찰하여 지역적 특징을 규명. 중제 영산재는 다른 영산재와 내용이 다르며, 범패의 범성 역시 시김새와 장단이 상이하고, 연행구조의 춤사위 기법과 발디딤이 다름을 분석함.
7	서정매 (2015)	영제범패 영산작법 연구에서 범패는 윗녘소리인 경제와 아랫녘소리인 영제로 구분. 경상지역 영제 범패송들의 계보를 지역적으로 정리, 영산작법의 의례 절차를 시대별로 검토하여 시대적 변화 및 특징을 현행의 절차와 비교하여 변화 양상을 고찰 함.

불교의식 중 작법무가 연행되는 개별적 연행 절차와 과장, 그리고 기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은제(1987)는 「불교의식의 작법에 관한 연구」에서 불교의식 무용의 작법에 대한 성격, 종류, 특성과 작법에 사용되는 범패에 대해 조사하여, 나비춤 중에서 가장 기본적 춤사위를 갖는 도량계를 분석하여 무보를 작성하였다. 연구결과는 작법무는 단순 종교적 기능만이 아닌 문화예술의 종합적 기능을 가지고 자연숭배 신앙과 접합하여 큰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도량계 작법은 의상의 화려함과 동작의 단순함의 조화를 이

루어 종교적 신비감을 불러일으키고 신심을 자극하거나 법열을 느끼도록 하여 단순히 신체를 움직여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닌 연행하는 사람과 관람하는 사람 모두 종교적 깨달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편이라고 고찰하였다.

능화(2003a)는 「불교 문화유산 범패와 작법무 연구」에서 불교무용 작법무의 종류로는 나비춤·바라춤·법고춤 등이 있는데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을 삼밀가지¹⁸⁾와 조화시킨 춤사위로 안채비는 경험과 학덕이 많은 스님이 봉행하고, 걸채비는 훗소리와 짓소리로 구분하는데 훗소리는 범패를 처음 배울 때 상주권공의 초할향 등을 말한다. 화청은 일반적으로 회심곡으로 부르며 법사물이라 불리는 타악은 대사물이라고도 하며 법사물은 범종, 목어, 운관, 법고 등이 있다. 범종은 당종, 목어는 목탁, 운판은 태징, 법고는 북으로 대사물이 사찰도량에서 많이 쓰이며, 소사물은 법당 내에서 주로 사용한다. 범패는 신심이 선행되어야 하고 불교무용은 무용전문인들 가운데 난해한 춤으로 인식되는데 다라니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

능화(2003b)는 「한국불교무용의 사상적 의미와 문화예술적 가치 연구」에서 불교무용의 유래, 한국적 수용과 전개, 불교의식에서 무용의 구성과 기능을 5개의 재(齋)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나비무, 바라무, 법고무, 타주무의 사상적 의미, 사용하는 음악과 악기, 그리고 불교 무용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천수바라춤, 다게나비춤, 법고춤 사진무보를 제시하고 있다.

심상현(2006)은 「작법무 거행의 배경과 의의 연구」에서 영산재 작법무의 바라무 착복무를 중심으로 거행의 배경과 의의를 연구하고 있다. 불교 의식무를 기원·수법·찬탄 가운데 한 가지를 주제로 거행한다고 범주를 규정하

18) 운허용하(1995), 상계서, 402쪽. 삼밀가지(三密加持)의 삼밀(三密)은 身·口·意 삼업(三業)을 말한다. 가지(加持)는 가피(加被), 임지(任持)의 뜻으로 부처님의 구제하는 힘과 중생의 신앙이 일치하는 경지를 말한다. 즉 중생과 부처가 하나임을 관하면 부처님의 삼밀과 상응하여 가피·임지가 됨을 말한다.

고, 이때 의식의 주제가 절정에 도달하였음을 울동으로 나타내는 의식이며, 석존의 본회를 요해함에서 비롯 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작법무를 역할에 따라서 기원을 희망하는 의미의 <내림계바라>, <다계바라>, 수법을 나타내는 작법무로는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관욕쇠바라>, <화의재바라>, <도량계작법>이 있고, 찬탄을 나타내는 작법무로는 <명바라>, <요잡바라>, <사방요신> 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노명열(2010)은 「현행 생전예수재와 조선시대 생전예수재 비교 고찰」에서 현행 생전예수재와 조선시대 생전예수재를 고찰하여 두 의식에 관한 절차의 비교를 통해 현행 재 의식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즉 문헌연구 및 송강스님의 ‘요집’을 중심으로 의식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 정리하고, 현장에서 수집한 태징 연주법을 중심으로 음악적 분석을 하였다. 현행 생전예수재가 새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의식 절차를 보충, 수정하여 의식 재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새롭게 수정한 생전예수재를 양식 분해적 방법으로 태징 연주법과 소리 그리고 사물 연주법을 소개하였고, 의식 진행에 쓰이는 유치성과 개계성, 편계성, 소성 등을 녹음자료를 중심으로 채보, 채록하였다.

박민경(2011)은 「작법무의 미적 분석 연구」에서 작법무의 미적 분석에 있어 한국 전통춤의 妙美인 ‘靜中動.動中靜’의 표현 형식을 통해 불교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법무의 본질적인 미를 탐색하고, 불교적 미를 본질로 예술적 미로 승화시킨 작법무를 고찰하여 정중동·동중정의 미적 구조론에 기초하여 운심계작법을 분석하였다. 미적 분석의 특징에 있어서 靜的인 표현은 靜中動의 형식, 中的인 표현은 靜과 動의 조절작용인 中의 형식, 動的인 표현은 動中靜의 미적 형식으로 ‘中道의 美’가 드러난다고 고찰하였다. 일체대중은 法을 짓는 스님들의 춤과 내면의 진리의 대화로써 열반을 경험하고 의식 도량과 예술공연의 무대는 성역으로 변환되어 장엄하며, 일체 대중은 삼보와 합일되는 신앙심의 증장으로 자성을 찾는 회심의 계기를 얻는다고 분석하였다.

남인화(2013)는 「영산재 작법무의 종류와 구성에 관한 검토」에서 범패는 전통 불교음악으로 영산재와 같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으로, 개인의 안녕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불교의식에서 범패는 석가모니를 찬탄하고, 중생들의 환희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검토하였다. 한편 범패와 작법무(作法舞)는 의식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며, 그 중 나비춤은 14개 종류로 구분된다고 분석하였다. 나비무는 불교사상과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춤의 특징은 큰 동작이 거의 없고, 어깨나 고개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불교의 대표적인 네 가지 작법무 가운데 나비춤의 종류와 동작을 분석하여 그 특징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불교의식 중 작법무에 관한 개별적 연행 절차와 과장, 그리고 기타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작법무의 개별적 연행 절차와 과장, 기타 선행연구

순서	연구자	주요내용
1	박은제 (1987)	불교의식의 작법에 관한 연구에서 작법에 대한 성격, 종류, 특성과 작법에 사용되는 범패에 대해 조사, 나비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춤사위를 갖는 도량계를 분석하여 무보를 작성한 결과 문화예술의 종합적 기능을 가지고 자연숭배 신앙과 접합하여 큰 영향을 주고 받았음.
2	김능화 (2003a)	불교 문화유산 범패와 작법무 연구에서 불교무용 작법무의 종류로는 나비춤·바라춤·법고춤 등이 있는데 신(身)·구(口)·의(意) 삼업을 삼밀가지와 조화시킨 춤사위, 범패는 안채비, 바깥채비(훗소리, 짓소리) 소리로 구분, 법사물의 타악은 대사물이라고도 하며 범종 목어, 운관, 법고 등이 있다. 범종은 당종, 목어는 목탁, 운관은 태징, 법고는 북으로 대사물은 사찰도량, 소사물은 법당 내에서 사용.
3	김능화 (2003b)	한국불교무용의 사상적 의미와 문화예술적 가치 연구에서 불교무용의 유래, 한국적 수용과 전개, 불교의식에서 무용의 구성과 기능을 5개의 재(齋)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나비무, 바라무, 법고무, 타주무의 사상적 의미, 사용하는 음악과 악기, 그리고 불교 무용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순서	연구자	주요내용
4	심상현 (2006)	작법무 거행의 배경과 의의 연구에서 영산재 작법무의 바라무 착복을 중심으로 거행의 배경과 의의 연구. 불교의식무를 기원·수법·찬탄 가운데 한 가지를 주제로 거행한다고 범주를 규정하고, 이때 의식의 주제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몸의 울동으로 나타내는 의식이며, 석존의 본회를 요해함에서 비롯 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작법무를 역할에 따라 기원을 희망 의미의 <내림계바라>, <다계바라>, 수법의 작법무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관욕쇠바라>, <화외재바라>, <도량계작법>, 찬탄의 작법무 <명바라>, <요잡바라>, <사방요신> 등이 있다고 분석함.
5	노명열 (2010)	현행 생전예수재와 조선시대 생전예수재 비교 고찰에서 두 의식에 관한 절차의 비교를 통해 현행 재 의식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해석을 시도. 즉 문헌 연구 및 송강스님의 '요집'을 중심으로 의식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 정리하고, 현장에서 수집한 태징 연주법을 중심으로 음악적 분석을 하였다.
6	박민경 (2011)	작법무의 미적 분석 연구에서 한국 전통춤의 妙美인 '靜中動·動中靜'의 표현형식을 통해 불교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법무의 본질적인미를 탐색하여 불교적 미를 본질로 예술적 미로 승화시킨 작법무를 고찰하고 운심계작법을 분석하였다. 미적 분석의 특징에 있어서 靜的인 표현은 靜中動의 형식, 中的인 표현은 靜과 動의 조절작용인 中의 형식, 動的인 표현은 動中靜의 미적 형식으로 '中道の美'가 나타남.
7	남인화 (2013)	영산재 작법무의 종류와 구성에 관한 검토에서 범패는 전통 불교음악으로 영산재와 같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이다. 범패와 함께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작법무(作法舞)는 의식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며, 그 중 나비춤은 14개 종류로 구분된다고 분석하였다. 작법무 가운데 나비춤의 종류와 동작에 대해 그 특징 분석함.

불교의식 연행에 있어서 범패와 동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법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영산재에서 사용되는 작법무, 지역별로 전승되는 영산재와 작법무 비교, 개별적인 작법무 연행 절차와 과장에 관한 연구, 상주권공재에서 사용하는 작법무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내용은 대부분 영산재를 중심으로 하는 작법무의 연원과 기능 연구, 영산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작법무인 바라무, 법고무, 나비춤 등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 지역별(영제, 중제) 영산재 비교연구와 영산재에서 진행되는 작법무 중 1개의 과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 영산재 작법무 연행 시 태징법 연구 등이 대부분 임을 알 수 있다.

불교의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주권공재에 관한 작법무 연구는 대부분이 의식절차에 따라 사용되는 작법무 분류와 반주음악을 중심의 고찰, 작법무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기호화된 무보를 제시한 연구 등으로 상주권공재 작법무에 관한 연구는 다른 재의식 연구에 비해서 양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한 실정이다. 즉 대부분의 작법무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재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영산재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불교의식 중 기본적이면서도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상주권공재 작법무 춤사위와 대한 연구는 희소하다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상주권공재 작법무 춤사위 동작 분석 연구에 있어서 불교의식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불교의식의 의미와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불교의식의 개념 정의와 불교 재 의식의 유형과 절차, 상주권공재 작법무의 의의, 종류, 사용 범구에 관하여 검토하겠다.

1. 불교의식의 의의 및 개념

불교의 의식(儀式)¹⁹⁾은 불교에서 종교적 목적을 위해 행하는 격식을 갖춘 불교 의례²⁰⁾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불교의식은 불교 교리에 입각한 불교 교단의 의례를 총칭하는 말이라 하겠다. 이러한 불교의식은 사회에 수용되고 민중들 사이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정착된다. 불교의례의 범주는 크게 '세시풍속의례', '일상신앙의례', '소재신앙의례', '사자신앙의례(死者信仰儀禮)', '영혼천도의례', '기타 불공신앙의례'로 구분 할 수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544~546)²¹⁾.

또한 불교의식은 광의 의미와 협의 의미로 정의 할 수 있다. '광의의 불교의식은 불교의례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진 불교 교리 및 모든 수행을 뜻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불제자(佛弟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며 불·보살상 앞에 드리는 모든 의례를 뜻하기도 한다. 또한 불교의식은 전

19) 의식(儀式)은 특정신앙, 종교에 따라 일정한 형식규칙에 따라 사람이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과는 다른 특별한 해위를 말한다.

20) 의례(儀禮)는 일정한 형식에 따른 일정한 규율을 가지는 행위를 말한다.

21) '세시풍속의례'는 석가의 출생·출가·성도·열반일 등의 불교 사대명절의례와 세시풍속에 따른 불교 신앙의례, '일상신앙의례'는 불교신앙인이 행하는 조석예불, '소재신앙의례'는 각종 재앙을 소멸하기 위한 의례, '사자신앙의례'는 사십구재, 수록재, 예수재, '기타 불교신앙의례'는 기도의례라 할 수 있는데 특정한 서원을 하고 그에 따른 공덕을 쌓음으로써 원망(願望)을 처리하려는 신앙 행위를 말한다. '세시풍속의례'와 '일상신앙의례'가 정기적인데 반하여 '소재의례', '사자의례', '기타 불공의례'는 비정기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문의식(專門儀式)과 일용의식(日用儀式)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전문의식은 범패와 작법의 전문적 기능을 겸비한 스님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재(齋)의식을 말하며, 일용의식은 일반 재가불자나 스님들에 의해 평염불로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말한다'(법현, 2005: 15~16; 2002: 22~23).

김종형(2003)은 '불교의식에서 의례(儀禮)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며, 의례는 예불에서부터 불공시식(佛供施食)²²⁾, 재의(齋儀)에 이르기까지 불교의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의식 가운데 독경의식(讀經儀式), 재의식(齋儀式)에서 행해지는 것이 범패의식인데 이러한 범패의식은 범패(梵唄)와 범무(梵舞)로 구분된다고 한다.'(김종형, 2003: 9). 이용식은 '불교의식인 재(齋)는 승려들의 노래인 범패와 춤인 작법, 그리고 반주하는 기악이 어우러지는 악·가·무의 종합공연예술형태'라고 불교의식을 정의하고 있다(이용식, 2015: 32).

노명열(2011)은 '불교에서 올리는 의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선과 악이 갈림길에서 사람들의 나약한 마음을 바로 잡아주며 인간 본성을 찾기 위한 방편이다. 이러한 불교의식은 영산재·수륙재·생전예수재 등으로 나뉘어져 전해지고 있으며 재(齋) 의식은 불보살을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작법(作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명열, 2011: 17~39)

이와 같이 불교의식은 광의의 의미와 협의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범패·작법과 관련된 불교의식은 소재신앙의례(消災信仰儀禮)·사자신앙의례(死者信仰儀禮)이며, 협의의 의미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며 불·보살 앞에 드리는 모든 의례로서 전문 기능을 겸비한 스님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상주권공재·시왕각배재·생전예수재·수륙재·영산재 등과 같이 불·보살을 찬탄하고 공양을 올리는 불교 재의식(齋儀式)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22) 운허용하(1995), 상계서, 327쪽, 506쪽. 불공(佛供)은 부처님께 향·등·꽃·차·과일 등을 공양하는 재로서 보통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말한다. 시식(施食)은 일체 고혼(孤魂)들에게 법식(法食)을 주면서 법문을 일러주고 경전을 읽으며 염불하는 의식 등을 행하는 법식(法式)을 말한다.

2. 불교 재의식의 종류 및 절차

1)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

상주권공재는 영혼의 천도의식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왕생하게 기원 드리는 의식이다. 상주권공재는 천도의 대상인 영가를 도량으로 불러 맞이한 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법식을 베풀어 받도록 하는 의식이며, 영가에게 공양을 대접한 후 극락왕생하도록 봉송하는 내용으로 의식절차가 구성되어 있다(홍윤식, 2009: 28~29).

상주권공재의 의식절차는 사찰 일주문 밖에 나가 영가를 맞아드리는 시련, 영가에게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는 대령, 불보살 친견 전에 영가의 삼독(三毒, 貪·瞋·癡)²³⁾의 마음의 때를 부처님의 법력을 빌어 청정하게 하는 의식 관욕, 불도량을 잘 수호하고 영가를 극락왕생 하게 하는 의식 제 신중을 청하는 신중작법, 불전에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의 가피와 가지력을 받는 상단권공, 영가에게 부처님의 법식(法食)을 받게 하는 관음시식, 청했던 불보살을 먼저 봉송하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봉송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능화, 2006: 85~86).

이상의 상주권공재 의식절차를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23) _____, 상계서, 397쪽. 삼독(三毒)은 탐욕(貪欲), 진에(瞋恚), 우치(愚癡)의 세 가지 번뇌를 말한다.

<표 2-1> 상주권공제 의식절차 및 세부과장²⁴⁾

순서	의식절차	세부과장
1	시련	옹호계, 헌좌계(헌좌진언), 다계, 행보계, 산화락, 나무대성인로왕 보살, 기경작법, 영축계, 보례삼보
2	대령	거불, 대령소, 지옥계, 착어, 진령계, 보소청진언, 고훈청, 향연청, 가영
3	관육	인예향육, 신묘장구대다라니, 정로진언, 입실계, 가지조육, 목욕계, 목욕진언, 관육쇠, 작양지진언, 수구진언, 세수면진언, 가지화의편, 화의재진언, 제불자운운, 수의진언, 착의진언, 정의진언, 출육참성, 지단진언, 가영, 인성, 정중계, 개문계, 가지례성, 보례삼보, 행복 성희, 법성계, 쾌전계, 수의안좌, 안좌계, 다계
4	신중작법	옹호계, 창불(상단,중단,하단), 가영, 다계, 탄백
5	상단권공	할향, 등계, 정례, 합장계, 고향계, 개계, 쇄수계, 복청계, 천수바라, 사방찬, 도량계, 참회계, 거량, 수위좌진언, 보궐진언, 수경계, 사무량계, 귀명계, 준제공덕계,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육자대명왕진언, 준제진언, 정삼업진언, 개단진언, 정법계진언, 거불, 보소청진언, 유치, 청사, 향화청, 내림계, 가영, 고아계, 헌좌계, 육건만나라선송, 정법계진언, 다계, 향수나열, 특사가 지, 사다라니, 운심공양진언, 가지계,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사대주, 원성취진언, 보궐진언, 지장보살멸정업진언, 탄백, 원아계, 화청
6	관음시식	거불, 착어, 진령계, 착어, 증명청, 향화청, 가영, 헌좌진언 운운, 다계, 고훈청, 향연청, 가영, 착어, 수위안좌진언, 다계, 선밀가지 운운, 공덕계, 전시식
7	봉송	공성회향편, 행보계, 의상조사법성계, 소전진언, 봉송진언, 보회향진언, 회향설법

24) 김능화편저(2018), 『범패의식』, (인천: 에림원), 사)범패와작법무보존회, 177~292쪽, 홍윤식(2009), 『범패와 작법무』, (서울: 민속원), 28~37쪽. 참고 작성함.

2) 시왕각배제(十王各拜齋)

시왕각배제는 각배대례왕공제(各拜大禮王供齋), 각배제(各拜齋)라고도 칭하며 명부시왕을 모두 청해 모셔 재를 올리는데 시왕(十王)은 육계육천(欲界六天)의 왕으로부터 명부세계(冥府世界)에 있으면서 지은죄의 경중을 맡아 심판하는 열분의 왕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날부터 49일까지 매 칠일(七日)마다, 그 뒤에는 백일, 소상(小喪), 대상(大喪)때에 차례로 각 왕에게 생전에 지은 선업과 악업의 심판을 받는데 자손들에 의하거나 권속들에 의해 공덕을 쌓아 악업을 소멸시키고 지장보살님의 서원력(誓願力)을 통하여 심판을 받는 중생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능화, 2006: 90~91).

시왕각배제의 의식절차는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상단의식, 중단의식, 상단권공, 중단권공, 관음시식, 어시식, 삼단각배송 순서로 의식이 진행된다. 시왕각배제는 상주권공제의 의식절차와 동일하지만, 중단의식, 중단권공과 어시식이 상주권공제와 상이한 특징을 나타낸다.

이상의 시왕각배제의 의식절차를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시왕각배재의 의식절차 및 세부과장²⁵⁾

순서	의식절차	세부과장
1	시련	옹호계, 헌좌계(헌좌진언), 다계, 행보계, 산화락, 나무대성인로왕 보살, 기경작법, 영축계, 보례삼보
2	대령	거불, 대령소, 지옥계, 착어, 진령계, 보소청진언, 고훈청, 향연청, 가영
3	관육	인예향육, 신묘장구대다라니, 정로진언, 입실계, 가지조육, 목욕계, 목욕진언, 관육쇠, 작양지진언, 수구진언, 세수면진언, 가지화 의편, 화의재진언, 제불자운운, 수의진언, 착의진언, 정의진언, 출 육참성, 지단진언, 가영, 인성, 정중계, 개문계, 가지례성, 보례삼보, 행복성회, 법성계, 쾌전계, 수의안좌, 안좌계, 다계
4	신중작법	옹호계, 창불(상단,중단,하단), 가영, 다계, 탄백
5	상단의식	할향, 등계, 정례, 기경작법, 합장계, 고향계, 개계, 정토결계진언, 쇠향수진언(걸수계),복청계/천수바라, 사방찬, 설법계, 개경계, 개 법장진언, 십념, 거량, 개단진언, 거불, 상단소,진령계, 상단유치, 청사, 향화청, 가영, 고아계, 헌좌진언, 다계, 보공양진언,
6	중단의식	시왕이운, 시왕이운정진, 거불, 시왕소, 진령계, 보소청진언, 유 치, 청사, 향화청, 가영, 고아계, 헌좌계, 헌좌진언, 다계, 시왕 청, 내림계, 산화락/요잡바라, 모란찬, 요잡바라, 보례삼보, 헌좌 안위, 법성계, 쾌전계, 헌좌진언, 다계
7	상단권공	정법계진언, 다계, 사다라니, 운심계, 운심공양진언,가지계, 보공 양진언, 엄신주, 탄백, 축원화청
8	중단권공	기성가지계, 사다라니, 오공양, 가지계 보공양진언, 보궐진언, 탄 백, 보회향진언, 시왕화청, 지장보살멸정업진언
9	관음시식	거불, 착어, 진령계, 착어, 증명청, 향화청, 가영, 헌좌진언 운운, 다계, 고훈청, 향연청, 가영, 착어, 수위안좌진언, 다계, 선밀가지 운운, 공덕계, 전시식
10	어시식	거불, 창훈축, 천수다라니, 파지옥진언, 해관진언, 보소청진언, 정 례, 제귀신청, 삼귀의, 다라니, 칭양성호, 가지계, 시귀진언, 시무 차식법진언, 보공양진언, 고훈축원, 십념
11	삼단각배송	공성회향편, 행보계, 의상조사법성계, 소전진언, 봉송진언, 보회 향진언,회향설법

25) 능 화(2006), 『한국의 불교무용』, (서울: 푸른세상), 90~97쪽 편집 작성함.

3)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생전예수재는 절에서 지내는 재의 한 종류로 사후에 극락왕생(極樂往生)하게 해 달라고 부처님께 살아 생전에 미리 지내는 재이다(장사훈, 1984: 387; 송방송, 2012: 895). 또한 생전예수재는 ‘생전(生前)에 미리(預) 닦는(修) 재(齋)의식’을 말한다. 즉 사후에 행할 불사(佛事)를 살아 있는 당시에 미리 닦기 위해서 드리는 재의식으로 죽은 뒤 명복(冥福)을 빌기 위하여 살아 있을 당시에 자기 자신이 전생에서 진 빚을 미리 갚고 또 재를 드려서 죽기 전에 미리 닦아 놓은 불사이다 (이지형, 1992: 20쪽; 노명열, 2011: 39~40 재인용).

생전예수재의 의식절차는 크게 생전예수재 준비의식인 식전의식과 본 의식, 회향의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식전의식의 순서는 시련, 대령, 인예향육/관육,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개계소, 식당작법, 신중작법/삼십구위, 순당절차, 조전점안법, 금은전이운 순으로 진행된다. 생전예수재 본 의식은 통서인유편, 엄정팔방편, 주향통서편, 소청사자편, 안위공양편, 봉송사자편, 상단영청지의, 보신배헌편, 소청명부편, 참례성중편, 헌좌안위편, 기성가지편, 소청고사판관편, 보례삼보편, 수위안좌편, 수설명사승회소, 마구단권공, 전시식(하단), 공성회향편 순으로 진행된다. 회향의식은 경신봉송편, 화재수용편, 봉송명부편, 보신회향편 순으로 진행한다.

이상의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와 과장, 세부 과장을 요약하면 <표 2-3>, <표 2-4>와 같다.

<표 2-3>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와 과장²⁶⁾

순서	의식절차	과장
1	식전의식	시련, 대령, 인예향욕/관욕, 쾌불이운, 건희소, 영산작법, 개계소, 식당작법, 신중작법/삼십구위, 순당절차, 조전점안법, 금은전이운
2	본 의식	통서인유편, 엄정팔방편, 주향통서편, 소청사자편, 안위공양편, 봉송사자편, 상단영청지의, 보신배헌편, 소청명부편, 참례성중편, 헌좌안위편, 기성가지편, 소청고사판관편, 보례삼보편, 수위안좌편, 수설명사승회소, 마구단권공, 전시식(하단), 공성회향편
3	회향의식	경신봉송편, 화재수용편, 봉송명부편, 보신회향편

<표 2-4>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와 세부 과장²⁷⁾

순서	의식절차	세부과장
1	시련	옹호계, 헌좌계(헌좌진언), 다계, 행보계, 산화락, 나무대성인로왕보살, 영축계, 보례삼보
2	재대령	거불, 선소, 수설대회소, 지옥계, 대령, 진령계, 보소청진언, 고훈청, 가영
3	관욕	인예향욕편, 신묘장구대다라니, 정로진언, 입실계, 가지조욕편, 목욕진언, 작양지진언, 수구진언, 세수면진언, 가지화희편, 화의재진언, 수의진언, 착의진언, 정의진언, 출욕참성편, 지단진언, 산화락, 나무대성인로왕보살, 정중계, 개문계, 가지예성편, 보례삼보, 법성계, 수위안좌편, 헌좌계,
4	신중단	옹호계, 거목, 가영, 다계, 탄백
5	조전점안	금은전점안, 조전진언, 성전진언, 월덕수진언, 나무불수 나무법수 나무승수, 쇠향수진언, 변성금은전진언, 개전진언, 쾌전진언, 금은전이운, 옹호계,요잡, 나무마하반야바라밀, 헌전계, 헌전진언, 경함이운, 동경계, 엄화계, 산화락, 나무영산회상일체제불제대보살마하살, 탄백

26) 헤일명조(2011), 『예수재』, (서울: 에세이퍼블리싱), 86~87쪽, 371~373쪽. 참고 작성함.

27) 김능화(2017), 『생전예수시왕칠재』, (도서출판: 예림원), 25~202쪽. 참고 작성함.

순서	의식절차	세부과장
6	괘불이운	옹호계, 찬불계, 출산계, 염화계, 산화락, 거령산, 등상계, 사무량계, 영산지심, 헌좌진언, 다계, 보공양진언, 건회소, 화청, 옥십갑자화청,
7	예수재 작법준비 (찬탄의식)	예수작법, 할향, 연향계, 연등계, 삼지심, 합장계, 고향계
8	상단권공	통서인유편 , 정삼업진언, 계도도장진언, 삼매야계진언, 엄정팔방편 , 복청계, 천수바라, 사방찬, 도량계, 참회계, 설법, 개단진언, 건단진언, 결계진언, 주향통서편 , 분향진언, 주향공양편 ,
9	중단	소청사자편 , 거불, 사자소, 수설대회소, 진령계, 소청사자진언, 유치, 청사, 향화청, 안위공양편 , 헌좌진언, 정법계진언, 다계, 사다라니, 오공양, 가지계,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보궐진언, 탄백, 행첩소, 수설명사승회소, 봉송사자편 , 봉송계, 봉송진언, 중단영청지의.
10	예수상단	소청성위편 , 거불, 성위소, 진령계, 청제여래진언, 청제현성진언, 유치, 청사, 향화청, 탄백, 증명다계, 향화청, 탄백, 봉영부욕편, 정로진언, 입실계, 찬탄관욕편 , 구룡찬, 관욕계, 혈욕계, 찬청출욕편 , 헌수계, 인성귀의편 , 연화계, 산화락, 나무영산회상불보살, 좌불계, 헌좌안위편 , 헌좌진언, 다계, 보례삼보편 , 사무량계, 사자계, 삼정례, 오자계, 정법계진언, 사다라니,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 헌좌안위, 헌좌진언, 제위진백편 , 정법계진언, 다계, 가지변공,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 보신배헌편 , 중단가지계, 보회향진언, 원성취진언, 보궐진언, 축원(중단영청지의)
11	중단	소청명부편 , 거불, 시왕소, 수설명사승회소, 진령계, 소청염라마왕진언, 유치, 향화청, 탄백, 산화락(내림계), 청부향욕편 , 정로진언, 입실계, 가지조욕편 , 관욕계, 목욕진언, 제성혈욕편 , 헌수계, 혈용계, 출욕참성편 , 산화락(내림계), 참례성중편 , 헌좌안위편 , 헌좌안위편 , 중단권공 , 정법계진언, 기성가지편 , 보신배헌편 , 오공양가지계,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원성취진언, 보궐진언, 소청고사판관편 , 거불, 진령계, 보소청진언, 유치, 향화청, 보례삼보편 , 보례상위, 보례중위, 법성계, 수위안좌편 , 헌좌진언, 고사단가지권공편 , 욱건만나라, 정법계진언, 사다라니, 변식진언,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 오공양, 가지계,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보궐진언, 탄백, 화청, 함합소, 수설명사승회소, 마구단권공, 정법계진언, 다계, 변식진언, 운심계, 운심공양진언, 소송시, 봉송진언

순서	의식절차	세부과장
12	하단	전시식(하단시식), 보소청진언, 지장보살멸정업진언, 관세음보살멸업장진언, 개인후진언, 삼매야계진언, 선밀가지, 변식진언,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 칭양성호, 시귀식진언, 시무차법식진언, 보공양진언, 참회계, 발보리심진언, 공성회향편 , 십념
13	봉송회향	경신봉송편 , 행보계, 산화락, 법성계지소대, 화재수용편 , 화재계, 소전진언, 헌전진언, 봉송명부편 , 봉송진언, 상단전송절차, 보신회향편 , 보회향진언

4) 수록재(水陸齋)

수륙무차평등재의(水陸無遮平等齋儀)를 줄여서 수록재(水陸齋), 수록회(水陸會), 무차대회(無遮大會), 수록도량(水陸道場)이라고도 한다. 수록재는 물과 물에서 떠도는 고훘과 아귀 등의 혼령들에게 법식을 평등하게 공양하여 구제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유주(有主), 무주(無主)의 외로운 영혼들을 천도하기 위한 재이다. (능화, 2006: 119; 흥윤식, 2009: 97)

수륙재의 의식절차는 시련, 대령, 관육, 조전점안, 신중작법, 괘불이운, 상단의식(설화인유편), 중단의식(소청사자편, 봉송사자편), 개벽오방편(오로단), 소청상위편, 중단권공(소청중위편), 하단의식(소청하위편), 식당작법, 신중퇴공, 관음시식/전시식, 봉송의 등이 순서로 수록재 의식을 진행한다.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괘불이운, 식당작법, 신중퇴공, 관음시식/전시식, 봉송의 의식 절차는 영산재와 동일하다. 다만 수록재의 경우 상단의식, 중단의식, 하단의식 등의 의식 구성과 절차는 다른 재와 비교해 특색있는 의식 절차를 구성하고 있다(법현, 2005: 187).

이상의 수록재 의식절차를 요약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수록재의 의식절차 및 세부과장²⁸⁾

순서	의식절차	세부과장
1	시련	옹호계, 헌좌계(헌좌진언), 다계, 행보계, 산화락, 나무대성인로왕 보살, 영축계, 보례삼보
2	대령	거불, 선소(고혼소, 대령소), 지옥계, 대령, 진령계(파지옥진언, 멸악취진언), 보소청진언, 고훈청, 가영
3	금은전점안	기성가지, 나무시방불, 월덕수진언, 조전진언, 성전진언, 쇠향수진언, 변성금은전진언, 개전진언, 쾌전진언, 금은전이운의식, 헌전진언
4	괘불이운의식	옹호계, 창불(상단, 중단, 하단), 산화락, 나무수룩회상불보살, 변등사자좌, 대자대비중생, 지심귀명래 수록회상, 헌좌계, 헌좌진언, 다계, 건회소(수설대회소)
5	쇄수결계 (상단) (설회인유편)	천수경, 복청계, 사방찬, 도량계, 할향, 연향계, 할등, 연등계, 삼정례, 개계소(수설수록대회소), 합장계, 고향계, 설회인유편 제일, 정법계진언, 선취도향 좌지우도진언, 금강장어심인송 정삼업진언, 엄정팔방편 제2, 쇠정다라니, 건단진언, 개단진언, 결계진언, 주향통서편 제3, 분향진언, 주향공양편 제4
6	사자단의식 (중단) (소청사자편)	거불, 사자소, 수설수록대회소, 진령계, 소청사자진언, 유치, 청사, 향화청, 가영, 인위공양편 제6, 마하반야밀다심경, 헌좌진언, 정법계진언, 다계, 진공진언, 사다라니/향수나열(변식진언,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지언), 오공양, 가지계,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원성취진언, 보결진언, 화청, 행첩소, 봉송사자편 제7, 봉송진언, 봉송계
7	오로단의식 (개벽오방편)	거불, 개통오로소(수설수록대회소), 진령계, 보소청진언, 유치, 청사, 향화청, 가영, 안위공양편 제9, 신묘장구대다라니, 헌좌진언, 다계, 진공진언, 사다라니/향수나열(변식진언,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지언, 유해진언), 오공양, 가지계,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마하반야밀다심경,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원성취진언, 보결진언, 개통도로진언

28) 삼화사국행수룩재보존회(2015), 『삼화사 국행 수록재』, (인천: 예림원), 18~216쪽, 편집 작성함.

순서	의식절차	세부과장
8	상단의식 (소청상위편)	거불, 상위소(수설수륙대회소), 진령계, 청제여래진언, 청제보살진언, 청제현성진언, 봉영차로진언, 유치, 청사, 봉영부욕편 제11, 정로진언, 입실계, 찬탄관욕편 제12, 구룡찬, 관욕계, 인성귀의편 제13, 연화계, 산화락, 나무영산회상불보살, 좌불계, 헌좌안위편 제14, 헌좌계, 헌좌진언, 다계, 예찬삼보편 제15, 사무량계, 사자계, 삼정례, 오자계, 가지변공(변식다라니,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유해진언), 오공양, 운심공양진언,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보회향진언,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원성취진언, 보결진언, 정근, 석가여래종자심진언, 탄백, 화청, 축원
9	중단의식 (소청중위편)	거불, 소청중위소(수설수륙대회소), 진령계, 소청삼계제천주, 소청오통제천주, 소청일체전룡주, 소청일체선신주, 소청염마라양주, 유치, 청사, 가영, 봉영부욕편 제17, 정로진언, 입실계, 가지조욕편 제18, 목욕진언, 출욕참성편 제19, 천선예성편 제20, 보례계, 삼정례, 오자계, 헌좌안위편 제21, 헌좌계, 헌좌진언, 정법계진언, 다계, 사다라니(변식다라니, 시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유해진언), 오공양,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원성취진언, 보결진언,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탄백, 화청(중단화청), 축원
10	하단의식 (소청하위편)	거불, 소청하위소(수설수륙대회소), 진령계, 파지옥진언, 멸악취진언, 소아귀진언, 구소제약취중진언, 보소청진언, 유치, 인예향욕편 제23, 신묘장구대다라니, 정로진언, 가지조욕편 제24(목욕진언), 작양지진언, 수구진언, 세수면진언, 가지화의편 제25(수의복식), 착의진언, 정의진언, 지단진언, 산화락, 고혼참성편 제28(법성계), 수위안좌편 제29, 수위안좌진언, 신성가지편 제30, 대위덕진언, 감로수진언, 수륜관진언, 유해진언, 보신배헌편 제31,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공성회향편 제32(신묘장구대다라니), 기성가지편 제33(중단공양), 대위덕진언, 감로수진언, 수륜관진언, 유해진언, 보신배헌편 제34,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공성회향편 제35(반야심경), 보회향진언, 선밀가지편 제36(하단), 나무다보여래, 나무묘색신여래, 나무광박신여래, 나무이포외여래, 나무감로왕여래, 가지멸죄편 제37, 주식현공편 제38, 고혼수향편 제39, 보공양진언, 설원인연편 제40, 원성수은편 제41(반야심경), 참제업장편 제43, 참회진언, 발흥서원편 제44, 발보리심진언, 사사귀정편 제45, 귀의삼보진언, 석상호지편 제46, 시계진언, 득계소요편 제47, 수성십도편 제48, 의십획과편 제49, 불성왕생정토주, 관행계찬편 제50
11	봉송회향	봉송회향의식(수설수륙대회소), 회향계찬편 제51(산화락, 법성계), 화재수용편 제52, 소전진언, 경신봉송편 제53, 봉송진언, 상품상생진언, 보신회향편 제54, 보회향진언

5) 영산재(靈山齋)

영산재는 불교의식 중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가 큰 재이다. 즉 상주권공제가 1일정도 걸리는데 비해 영산재는 3일정도 걸리는 대규모 불교 재의식 절차로 상주권공제, 시왕각배재, 수록재, 생전예수재에 비해 규모가 제일 큰 재(齋)이다(송방송, 2012: 1221).

영산재에서 영산(靈山)은 영축산(靈鷲山)의 줄임말로 석존께서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하시던 장소를 말한다. 영산재는 법화경에 의거하여 영산 당시의 장엄한 설법광경을 찬탄하며 영산집회 시 불보살(佛菩薩)께 공양하 올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산재는 영산회상 법회에 동참한 모든 청문중(聽聞衆), 외호중(外護衆)이 환희심을 일으키고 시방(十方)의 제석천왕과 수 많은 보살, 신중 등이 운집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환희했으며, 하늘에는 만다라 꽃이 날리고 묘음보살(妙音菩薩)과 천동천녀(天童天女)가 하강하여 꽃과 향, 기악과 가무로써 공양하였던 당시의 광경을 재현한 의식 절차이다.(홍운식·정병호, 1987: 9; 김종형, 2006: 9 재인용)

3일간 주야로 진행되는 영산재 의식 절차는 첫째날은 시련, 대령, 관육, 저녁에 익일 예불 등 4개의 절차를 진행한다. 둘째날은 조전점안(造錢點眼), 신중작법, 괘불이운, 봉불이운, 영산(중간까지), 식당작법, 저녁에 익일 예불 등 6개의 절차를 진행한다. 셋째날은 영산(중간부터), 운수상단, 중단(召請中位), 신중퇴공, 관음시식/전시식, 소대봉송(消臺奉送), 회향설법 등 7개의 절차로 진행한다. 영산재의 의식 진행 절차는 크게 시련, 대령, 관육, 조전점안, 신중작법, 괘불이운, 상단권공(영산작법), 식당작법, 운수상단권공, 중단권공, 신중퇴공(중단), 관음시식, 봉송 및 소대의식 등 13개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영산재의 3일간의 절차와 영산재 의식절차 및 세부과장을 요약하면 <표 2-6>·<표 2-7>과 같다.

<표 2-6> 영산재 3일간의 의식절차²⁹⁾

순서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1	시련(侍輦)	조전점안(造錢點眼)	영산(靈山) 중간부터
2	대령(對靈)	신중작법(神衆作法)	운수상단(雲水上壇)
3	관욕(灌浴)	괘불이운(掛佛移運)	중단(中壇, 召請中位)
4	저녁에 익일 예불	영산(靈山) 중간까지	신중퇴공(神衆退供)
5		식당작법(食堂作法)	관음시식(觀音施食, 尊施食)
6		다음날 예불(禮佛) 봉행	소대봉송(消臺奉送)
7			회향설법(回向說法)

<표 2-7> 영산재 의식 절차 및 세부과장³⁰⁾

순서	의식절차	세부과장
1	시련	옹호계, 헌좌계(헌좌진언), 다계, 행보계, 산화락, 나무대성인로 왕보살, 기경작법, 영축계, 보례삼보
2	대령	거불, 대령소, 지옥계, 착어, 진령계, 보소청진언, 고훈청, 향연청, 가영
3	관욕	인예향욕, 신묘장구대다라니, 정로진언, 입실계, 가지조육, 목욕계, 목욕진언, 관욕쇠, 작양지진언, 수구진언, 세수면진언, 가지 화의편, 화의재진언, 제불자운운, 수의진언, 착의진언, 정의진언, 출욕참성, 지단진언, 가영, 인성, 정중계, 개문계, 가지례성, 보례삼보, 행복성회, 법성계, 괘전계, 수의안좌, 안좌계, 다계
4	조전점안	금은전점안, 조전진언, 금운전이운, 이운계, 산화락, 나무마하반야바라밀, 경함이운(經函移運), 산화락, 거령산, 헌전진언
5	신중작법	옹호계, 창불(상단, 중단, 하단), 가영, 다계, 탄백
6	괘불이운	옹호계, 찬불계, 출산계, 염화계, 산화계, 등상계, 사무량계, 헌좌계, 다계, 보공양진언, 건회소

29) 법 현(1997), 『불교음악 영산재 연구』, (서울: 운주사), 15쪽 참고 작성.

30) 법현(1997), 상계서, 35~146쪽 편집 작성.

순서	의식절차	세부과장
11	신중퇴공(중단)	다게, 거목, 상래가지, 보공양진언, 모회향진언, 원성취진언, 보 결진언, 정근, 탄백
12	관음시식	거불, 착어, 진령계, 착어, 증명청, 향화청, 가영, 헌좌진언 운운, 다게, 고훈청, 향연청, 가영, 착어, 수위안좌진언, 다게, 선밀가 지 운운, 공덕계, 전시식
13	봉송/소대의식	공성회향편, 행보계, 의상조사법성계, 소전진언, 봉송진언, 보회 향진언, 회향설법

3. 상주권공재 작법무의 의의 및 종류

1) 상주권공재 작법무의 의의

상주권공재는 영혼 천도의식의 일종으로 망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임종한 지 49일만에 봉행한다고 하여 49재라고도 한다. 또한 상주권공재는 영가(靈駕)를 맞이하여 불전에 공양을 올리고 법식을 베풀어 받도록 한 다음 다시 영가를 대접하여 극락왕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불교의례의 일종이다(김종형·능화, 2003: 60~61).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 천도재는 죽은 사람을 극락세계(極樂世界)로 왕생시켜 생사윤회(生死輪迴)의 고통을 면하게하고자 하는 죽은자에 대한 산자의 선행 공덕이라 할 수 있다(조영길·백성, 2007: 9).

불교의식의 하나인 상주권공재를 연행 할 때 범패와 작법무를 같이 연행한다. 범패는 불교음악 성악의 하나로 범패는 범음범패(梵音梵唄)라고도 하고 범음, 인도(引導)소리, 어산(魚山)이라고도 한다. 이때의 범(梵)은 청정(淸淨)의 의미를 담고있어 ‘청정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소리’라 하는 것은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말한다. 즉 청정한 소리로 부처님을 기쁘게하고 그 공덕으로 영가를 극락으로 인도한 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홍윤식, 상계서: 11).

이러한 범패와 불교의식에서 같이 연행하는 작법무는 불교의식 진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불교에서 작법(作法)이라는 의미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에서 작법은 중승(衆僧)의 공양의식이자 불교 의식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식당작법’에서 볼 수 있듯이 팔위의(八威儀)³¹⁾ 등 승려가 지켜야 할 예법이나 그 행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

31) 민경환(2005), 「향화계작법 구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쪽.
불교 수행의 8가지 덕목인 행(行)·주(住)·좌(坐)·와(臥)·어(語)·묵(默)·동(動)·정(靜)을 말하며, 좌립(坐立)이라고도 한다.

으로 좌립(坐立)이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로는 소례(小禮)를 찬탄하거나 기원의 성취를 발원하기 위한 바라무·착복무·법고무·타주무 등 몸으로 나타내는 율동으로 한정해서 사용한다. 특히 이것을 작법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기원이나 찬탄의 내용을 율동으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세간의 율동과 달리 율동이나 정신이 수행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작법무라고 하고 신업공양(身業供養)으로서 의미를 지닌다(심상현, 2006: 136~137). 다시 말해서 작법무는 부처님의 '법을 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신(身)·구(口)·의(意)의 삼업(三業)의 수행을 통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식이며, 작법무 의식에서 불·보살을 찬탄하거나 발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연행을 의미한다(홍윤식, 상계서: 12). 즉 불교의식에서 범패가 부처님께 올리 음성공양이라고 한다면 작법무 연행은 신업공양(身業供養)으로 불교 재의식을 더욱 장엄하게 하고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겠다.

불교의식에서 사용하는 작법무의 종류로는 나비작법무,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타주작법무 등이 있으며, 상주권공재에서는 타주작법무를 제외한 나비작법무,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등 3종류의 작법무가 연행된다.

2) 상주권공재 작법무의 종류

(1) 나비작법무

① 의의

나비작법무는 일명 작법(作法)이라고도 한다. 춤추는 모습이 나비와 같아서 나비춤이라고 하며, 가사를 입고 추는 춤이라고 하여 착복무(着服舞)라고도 한다. 나비작법무의 법복(法服)은 육수가사(六銖袿裳)³²⁾를 수하고 고깔

을 착용한 모습으로 연행한다. 육수가사는 홍색 바탕의 가사와 앞·뒤쪽으로 각각 드리운 청색과 황색의 2가닥씩 모두 6가닥으로 되어있다고 하여 육수(六垂)가사라고도 하며 육바라밀(六波羅密)을 상징한다. 그리고 나비작법무는 의상이나 춤사위 등에서 불법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작법무이다.

나비작법무는 공양을 올릴 때, 예불을 할 때 연행하는데 천상천하(天上天下)의 모든 신들과 일체의 만물들 중 소생하지 못한 미물들을 소리를 울려 불러들인 다음 죄를 참회시켜 부처님께 귀의하도록하기 위해 추는 작법무로 부처님의 법열(法悅)의 세계로 인도하는 작법무이다(홍윤식, 상계서: 83: 능화, 상계서: 125). 다시 말하면 나비작법무는 불법을 상징하는 작법무이다. 나비작법무는 재의식 중 중요한 부분을 춤의 동작으로 나타내어 불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춤의 명칭은 의식의 중요 절차의 명칭을 따서 다양하게 붙이고 있지만 춤사위는 대동소이하다.

나비작법무가 연행되는 종류로는 도량계작법, 다계작법, 사방요신작법, 정례작법, 향화계작법, 운심계작법, 지옥계작법, 자귀의불작법, 만다라작법, 기경작법, 삼귀의작법, 모란찬작법, 구원겁중작법, 오공양작법 등 14가지 종류가 있다. 나비작법무는 범패, 요령, 태징, 목탁, 북 등의 악기로 반주한다. 나비무 동작에서 중요한 춤사위는 반신요배(半身遙拜) 동작과 양쪽 발을 '丁'자로 하여 회전하는 동작이다. 이 작법무는 빠른 동작이 거의 없고 어깨나 고개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 조용하고 원만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극히 좁은 공간에서 느린 한배로 춤을 연행하여 조심스럽고 정중한 느낌의 작법무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상계서5: 215) .

32)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1), 상계서 1, 42쪽.

가사(袈裟)는 불교의 법복(法服) 가운데 하나로 왼쪽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걸쳐입는 옷이다.

② 사용 법구

나비작법무 연행에서 사용되는 법구(法具)는 고깔, 꽃, 육수가사, 육수장삼 등의 법구가 사용된다. 고깔은 승모(僧帽)의 일종으로 천이나 종이를 두 겹께 배접하여 꼭대기를 뾰족하게 만든다. 고깔이라는 이름에서 ‘고’의 어원은 ‘곳’으로 첨각(尖角)을 나타내고, ‘갈’은 관모(冠帽)를 말하며 이는 불탑을 상징한다. 불탑은 불보(佛寶)와 법보(法寶)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깔을 쓰는 것은 불보와 법보를 정대(頂戴), 즉 머리에 올린다는 의미이다. 나비작법무를 출 때에는 양손에 지화로 만든 꽃³³⁾을 들고 추는데, 이것은 처염상정(處染常淨)의 경지를 상징한다고 하겠다.(홍윤식, 상계서: 85)

나비작법무를 연행하기 위해 육수가사(六銖袈裟)와 육수장삼(六銖長衫)을 착용한다. 육수가사는 홍색바탕의 가사와 앞뒤쪽으로 각각 드리운 청색, 황색의 2가닥씩, 모두 여섯가닥으로 ‘육수가사’라고 하며, 이는 육바라밀을 의미한다. 장삼은 가사안에 입는 법복으로 흰색 무명천으로 만든다. 몸의 기장과 팔의 기장이 동일하며, 옷고름 가운데있는 끈은 빨간색 양단으로 만든다. 너비는 2cm 정도로 ‘돌띠’라고 말한다. 겨드랑이의 터져있는 곳은 ‘당아지’라고 한다. 몸판의 앞 깃을 옆으로 펼치면 8칸으로 꿰매져 있다고 하여 ‘팔금강’이라고도 한다. 또한 ‘영자(纓子) 혹은 대령’이라고 하여 너비가 20cm 쯤 되는 화려한 비단을 앞가슴에 대고 붉은색 끈으로 묶는다. 이때 영자의 길이는 어깨부터 발끝까지 닿게 한다(홍윤식, 상계서: 83~84). 나비작법무 연행에서 사용되는 법구는 <사진 2-1>과 같다.

33) 한정미(2010), 「불교의식의 작법무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5쪽.

지화의 종류로는 모란, 작약, 연꽃, 수국(불두화)을 말한다. 불두화(佛頭花)는 수국꽃의 몽야새가 부처님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사진 2-1> 나비작법무 사용 법구



<고깔 전면>



<고깔 측면>



<연꽃 전면>



<연꽃 후면>



<육수가사>



<홍띠, 영자>



<육수장삼>



<착복한 모습>

(2) 바라작법무

① 의의

바라작법무는 동(銅)으로 만든 악기를 양손에 들고 추는 작법무이다. 불교의식이나 사찰에서 법회때 사용하는 바라(哮囉)는 무울타악기의 하나이다. 자바라(嗒哮囉)·발(鉞)·제금(提金)이라고도 한다. 바라는 그 크기에 따라 자바라·요발(鐃鉞)·동발(銅鉞)·향발(響鉞)등이 있으며, 용도가 다르다. 모양은 냄비 뚜껑같이 생긴 두 개의 얇고 둥근 놋쇠판으로 만들며, 놋쇠판 중앙의 불룩하게 솟은 부분에 구멍을 뚫고 끈을 매어 그것을 양손에 하나씩 잡고 부딪혀서 소리낸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상계서 8: 863).

바라작법무는 불법을 수호하는 뜻을 지닌 작법무로 의식도량을 정확하여 성스러운 장소가 되게 하는 춤이며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식 절차상 특히 도량정화와 깊은 관계를 갖는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상계서 8: 863). 즉 바라작법무는 불법을 수호하는 작법무로 불보살의 강림이나 의식도량의 옹호와 같은 내용을 복돋을 필요가 있을 때 추는데 이 춤을 출 때 여러 가지 진언을 염송(念誦)하게 된다. 이것은 부처님을 찬탄하고 허공중

생을 천도한다는 뜻에서 추어지며, 제불보살과 작법도량을 수호해주는 사방 금강신을 찬탄하는 작법무이다(능화, 상계서: 124~125).

바라작법무는 불교의식무에서 가장 화려한 춤사위를 갖는 춤이다. 바라작법무의 의상은 일상적인 스님의 가사와 장삼을 착용하고 연행한다. 양손에 바라를 들고 2인 또는 4인이 같이 추며, 반주음악은 범패, 호적, 태징, 삼현육각 등을 사용한다. (홍윤식, 상계서: 69~70). 바라작법무의 종류로는 천수바라작법무, 사다라니바라작법무, 명바라작법무, 내림계바라작법무, 관육계바라작법무, 화의재진언바라작법무, 요잡바라(번개바라, 막바라, 평바라)작법무 등 7가지의 바라작법무가 있다.

바라작법무의 중요 춤사위는 바라를 머리위로 올리거나 내릴 때, 양손을 교차시켜 돌릴 때 상체는 꼴꼴이 세우고 시선은 코 끝에 둔다. 그리고 발은 언제나 ‘丁’로하고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굴신시켜 바라를 연행하며, 이러한 기본 동작을 통하여 전진, 후진, 회전하며 매우 활달한 춤사위를 갖추고 있어 남성적인 춤이라고도 한다. 바라작법무는 1인이 연행할 경우 ‘외바라’ 혹은 ‘평바라’라고 하고, 2인이 거행하는 경우 ‘겹바라’, 3인이 거행하는 경우 ‘쌍바라’라고 말하기도 한다. 바라작법무는 재의 규모에 따라 10인 이상이 연행하는 경우도 있다.

② 사용법구

바라작법무 연행에서 사용되는 법구(法具)는 바라, 가사, 장삼 등이 사용된다. 바라는 사찰의 법회때 사용되는 동으로 만든 금속악기로 발자(鉢子), 동발(銅鉢), 요잡(繞匝) 등으로 부르며 서양의 심벌즈와 유사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김복영, 2012: 10). 바라의 크기는 36cm~38cm정도의 크기를 많이 사용하며, 바라의 끈은 ‘명다리 끈’, ‘광목’이라고 부른다. 끈은 소창 폭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길이는 바라 지름의 3.5배 정도인 140cm정도로 바라에 알맞게 맨 후 30cm 정도 남게 하여 늘어지게 맨다(김능화, 2001: 105). 의

상은 가사와 장삼인 법의(法衣)를 갖추고 작법무를 거행한다. 이때 가사는 붉은색이나 고동색 등 불교 종단을 상징하는 색으로 갖추 수 있으며 요즘에는 나비작법무 의상인 육수장삼을 입고 연행하기도 한다. 바라작법무 연행에서 사용되는 법구는 <사진 2-2>와 같다.

<사진 2-2> 바라작법무 사용 법구



<바라 곁면>



<바라 속면>



<바라무 가사>



<바라무 장삼>

(3) 법고작법무

① 의의

법고작법무는 범종·목어·운판 등과 함께 사물(四物)이라 하여 일상의 불교 의식에서 사용하는 법악기이다(홍윤식, 상계서: 82). 법고(法鼓)는 일명 홍고(弘鼓)라고도 하는데 법고는 잘 건조된 나무로써 북의 몸통을 구성하고 소리를 내는 양쪽면에는 소의 가죽을 사용한다. 이 때 북의 가죽은 암소와 숫소의 가죽을 각기 양면에 부착하여야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법고는 불교에서 정법(正法)의 북을 쳐서十方세계(十方世界)를 깨우치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불교 사물 중 하나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상계서 9: 530~531).

법고작법무는 불법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추는 작법무이다. 법고를 치는 이유는 모든 대중들이 의식에 동참하라는 신호의 소리이고, 세간의 모든 중생들까지도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하여 부처님께 제도 받고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법고작법무는 일체의 중생들이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도록 하는 염원을 실어서 북치고 춤추는 것이며, 또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축생(畜生)과 같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북을 치며 추는 것이다. 그리고 축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리석음을 버리도록 깨우쳐 주는 기능을 갖는 작법무라고 할 수 있다(능화, 상계서: 125). 즉 법고작법무는 부처님의 법을 통해 환희심을 표현하는 상징성을 갖는 작법무로 다른 작법무에 비해 동작이 크고 활기찬 느낌의 춤사위를 표현한다. 법고작법무는 영산재,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 생전예수재, 수록재 등의 의식 사이 사이에 추어지며, 상주권공재 의식에서는 시련 절차 중 귀경작법, 상단권공 절차 중 도량계 작법, 다계작법 등에서 연행된다.

② 사용법구

법고작법무 연행에서 사용되는 법구(法具)는 법고, 법고 복채, 가사, 장삼 등이 사용된다. 법고는 불교의 사법악기(四法樂器)이 하나로 목어(木魚)·범종(梵鐘)·운판(雲板) 등과 함께 조석(朝夕) 예불이나 수행의 정진을 위한 각종 불교의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구이다. 복은 주로 나무로 기본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가죽을 입히고 여러 가지 그림으로 장식하며 크기에 따라 대·중·소 구분 할 수 있는데, 법고는 일반적으로 큰 복을 말한다. 복채는 박달나무로 만들며 길이는 1자(30.3cm) 정도로 2개가 한쌍을 이룬다(신은주, 1991: 19; 김복영, 상계서: 34. 재인용). 법고작법무를 연행 할 때 복식은 일반적인 가사와 장삼을 입고 연행하거나 착복한 승려가 고깔 만 벗어 놓고 육수가사를 착복한 상태에서 연행하기도 한다(김복영, 상계서: 22). 법고작법무 연행에서 사용되는 법구는 <사진 2-3>과 같다.

<사진 2-3> 법고 작법무 사용 법구



<법고>



<법고 복채>

Ⅲ. 상주권공재 법문 내용과 사용 작법무

본 장에서는 작법무가 진행되는 “시련” 절차의 ‘옹호계’·‘다계’·‘귀경’ 과장, “관육” 절차의 ‘관육계’·‘화의재진언’ 과장, “신중단” 절차의 ‘옹호계’·‘다계’, “상단권공” 절차의 ‘정례’·‘천수바라’·‘도량계’·‘삼남태’·‘향화청’·‘육건만나라’·‘다계’·‘사다라니’·‘운심계’ 과장에서 사용되는 법문 내용과 작법무를 검토하겠다.

1. 시련(侍輦)

상주권공재의 제1절차인 시련(侍輦)절차는 불(佛)·보살(菩薩)·옹호신중(擁護神衆), 영가를 봉청(奉請)해 모시는 의식으로 대중이 연(輦, 손수레)을 들고 해탈문 밖의 시련터로 나가 나무대성인로왕보살(南無大成引路王菩薩)의 인도로 재를 지내는 도량으로 모셔오는 의식절차이다(법현, 1997: 35). 즉 시련절차는 사찰의 일주문 밖으로 나가서 영가를 맞아들이는 의식을 말한다(홍윤식, 2009: 30). 상주권공재 중 시련 절차에서 작법무가 시행되는 과장은 옹호계, 다계, 귀경 등에서 사용한다.

1) 옹호계(擁護偈)

상주권공재 시련 절차 9개의 의식구성 중 옹호계 과장은 상주권공재 시작을 여는 제1과장으로 상주권공재의 시방(十方)의 성현들과 이것을 옹호해 주시는 옹호신을 청하는 절차로 법문의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옹호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주요내용	사용작법무
1	奉請十方諸賢聖 (봉청시방제현성)	받들어 청합니다. 시방의 모든 성현님	요잡바라무
2	梵天帝釋四天王 (범왕제석사천왕)	대범천왕님, 제석천왕님, 사천왕님	
3	伽藍八部神祇衆 (가람팔부신기중)	가람을 수호하시는 팔부류의 신중님	
4	不捨慈悲願降臨 (불사자비원강림)	자비의 마음으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련 절차 중 옹호계는 재의 시작을 알리고 거행하는 절차로 법문은 7언4구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시방의 성현님들과 대범천왕, 제석천왕, 사천왕, 신중님 등 재(齋)를 지내는 도량에 정중하게 청하는 법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옹호계 과장에서는 요잡바라무를 연행한다.

2) 다게(茶偈)

상주권공재 시련 절차 9개 의식구성 중 다게 과장은 제3과장으로 봉청해 온 시방(十方)의 성현님들께 감로차를 정성껏 올리는 과장으로 법문의 내용은 <표3-2>와 같다.

<표 3-2> 다게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작법무
1	今將甘露茶 (금장감로다)	이제 감로차를	다게나비작법무, 막바라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2	奉獻聖賢前 (봉헌성현전)	성현님 전에 받들어 올리니	
3	鑑察虔摠心 (감찰건간심)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	
4	願垂慈悲哀納受 (원수자비에납수)	자비로서 받아주시옵소서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련 절차 중 다게 과장은 5언4구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4구의 ‘願垂慈悲哀納受(원수자비에납수)’ 경우 6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게 과정에서는 성현님들께 정성들여 달인 감로차를 공양하며, 이러한 정성에 감응하시고 애처롭게 생각하시어 자비로서 받아달라는 내용의 법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게 과장에서 연행하는 작법무로는 다게 나비작법무를 먼저 연행한 후 막바라작법무, 그리고 마지막에 나비무인 사방요신 나비작법무를 연행한 후 다게 과장을 끝마친다.

3) 기경

상주권공재 시련 절차 9개 의식구성 중 기경 과장은 제7과장으로 불경(佛經)을 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과장으로 법문 없이 태징에 의해 작법무를 연행하는 과장이다. 이를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표 3-3> 기경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작법무
1	없음	없음	기경 나비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경 과장에서는 법문은 없고 태징 소리에 맞추어 착복한 스님들이 작법무를 연행한다. 작법을 마친 후에는 모셔온 번과 연, 그리고 위패 등을 불단의 상단을 향해 선 후 삼보께 올리는 영축계(靈鷲偈)를 대중창(大衆唱)으로 소리한다. 기경 과장에서 사용하는 작법무는 태징소리에 맞추어 기경 나비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순으로 연행한다.

이상의 상주권공재 의식 구성 중 제1절차인 시련 절차에서 작법무가 사용되는 과장은 시련 절차 총 9개의 의식 구성 중 3개 과장에서 작법무가 연행된다. 즉 제 1과장인 옹호계에서는 요잡바라작법무, 제 3과장인 다계에서는 다계나비작법무·바라작법무·사방요신작법무, 제 7과장인 기경에서는 기경나비작법무·사방요신작법무·요잡바라작법무·법고작법무 등이 사용되며 이를 요약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상주권공재의 시련 절차 중 과장 및 사용 작법무

의식순서	과장	사용작법무
1	옹호계	요잡 바라작법무
2	헌좌계/헌좌진언	
3	다계	다계 나비작법무, 막 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4	행보계	-
5	산화락	-
6	인성	-
7	괴경	괴경 나비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8	영축계	-
9	보례삼보성	-

2. 관욕(灌浴)

상주권공재 의식구성 중 제 3절차인 관욕(灌浴) 절차는 불보살을 친견하기 전에 영가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청결히 하는 절차이다(홍윤식, 상계서: 30). 즉 관욕 절차는 살아 생전 영가가 지은 신(身)·구(口)·의(意) 등 삼업(三業)으로 인해 더럽혀진 몸과 마음의 업을 부처님의 감로법과 진언(眞言)으로 청량케 하는 의식으로 영혼에게 불법을 들려주어 깨침과 불법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의식이다(김응기, 1996: 32~33). 상주권공재 의식 구성 중 관욕 절차에서 작법무가 시행되는 과장은 관욕계, 화의재진언 등에서 사용한다.

1) 관욕계(灌浴偈)

상주권공재 관욕 절차 33개의 의식구성 중 관욕계 과장은 제8과장으로 영가의 목욕 진언 후에 법문 없이 관욕쇠 태징에 맞추어 관욕계 바라작법을 연행한다. 이를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표 3-5> 관욕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작법무
1	없음	없음	관욕계 바라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표3-5>에서 보는 바와같이 관욕계 과장에서는 목욕진언 ‘옴 바다모 사니사 아모까 아레 흠’의 목욕진언을 3회 소리낸 후 관욕쇠 태징을 올린 후 착복한 스님이 관욕 의식을 시행하는 장소로 나아가 관욕쇠 태징에 맞추어 요잡 바라작법무와 유사한 관욕계 바라작법무를 춘다. 관욕계 바라작법무의 의미는 지옥문을 열고 지옥에 존재하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바라작법무 이다.

2) 화의재진언(化衣財眞言)

상주권공재 관육 절차 33개 의식구성 중 화의재진언 과장은 제13과장으로 영가의 옷을 태워 법으로 만드는 의식으로 진언을 독창 할 때 태징에 맞추어 화의재진언 바라작법무를 연행한다. 이를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표 3-6> 화의재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작법무
1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바자나 베로기제 사바하 (3회)	영가의 생전에 지은 업장소멸, 해탈의 의복을 입힌다는 의미	화의재진언 바라작법무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의재진언 과장은 상주권공재의 관육 절차 중 제13 절차에서 연행하는 것으로 화의재진언은 영가의 옷을 태워 영가 생전의 업장소멸과 부처님의 해탈의 법으로 만든 옷을 입혀드린다는 의식으로 ‘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바자나 베로기제 사바하’의 화의재진언을 3회 반복으로 독창한다. 이 때 화의재진언 소리와 태징 소리에 맞추어 화의재진언 바라작법무를 연행한다.

이상의 상주권공재 의식 구성 중 제 3절차인 관육 절차에서 작법무가 사용되는 과장은 관육 절차 총 33개의 의식 구성 순서 중 2개 과장에서 작법무가 연행된다. 즉 제 8과장인 관육계에서는 관육계 바라작법무, 제 13과장인 화의재진언에서는 화의재진언 바라작법무 등이 사용되며 이를 요약하면 <표 3-7>과 같다.

<표 3-7> 상주권공재의 관육 절차 중 과장 및 사용 작법무

의식순서	과장	사용작법무
8	관육계	관육계 바라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13	화의재진언	화의재진언 바라작법무

3. 신중단(神衆壇)

상주권공재 의식구성 중 제 4절차인 신중단(神衆壇)절차는 불법의 도량을 청결히 하고 잡신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신중(神衆)들을 맞이하는 절차이다(홍윤식, 상계서: 30). 즉 신중작법 절차는 불도량을 잘 수호하고 영가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하고 잡신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모든 신중들을 청해 모시는 의식을 말한다(능화, 2006.85~86). 상주권공재 의식 구성 중 신중작법 절차는 총 4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법무가 시행되는 과장은 옹호계, 다게 과장에서 사용한다.

1) 옹호계(擁護偈)

상주권공재 신중단 절차 4개의 의식 구성 중 옹호계 과장은 제1과장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모든 신중들을 청하여 도량을 청정하게 하여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식이다. 이를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표 3-8> 옹호계 법문과 및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작법무
1	八部金剛護道場 (팔부금강호도장)	팔부금강은 이 도량을 옹호하소서	요잡 바라작법무
2	空神速赴報天王 (공신속부보천왕)	허공신은 속히 나아가 천왕을 보필하고	
3	三界諸天咸來集 (삼계제천함래집)	삼계의 모든 하늘에 천왕이 모였으니	
4	如今佛刹補禎祥 (여금불찰보정상)	불국토의 상서 장엄이 이루어지니다.	

<표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중단 절차 중 제1과장인 옹호계 과장은 신중단 의식의 시작을 알리고 거행하는 절차로 법문은 7언4구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도량을 청정하게하고 팔부 금강의 신들과 불법을 수호하는 여러 신들이 도량을 옹호해 달라는 기원과 불법 듣기를 원하는 신중들을 청하는 의식이다. 신중단 절차 중 옹호계 과장은 법문이 대중창으로 끝난 직후 착복한 스님들이 태징 반주에 맞추어 요잡 바라작법무를 연행한다.

2) 다계(茶偈)

상주권공재 신중단 절차 4개의 의식 구성 중 다계 과장은 제3과장으로 감로다를 삼보님과 제석님께 올리고 부처님의 자비로써 영가를 보살펴 주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이를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표 3-9> 다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작법무
1	淸淨茗茶藥 (청정명다약)	향기롭고 청정한 감로차	요잡 바라작법무
2	能際病昏沈 (능제병혼침)	자비하신 삼보님의 위신력을 입어	
3	唯冀擁護衆 (유기옹호중)	옹호회상 제석님께 올리옵니다	
4	願垂慈悲哀納受 (원수자비애납수)	자비로써 받아 주시옵소서	

<표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중단 절차 중 제3과장인 다게 과장은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께 차를 공양하는 의식으로 기본적으로는 5언4구 형식으로 법문이 구성되어 있으나 마지막 구는 6언으로 구성되어있다. 법문의 내용은 도량을 지키고 불법을 수호하는 여러 신들께 청정한 차를 공양함으로써 원하건대 자비심으로 잘 보살펴달라고 하는 기원의 마음을 담고있는 의식이다. 신중단 절차 중 다게 과장은 법문을 독창으로 부르고 난 직후 착복한 스님들이 태징 반주에 맞추어서 요잡 바라작법무를 연행한다.

이상의 상주권공재 의식 구성 중 제 4절차인 신중단 절차에서 작법무가 사용되는 과장은 신중 절차 총 4개의 의식 구성 순서 중 2개 과장에서 연행된다. 즉 제 1과장인 옹호계에서는 요잡바라작법무, 제 3과장인 다게에서는 요잡 바라작법무 등이 사용되며 이를 요약하면 <표 3-10>과 같다.

<표3-10> 상주권공재의 신중단 절차 중 과장 및 사용 작법무

의식순서	과장	사용 작법무
1	옹호계	요잡 바라작법무
3	다게	요잡 바라작법무

4. 상단권공(上壇勸供)

상단권공 의식은 상주권공재의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상주권공재의 절정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상주권공재 의식 구성 중 제 5절차인 상단권공 절차는 불단에 공양을 올리고, 법식(法食)을 베풀어 받는 의식 절차이다(홍윤식, 상계서: 30). 즉 불·보살을 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재의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절차로 불법을 들어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려는 발원의 의식 절차를 말한다(김응기, 상계서: 35). 상주권공재 의식 구성 중 상단권공 절차는 총 50개의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법무가 시행되는 과장은 정례, 천수바라, 도량계, 삼남태, 향화청, 육건이, 다계, 사다라니, 운심계 등의 9개의 과장에서 사용한다.

1) 정례(頂禮)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정례 과장은 제 3과장으로 불·법·승을 찬탄하고 귀의하겠다는 삼귀의 법문을 하는 과장이다. 이를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표3-11> 정례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작법무
1	歸命十方常住佛 (귀명시방상주불)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정례 나비작법무
2	歸命十方常住法 (귀명시방상주법)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불법에 귀의합니다.	
3	歸命十方常住僧 (귀명시방상주승)	시방에 항상 계시는 스님들께 귀위합니다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단권공 절차 중 제 3과장인 정례 과장은 삼귀의(三歸依)의 주체인 부처님·가르침·스님들께 귀의하겠다는 마음 가짐을 표현하는 법문으로 불·법·승에 대한 법문으로 7언3구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권공 절차 중 정례 과장은 법문 ‘歸命十方常住佛(귀명시방상주불)’을 훗소리로 하고 끝나면 정례 작법무인 나비작법무를 연행하고, 다시 훗소리로 ‘歸命十方常住法(귀명시방상주법)’을 소리한 후 정례 작법무인 나비작법무를 연행한다. 마지막으로 ‘歸命十方常住僧(귀명시방상주승)’을 훗소리로 소리 한 후 정례작법인 나비작법무를 연행하며 정례 과장을 끝낸다.

2) 천수바라(千手鉞鑼)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정례 과장은 제 10과장인 천수바라는 바로 앞의 과장인 복청계(伏請偈)와 연결하여 연행하는 특징이 있다. 복청계는 신묘한 다라니경을 엮드려 청한다는 내용의 법문이며, 이후 진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천수경 대비신주경에 맞추어 천수바라무를 연행한다. 이를 살펴보면 <표 3-12>·<표3-13>과 같다.

<표 3-12> 복청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 작법무
1	伏請大衆 (복청대중)	엮드려 대중께 청합니다	없음
2	同音唱和 (동음창화)	같은 소리로 합창해 주십시오	
3	神妙章句大陀羅尼 (신묘장구대다라니)	신묘한 불법 대다라니를	

<표 3-13> 천수바라 진언³⁴⁾ 과 사용 작법무

진언	내용	사용작법무
<p>나모라 다나 다라 야야 나막 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 사다 바야 마하 사다바야 마 하가로 니가야</p>	<p>가장 거룩하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 우리 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애하시는 님께 귀의 합니다.</p>	<p>천수바라무</p>
<p>옴 살바 바예수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막 가리 다바 이맘 알약 바로기제 새바라 다바 이라간타 나막 하리나야 마발 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수반 아예염 살바 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냐타</p>	<p>옴, 일체의 두려움속에서 구해주시는 거룩 한 임께 귀의하면 성관자재의 위력이 나타 납니다. 머리가 푸른이여, 깨달아 돌아들어 가겠습니다. 일체의 이익을 성취하고 깨끗 이 하여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중생의 세간 도를 맑고 깨끗하게 순화해서 가겠습 니다.</p>	
<p>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헤헤 하례 마하모지 사다바 삼마라 하리나야 구로 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 로도로 미연제 마하 미연제 다라 다라 다린나례 새바라 자라잘 마라 미마라 아마라 물제 예헤헤 로게 새바라라야 미사미 나사야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 야 호호호로 마라호로 하례 바나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 리 소로소로 못자못자 모다야 모다야 매다리야 니라간타 가 마사 날사남 바라 하리나야 마낙 사바하 싯다야 사바하 마하 식다야 사바하 싯다유예 새바라야 사바하 니라간타야 사바하 바라하 목카싱아 목카 야 사바하 바나마 하따야 사</p>	<p>옴 관찰하시는 자여 지혜로서 관찰하시는 성자이시여, 관찰을 초월한 성자이시여, 어 서 어서 태워 주옵소서. 큰 보살님이시여 깊이 생각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억해 주 옵소서. 속히 악업을 그치게 하옵소서. 승리자시여, 대승리자시여, 항상 거두어 기억해 주옵소서. 거두어 주시기를 뜻대로하시는 관자재시 여, 속히 발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의 번뇌로부터 벗어난 자여, 때없이 깨끗 한 자여 속히 오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으로 관찰하시는 자여, 탐욕의 죄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성냄의 독을 소 멸하여 주옵소서. 동요하는 어리석음의 독 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더러운 번 뇌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연꽃처럼 거룩하신 성자이시여, 속히 건져 속히 가게 하옵소서. 속히 흘러내어 속히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어여뻐 여기시는 청경 존이신여, 애욕을</p>	

34) 김능화 편저, 『범패의식』, (사)범패와 작법무보존회, (인천: 도서출판 예림), 2018, 147~148쪽 천수바라춤 진언에 대한 해설 참고.

<p>바하 자가라 욱다야 사바하 상카섭나네 모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쿠타다라야 사바하 바 마사간타 이사 시체다 가릿나 이나야 사바하 마가라 잘마 이바 사나야 사바하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야 바로 기제 새바라야 사바하</p>	<p>파하도록 환희하며 용약 발심케 하옵소서. 사바하 성취를 위하여 길상이 있을지이다. 대 성취를 위하여 길상이 있을지이다. 요 가 지재자의 성취를 위하여 길상이 있을 지이다. 청경 존을 위하여 길상이 있을지 이다. 돼지의 모습을 한 성자를 위하여, 사자의 모습을 한 성자를 위하여 길상이 있을 지 어다. 연꽃을 가지신 성존을 위하여 길상 이 있을지이다. 보배의 수레를 가지고 중 생의 근기를 따라 제도하시는 어른을 위하 여 길상이 있을지이다. 소라 음성처럼 거 룩한 성자이시여, 깨달음을 위하여 길상이 있을지이다. 거룩한 병을 가지고 계시는 성자들을 위하 여 길상이 있을지이다. 오른쪽 어깨 쪽에 있는 검은 색의 몸을 가 지신 거룩한 성자님께 길상이 있을 지이 다. 호랑이 가죽으로 옷을 입으신 성존님께 길 상이 있을 지이다. 귀의하옵나니 거룩한 관자재보살님께 길상 이 있을 지이다</p>	
---	--	--

<표 3-12>·<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복청계와 천수바라 과장은 제 9과장과 제 10과장에 해당하며, 복청계 과장에서는 스님이 독창으로 엮들려 청하옵나니 대중들은 신묘한 대다라니를 합창해 달라고 하는 의미의 법문을 4언2구와 마지막 법문 7언의 ‘神妙章句大陀羅尼(신묘장구대다라니)’를 소리한다. 이후 천수바라 과장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온갖 숨겨진 비밀과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 진언으로 구성된 ‘신묘장구대다라니’ 경에 맞추어 천수 바라작법무를 연행한다. 천수 바라작법무를 연행하는 이유는 다라니경의 신비력으로 불보살이 도량에 강림하시길 청하는 내용이다.

3) 도량계(道場偈)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도량계 과장은 제 12과장으로 재를 지내는 도량을 깨끗하게 하고 삼보님과 천룡님이 강림하시어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지켜주길 기원하는 과장이다. 이를 살펴보면 <표 3-14>와 같다.

<표 3-14> 도량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작법무
1	道場清淨無瑕穢 (도량청정무하예)	도량을 깨끗하게하여 먼지하나 없고	도량계 나비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2	三寶天龍降此地 (삼보천룡강차지)	삼보님, 천룡님이 이곳에 강림하셨고	
3	我今持誦妙眞言 (아금지송묘진언)	제가 이제 신묘한 진언을 외웁니다.	
4	願賜慈悲密加護 (원사자비밀가호)	원하건대 자비로 보호해주옵소서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도량계 과장은 제 12과장으로 재를 지내는 도량을 먼지하나 없이 깨끗이 하고 삼보님과 천룡님이 강림하시어 신묘한 진언을 외우니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지켜주시길 기원하는 법문을 7언4구로 소리한다. 도량계 과장에서 사용하는 작법무는 도량계 법문에 맞추어서 도량계 나비작법무를 연행한다. 도량계 법문이 끝나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와 요잡 바라작법무를 동시에 연행하고, 사방요신 나비작법무와 요잡 바라작법무가 끝난 후 법고작법무를 연행하는 순서로 도량계 과장을 구성한다.

4) 삼남태(開法藏進言)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삼남태 과장은 제 16과장으로 개법장진언(開法場進言)이라고도 한다. 개법장진언은 법의 창고를 연다는 의미로 ‘법(法)의 창고’는 경전을 지칭한다. 즉 경전을 여는 진실한 말을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면 <표 3-14>와 같다.

<표 3-15> 삼남태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작법무
1	옴 아라남 아라다	부처님이 진실한 법. 즉 경전을 여는 진실한 말씀	다게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2	옴 아라남 아라다		
3	옴 아라남 아라다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삼남태 과장은 제 16과장으로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여는 진언, 즉 7언으로 되어있는 경전을 여는 진실한 말씀을 3회 소리한다. 삼남태과장에서 사용하는 작법무는 삼남태 진언 반복 2회째 ‘옴 아라남’ 까지하고 끝부분 진언 ‘아라다’를 소리 할 때 다게 과장에서 사용하는 다게성으로 나비작법무를 연행하고, 나비작법무가 끝나면 태징에 맞추어 요잡바라작법무를 연행한다.

5) 향화청(香花請)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향화청 과장은 제 30과장으로 꽃과 향으로 불보살을 청하는 과장이다 이를 살펴보면 <표3-16>과 같다.

<표 3-16> 향화청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작법무
1	願降道場受此供養 (원강도량수차공양)	원하옵건대 도량에 강림하시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내림게 바라작법무 (막바라작법무)
2	願降道場受此供養 (원강도량수차공양)		
3	願降道場受此供養 (원강도량수차공양)		

<표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향화청 과장은 제 30과장으로 7언으로 된 불보살님께서 도량에 강림하시어 꽃과 향 공양을 받으시라는 발원의 법문을 3회 반복하여 소리한다. 사용하는 작법무는 태징에 맞추어 막바라작법무인 내림게 바라작법무를 연행한다.

6) 욱건만나라(欲建曼拏羅)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욱건만나라 과장은 제 34과장으로 불단(佛壇)의 설치를 발원하는 진언으로 스님이 훗소리로 독창한다. 이를 살펴보면 <표3-17>과 같다.

<표 3-17> 욱건만나라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작법무
1	欲建曼拏羅 (욕건만나라) 淨法界眞言 (정법계진언) '옴 남'	불단을 설치하고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진언 '옴남'을 소리한다	다게 나비작법무

<표 3-1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욱건만나라 과장은 제 34과장으로 5언으로 된 불단의 설치를 발원하는 의미의 법문을 3회 반복하여 스님이 훗소리로 소리한다. 이 후 법계를 청정하게 한다는 정법계진언 '옴 남'을 대중이 합창하면 착복한 작법승이 다게 법문 소리에 맞추어 다게작법인 나비작법무를 연행한다.

7) 다게(茶偈)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다게 과장은 제 35과장으로 시방 성현들님께 정성들인 감로차를 올리는 과장이다. 이를 살펴보면 <표3-18> 과 같다.

<표 3-18> 다게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작법무
1	今將甘露茶 (금장감로다)	이제 감로차를	요잡 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법고작법무
2	奉獻聖賢前 (봉헌성현전)	성현님 전에 받들어 올리니	
3	鑑察虔懇心 (감찰건간심)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	
4	願垂慈悲哀納受 (원수자비에납수)	자비로서 받아주시옵소서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다게 과장은 5언4구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4구에서 ‘願垂慈悲哀納受(원수자비에납수)’ 경우 6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게 과장이 법문 내용은 성현님들께 정성들여 달인 감로차를 공양하며, 이러한 정성에 감응하시고 애처롭게 생각하시어 자비로서 받아달라는 내용의 법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게 과장에서 연행하는 작법무는 다게성이 끝나면 도량의 중앙에서 사방요신 나비작법무와 요잡 바라작법무를 연행하고 이후에 법고작법무를 연결하여 연행한다.

8) 사다라니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사다라니 과장은 제 38과장으로 불보살께 올린 공양이 불법으로 변하여 가섭임지(加變任持)되어 그 가피(加被)를 입게 되기를 기원하는 진언이다(능화, 2006: 89). 이를 살펴보면 <표 3-19>과 같다.

<표 3-19> 사다라니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 작법무
1	변식진언(變食眞言) 나막 살바다타 아다야 바로기제 옴 삼바라 삼바라 훔(3회)	불보살께 올린 공양물이 불법으로 변하게 하는 진언	사다라니 바라작법무
2	시감로수진언(施甘露水眞言) 나무 소로바야 다타아다야 다나타 옴 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사바하(3회)	청정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목적으로 감로수를 베푸는 진언	
3	一字水輪觀眞言(일자수륜관진언) 옴 밤밤밤밤(3회)	대지를 바치고 있는 물만큼 많은 감로수를 보는 진언	
4	乳海眞言(유해진언)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 밤(3회)	음식이 진리의 젖과 같이 되라는 진언으로 공양을 베푸는 진언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사다라니 과장에서는 변식진언(變食眞言), 시감로수진언(施甘露水眞言), 一字水輪觀眞言(일자수륜관진언), 乳海眞言(유해진언) 등 4개의 진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언의 내용은 불보살께 올린 공양물이 불법으로 변식하여 청정한 삶을 누리게 하고, 대지를 지탱하고 있는 물 만큼 많은 감로수와 진리의 젖과 같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게 해 달라는 발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진언이다. 이러한 사다라니 과장에서 연행하는 작법무는 훗소리 범패에 맞추어 사다라니 바라작법무를 연행한다.

9) 운심계(運心偈)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운심계 과장은 제 39과장으로 금일의 재(齋)가 법계에 가득하여 부처님 세계에 고루 영향을 미쳐 부처님의 은혜를 갚게 해 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는 법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장이다. 이를 살펴보면 <표3-20>와 같다.

<표 3-20> 운심계 법문과 사용 작법무

순서	법문/진언	내용	사용 작법무
1	願此香供遍法界 (원차향공편법계)	원하옵니다. 향연이 법계에 가득하여	운심계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2	普供無盡三寶海 (보공무진삼보해)	한없는 부처님세계에 고루 미쳐서	
3	慈悲受供增善根 (자비수공증선근)	대자대비로 선근공덕이 증가하여	
4	舍法住世報佛恩 (영법주세보불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게 하옵소서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주권공재 상단권공의 의식 구성 중 운심계 과장은 7언4구의 법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문의 내용은 금일 향연(齋)이 법계에 가득하여서 부처님 법계와 부처님 전에 골고루 영향을 미쳐 드린 공양 드린 공덕이 선근을 낳아 부처님의 은혜를 갚게 해 달라는 기원을 담고있는 법문이다. 이러한 운심계 과장에서 연행하는 작법무는 운심계 훗소리 범패에 맞추어 운심계 나비작법무를 연행하고, 이후 요잡 바라작법무를 연행한 다음 사방요신 나비작법무를 연행한다.

이상의 상주권공재 의식 구성 중 제 5절차인 상단권공 절차에서 작법무가 사용되는 과장은 상주권공 절차 총 50개의 의식 구성 순서 중 9개 과장에서 작법무가 연행된다. 즉 제 3과장인 정례에서는 정례 나비작법무, 제 10과장인 천수바라에서는 천수바라작법무, 제12·13과장인 도량계(지옥계)에서는 도량계 나비작법무·사방요신 나비작법무·요잡바라작법무·법고작법무, 제 16과장인 삼남태 과장에서는 다게나비작법무·요잡바라작법무, 제30과장인 향화청에서는 내림계 바라작법무, 제34과장인 옥건만나라에서는 다게나비작법무, 제 35과장인 다게에서는 요잡바라작법무·사방요신 나비작법무·법고작법무, 제38과장인 사다라니에서는 사다라니 바라작법무, 제39과장 운심계 과장에서는 운심계 나비작법무·요잡바라작법무·사방요신 나비작법무 등이 연행되며 이를 요약하면 <표 3-21>과 같다.

<표 3-21> 상주권공재의 상단권공 절차 중 과장 및 사용 작법무

의식순서	과장	사용 작법무
3	정례	정례 나비작법무
10	천수바라	천수 바라작법무
12	도량계	도량계 나비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13	지옥계	도량계 사용시 제외함
16	삼남태(開法藏進言)	다계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30	향화청	내림계 바라작법무 (막 바라작법무)
34	육건만나라	다계작법(나비무)
35	다계	요잡 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법고작법무
38	사다라니	사다라니 바라작법(바라무)
39	운심계	운심계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5. 소결론

영혼의 천도 의식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왕생하게 기원드리는 의식인 상주권공재는 천도의 대상인 영가를 도량으로 불러 맞이한 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법식을 베풀어 받도록 하는 의식이다. 상주권공재의 의식 절차는 “시련”, “대령”, “관육”, “신중단”, “상단권공”, “관음시식”, “봉송” 등 총 7개의 의식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의식 절차 중 작법무가 출현하는 절차는 “시련”, “관육”, “신중단”, “상단권공” 등 총 4개의 절차에서 작법무 연행이 실시된다.

제1 절차인 “시련” 절차의 ‘옹호계’ 과장의 주요 법문 내용은 시방(十方) 성현님들과 옹호신을 청하는 법문 내용이며 요잡바라작법무, ‘다게’ 과장의 주요 법문 내용은 봉청해 온 성현들께 감로차를 올리는 내용이며 다게나비작법무, 막바라작법무, 사방요신나비작법무, ‘귀경’ 과장에서는 법문 없이 귀경나비작법무, 사방요신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등을 연행한다.

제 3절차인 “관육” 절차의 ‘관육계’ 과장에서는 법문 없이 관육계 바라작법무, ‘화의재진언’ 과장에서는 영가의 옷을 태우고 의복을 입힌다는 의미의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바자나 베로기제 사바하’ 진언에 맞추어 화의재진언 바라작법무를 연행한다.

제 4절차인 “신중단” 절차의 ‘옹호계’ 과장에서는 모든 신중들을 청하여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법문 내용이며, 요잡 바라작법무, ‘다게’ 과장은 감로다를 삼보님과 제석님께 올리고 부처님의 자비로서 영가를 보살펴 달라는 기원을 담은 법문 내용이며 요잡 바라작법무를 연행한다.

제 5절차인 “상단권공” 절차의 ‘정례’ 과장은 불·법·승에 귀의 하겠다는 법문 내용이며 정례 나비작법무, ‘천수바라’ 과장은 신묘한 다라니경에 엮드려 청한다는 법문 내용인 ‘복청계’ 과장과 연결하여 연행하며 천수경 대비신

주경 진언에 맞추어 천수바라작법무, ‘도량계’ 과장에서는 도량을 청결히 하고 삼보님과 천룡님이 강림해서 영가를 지켜주길 기원하는 법문 내용으로 도량계 나비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삼남태’ 과장에서는 ‘법의 창고’를 연다는 의미의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에 맞추어 다계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향화청’ 과장에서는 꽃과 향으로 보살을 청하는 법문 내용이며 내림계 바라작법무, ‘육건만나라’ 과장에서는 불단을 설치하고 법계를 청정하게 하는 진언 ‘옴 남’에 맞추어 다계 나비작법무, ‘다계’ 과장에서는 성현들에게 정성들인 감로차를 공양하는 법문 내용으로 요잡 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법고작법무, ‘사다라니’ 과장에서는 불보살님께 올린 공양이 불법으로 변식하고 청정한 삶을 누리게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사다라니 바라작법무, ‘운심계’ 과장에서는 재가 법계에 가득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게 해 달라는 내용이며 운심계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를 연행한다.

이상의 상주권공재 의식 절차에서 사용하는 법문 내용과 사용 작법무를 종합·요약하면 <표 3-22>과 같다.

<표 3-22> 상주권공재 법문 내용 및 사용 작법무

절차	과장	과장명	법문내용	사용작법무
시련	1	옹호계	시방(十方) 성현님들과 옹호신을 청함.	요잡 바라작법무
	3	다계	봉청해 온 성현들께 감로차를 올리는 내용	다계 나비작법무, 막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7	괴경	법문 없음	괴경 나비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절차	과장	과장명	법문내용	사용작법무
관육	8	관육계	법문 없음	요잡 바라작법무
	13	화의재진언	영가의 업장 소멸과 해탈의 의복을 입히는 내용	화의재진언 바라작법무
신중단	1	옹호계	신중들을 청하고 영가의 극락왕생 기원	요잡 바라작법무
	3	다게	삼보님과 제석님께 감로다를 올리고 영가를 살피주길 기원	요잡 바라작법무
상단권공	3	정례	삼귀의 내용	정례 나비작법무
	10	천수바라	천수경 대비신주경	천수 바라작법무
	12	도량계	삼보님과 천룡님 봉청하여 영가를 자비심으로 지켜주길 기원	도량계 나비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16	삼남태	부처님 법이 진실한 법	다게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30	향화청	꽃과 향으로 불보살을 청함	내림계 바라작법무 (막 바라작법무)
	34	육건 만나라	불단의 선리를 발원하는 진언	다게 나비작법무
	35	다게	성현들에게 감로차를 공양	요잡 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법고작법무
	38	사다라니	불보살에게 올린 공양물이 불법으로 변하여 청정한 삶, 감로수와 진리의 젖과 같이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진언	사다라니 바라작법무
	39	운심계	재가 법계에 가득하여 부처님의 은혜를 갚게해 달라는 기원	운심계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IV. 상주권공재 작법무의 춤사위 동작 분석

전 장에서는 상주권공재 의식에서 작법무가 사용되는 절차와 과장, 사용 법문 내용, 그리고 과장에서 사용하는 작법무를 검토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상주권공재 의식에서 연행하는 ‘나비작법무’,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의 춤사위 동작에 관하여 작법무의 주요 의미를 파악하고, 사용 춤사위 동작을 ‘상체 중심 춤사위’와 ‘하체 중심 춤사위’로 구분하여 춤사위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하겠다.

1. 나비 작법무

불교의 나비작법무는 나비의 전신인 애벌레가 땅을 기어 다니다가 날아가는 새를 보고 발원하기를 “나도 하늘을 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꽃 향기를 부처님께 공양 드릴 수 있을 텐데”라는 바램을 갖고 있다가 마침내 그 소원이 성취되어 하늘을 날았을 때 그 환희심으로 나비춤을 추었다고 하며, 또한 애벌레가 나비 고치가 되어 그것을 깨고 나와 깨달음을 얻은 기쁨을 묘사한다고 해서 불교를 상징하는 해탈무(解脫舞) 또는 ‘불보(佛寶)의 춤’이라고도 말한다(능화, 2006: 150~151).

1) 상체 중심 춤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작법무 연행 중 상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합장 사위’, ‘차고 나가기 사위’, ‘양손벌리기 사위’, ‘양손 접는 사위’, ‘치기 사위’, ‘양팔 벌리고 앉기 사위’, ‘사선으로 서고 앉기 사위’, ‘정면으로 무릎 꿇고 앉는 사위’, ‘뒤로 젖히기 사위’, ‘앞으로 숙이기 사위’, ‘쳐올리기 사위’, ‘꽃치기 사위’, ‘마주보고 앉기 사위’, ‘등지고 앉기 사위’, ‘엇갈려 앉기 사위’ 등 총 15가지의 상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1) 합장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작법무의 ‘합장 사위’는 불교의식의 시작을 알리고 부처님 전에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함이고, 또한 부처님에 대한 예(禮)를 표하는 동작으로 이를 살펴보면 <사진 4-1>과 같다.

<사진 4-1> 합장 사위



<나비작법무 합장사위>

<사진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에서 합장(合掌)의 의미는 일심(一心)을 상징하는 동작으로 오로지 한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마음가짐을 담고 있는 동작이다.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작법무의 ‘합장 사위’는 나비무와 고깔을 착용한 상태에서 꽃을 들지 않고 생략하거나 혹은 모란꽃, 작약꽃, 연꽃 등을 들고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 중앙에 합장하는 동작의 형태로 불단을 향한다.

구체적으로 ‘합장사위’는 고깔은 쓴 머리와 상체는 곳곳이 직립한 상태에서 양손은 가지런히 손바닥을 붙인 상태를 취한다. 시선은 부처님을 모신 불단을 향하되 약 15도 정도 눈의 시선을 바닥을 향하게 한다. 이 때 양발의 뒤꿈치는 붙인 상태에서 앞발을 15도~20도 정도 자연스럽게 벌린 동작을 취한다.

(2) 차고나가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작법무의 ‘차고 나가기 사위’는 나비의 애벌레가 우화하는 동작을 의미하며 부처님의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의 시작을 상징하는 동작으로 이를 살펴보면 <사진 4-2>와 같다.

<사진 4-2> 차고 나가기 사위



<차고 나가기 사위 1>



<차고 나가기 사위 2>

<사진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비작법무의 ‘차고나가는 사위’는 나비의 애벌레가 우화 혹은 승화(昇華)하는 동작을 말하며, 부처님의 수행과 깨달음으로 정진하는 시작을 알리는 동작을 상징하는 춤사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른발을 앞으로 차듯이 뺀어 이동하면서 양손을 뒤로 강하게 치며 학

체(鶴體) 모양을 취하는 춤사위이다. 이때 시선은 차고 나가는 발끝을 보며 무릎은 약 30~45도 정도 굽히며 발을 차고 상체는 약간 굴신하며 전진하는 형태의 동작을 취한다. 양손은 엉덩이쪽에 가깝게 붙이며,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한다. 꽃을 들고 연행 할 경우 꽃의 얼굴이 하늘을 향하게 한다. 나비작법무의 ‘차고 나가는 사위’는 연행 시 자리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전진할 때 사용하는 춤사위이다.

(3) 양손벌리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작법무의 ‘양손벌리기 사위’는 나비 애벌레가 승화하는 동작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으로 이를 살펴보면 <사진 4-3>과 같다.

<사진 4-3> 양손 벌리기 사위



<양손 벌리기 사위 1>



<양손 벌리기 사위 2>

<사진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손벌리기 사위’는 애벌레가 나비로 승화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춤사위로, 이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작

법무 춤사위이다. 구체적으로 직립한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주시하면서 약 15도 정도 지면을 향해 내려다 본다. 상체는 꼴꼴이 직립한 상태에서 양손을 지면과 수평이 되게 유지하면서 양손을 아주 천천히 펼치는 동작이다. 다음 동작 연결 시에는 양쪽으로 펼친 양손을 안쪽으로 약간 구부리며 상체도 약간 굴신(屈身)한다. 이때 발의 모양은 오른발 앞쪽에 왼발을 조금 들어 이동하여 두면서 ‘丁’자 모양을 만든다.

(4) 양손 접는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작법무의 ‘양손 접는 사위’는 ‘양손 벌리기 사위’와 동일하게 나비 애벌레가 승화하는 동작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4>와 같다.

<사진 4-4> 양손 접는 사위



<양손 접는 사위 1>



<양손 접는 사위 2>



<양손 접는 사위 3>



<양손 접는 사위 4>

<사진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손접는 사위’는 나비 애벌레가 승화하는 동작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양손 접는 사위’는 연행할 때 시선은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양팔을 접기 시작하며 약 30도~45도 정도 아래 방향을 응시한다. 상체는 꼴꼴이 직립한 상태에서 무릎을 약 30도 정도 구부리며 양손을 가슴 정중앙 앞으로 ‘합장 사위’와 유사하게 양손을 모은다. 이 때 합장 사위보다는 약간 내려서 두 손을 모으는 동작의 모양을 취한다. 양손을 펼친 상태에서 양손을 접을 때 양발의 모양은 ‘丁’자로 하며 무릎을 약 15도 정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며 양손을 접는다. 나비작법무의 ‘양손 접는 사위’는 나비가 날개를 펼치고 접는 모양의 동작이며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춤사위이다. 춤사위의 모양새는 ‘합장 사위’와 동일한 형태를 취한다.

(5) 치기 사위(좌, 우)

상주권공제 의식 중 나비작법무의 ‘치기 사위’는 나비 애벌레가 승화하여 좌, 우 날개짓을 통해 환희심을 표출하는 동작으로 수행과 정진 과정을 통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음을 상징화한 춤사위로 이를 살펴보면 <그림 4-5>와 같다.

<사진 4-5> 치기 사위(좌, 우)



<치기 사위(좌) 1>



<치기 사위(좌) 2>



<치기 사위(우) 1>



<치기 사위(우) 2>

<사진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기 사위’는 나비 애벌레가 승화하여 좌, 우 날개짓을 통해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환희심을 상징하는 동작으로 수행과 정진을 통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화한 춤사위이다. 구체적으로 시선은 왼쪽으로 한 손을 칠 경우 왼손의 끝이나 하방 15도 정도를 바라보며, 교대로 오른쪽으로 한 손을 칠 경우 오른손의 끝이나 하방 15도 정도를 응시한다.

상체 동작은 곳곳이 직립한 상태에서 왼쪽로 칠 경우 왼손을 펼쳐 정지시키고, 오른손 검지를 정지하고 있는 왼손 검지에 가까이 부치고, 교대로 오른손을 펼쳐 정지시키고 왼손 검지를 정지하고 있는 오른손 검지에 가까이 같다 붙인다. 이 때 어깨는 약 45도 정도 회전하여 팔을 사용하며 양손의 붙인 모양은 어깨에서 약 30도 정도 위쪽을 향한다. 발의 모양은 시작시 뒤꿈치가 붙은 11자 모양에서 왼쪽으로 칠 경우 좌측으로 15cm~30cm 정도 이동 후 오른발을 왼발에 갖다 붙여 ‘丁’를 만든다. 우측으로 칠 경우 좌측으로 치는 동작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즉 나비 작법무의 ‘치기 사위’는 어깨를 회전하여 좌, 우 손을 번갈아 가며 붙이는 춤사위 동작을 말한다.

(6) 양팔 벌리고 앉기 사위 (운심계, 향화계 작법)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 작법무의 ‘양팔 벌리고 앉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는 동작을 형상화한 춤사위로 이를 살펴보면 <그림 4-6>과 같다.

<사진 4-6> 양팔 벌리고 앉기 사위



<양팔 벌리고 앉기 사위1>



<양팔 벌리고 앉기 사위2>

<사진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팔 벌리고 앉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는 의미를 형상화한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양손 벌리고 앉기 사위’는 양손에 모란꽃을 들고 양손을 펼치고 시작하는 동작이다. 시선은 약 30도~45도 정도 하방을 향해 응시하고 상체는 직립한 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이 되게 양팔을 넓게 벌리며 상체는 세우고 약간씩 가볍게 몸을 요신(搖身)하면서 앉는다. 무릎은 직립 상태에서 약 45도 정도 구부린 상태로 약간 벌리면서 앉으며 다시 직립 상태로 환원한다. 발의 모양은 11자를 중심으로 약 15도 정도 벌리는 동작을 취한다. ‘양팔 벌리고 앉기 사위’ 연행 방법은 서고 앉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동·서·남·북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연행한다.

(7) 사선으로 서고 앉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 작법무의 ‘사선으로 서고 앉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지극을 담아 공양하는 동작을 형상화한 춤사위로 이를 살펴보면 <사진 4-7>과 같다.

<사진 4-7> 사선으로 서고 앉기 사위



<사선으로 서고 앉기 사위1>



<사선으로 서고 앉기 사위2>

<사진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선으로 서고 앉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지극정성을 담아 공양하는 의미를 상징하는 동작이다. ‘사선으로 서고 앉기 사위’ 연행시 시선은 약 45도 사선으로 선 상태에서 정면을 응시하며 눈은 약 30도~45도 정도 하방을 향하게 한다. 상체는 곳곳이 직립한 상태에서 양팔은 지면과 수평이 되게 유지하면서 앉았다 일어선다. 이 때 무릎은 직립한 상태에서 서서히 굴신하며 약 45도 정도 구부린다. 발의 모양은 발을 모은 상태에서 뒤꿈치는 양발을 서로 붙이고 앞발은 11자 중심으로 약 15정도 약간 벌리며 앉을 때는 양발을 어깨 넓이 정도 벌리며 앉는다.

(8) 정면으로 무릎꿇고 앉는 사위

상주권공제 의식 중 나비 작법무의 ‘정면으로 무릎꿇고 앉는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에게 꽃 공양을 드리는 동작을 형상화한 춤사위로 이를 살펴보면 <사진 4-8>과 같다.

<사진 4-8> 정면으로 무릎꿇고 앉는 사위



<정면으로 무릎꿇고 앉는 사위1>



<정면으로 무릎꿇고 앉는 사위2>

<사진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면으로 무릎꿇고 앉는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에게 꽃 공양을 드리는 의미를 상징하는 동작이다. ‘정면으로 꿇고 앉는 사위’ 연행 시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면서 약 45도 정도 하방을 향하게 하며 무릎을 꿇을 경우에는 약 30도 정도 하방을 향하게 시선을 처리한다. 상체는 곳곳이 직립한 상태에서 서서히 요신하며 반무릎동작을 취한 후 무릎을 완전히 바닥에 댄다. 이때도 양손을 펼쳐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며 상체는 무릎 꿇고 앉을 때 상체와 고개는 약15도 정도 숙인다. 무릎은 직립 후 앉을 때 무릎을 약간 벌리면서 반무릎 후 무릎을 어깨 넓이로 벌리면서 지면에 완전히 붙인다. 발모양은 직립 시에는 ‘丁’자를 유지하며 무릎을 꿇은 후에는 발등을 바닥에 대고 발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한다.

(9) 뒤로 젖히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 작법무의 ‘뒤로 젖히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의 가피에 공양을 드리는 동작을 형상화한 춤사위로 이를 살펴보면 <사진 4-9>와 같다.

<사진 4-9> 뒤로젖히기 사위



<뒤로 젖히기 사위>

<사진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뒤로 젖히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의 가피에 공양 드리는 의미를 상징하는 동작이다.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며 고개를 뒤로 약 45도 정도 젖힐 때 시선은 약간 하방으로 향하게 하여 눈동자가 자연스럽게 하여야만 한다. 이 때 머리를 미리 젖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양팔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무릎은 어깨넓이 정도 벌리고 양발은 발등이 지면에 닿은 상태로 발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한다.

(10) 앞으로 숙이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 작법무의 ‘앞으로 숙이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에게 예배와 공양드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춤사위로 이를 살펴보면 <사진 4-10>과 같다.

<사진 4-10> 앞으로 숙이기 사위



<앞으로 숙이기 사위1>



<앞으로 숙이기 사위2>



<앞으로 숙이기 사위3>



<앞으로 숙이기 사위4>

<사진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 숙이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에게 예배와 공양을 드리는 모습을 상징하는 동작이다. 시선은 서서히 하방 방향인 바닥을 응시한다. 상체 동작은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서서히 바닥을 향해 절을 드리듯이 바닥에 가깝게 가져간다. 이때 상체의 가슴은 바닥 완전히닿지 않도록하며 지면에서 약 3cm~5cm 정도 떨어지게 한다. 양손은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면서 지면으로부터 약 20cm 정도 떨어지게 한다. 무릎은 바닥에 꿇은 상태로 어깨 넓이 정도 벌린다. 양발은 발등을 바닥에 붙이고 발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한다. 즉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동작이라고 하겠다.

(11) 꽃치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 작법무의 ‘꽃치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춤사위로 이를 살펴 보면 <사진 4-11>과 같다.

<사진 4-11> 꽃치기 사위



<꽃치기 사위 1>



<꽃치기 사위 2>



<꽃치기 사위 3>



<꽃치기 사위 4>

<사진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치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동작을 상징하는 춤사위이다. ‘꽃치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정면을 약 30도 정도 하방 방향을 응시하며 꽃을 칠 때에는 꽃을 치는 양손을 응시한다. 상체 동작은 직립한 상태에서 양팔을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벌리고, 꽃을 든 양손을 가슴 중앙에 모은 상태에서 왼손을 위쪽으로 오른손을 아래쪽을 향하게 한다. 그리고 교대로 오른손은 위쪽으로 왼손은 아래쪽을 향하게 하는 동작을 3회 실시하며, 무릎은 3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연행한다. 즉 왼손, 오른손, 왼손 순서로 진행한다. 발의 모양은 합장사위와 유사하게 발 뒤꿈치는 붙인 상태에서 앞발을 약 15도~20도 정도 자연스럽게 벌린 동작을 취한다.

(12) 쳐올리기 사위

상주권공제 의식 중 나비 작법무의 ‘쳐올리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피력에 환희심을 형상화한 춤사위로 이를 살펴 보면 <사진 4-12>과 같다.

<사진 4-12> 쳐올리기 사위



<쳐올리기 사위 1>



<쳐올리기 사위 2>



<쳐올리기 사위 3>



<쳐올리기 사위 4>

<사진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쳐올리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 가르침과 가피력에 환희심을 상징하는 춤사위이다. ‘쳐올리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바닥을 응시하면서 서서히 상체를 일으킬 때 정면을 보며 양손의 꽃을 쳐올릴 때에는 시선은 약간 상방향을 향하게 하도록 한다. 상체 동작은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합장하듯이 정중상으로 양손을 11자 모양으로 모은 후 서서히 상체를 일으키며 정면과 수평이 되게 유지하면서 머리 양쪽으로 꽃의 얼굴이 하늘을 향하게 쳐올린다. 무릎은 엎드려 꿇은 상태에서 상체를 일으킬 때 서서히 반무릎 꿇은 상태로 하며 반 무릎상태에 도달했을 때 양손을 상방향으로 쳐올린다. 발의 모양은 발등은 바닥에 닿도록하며 발바닥은 무릎 꿇고 있는 동작하는 사위 때와 동일하게 하늘을 향하게 한다.

(13) 마주보고 앉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 작법무의 ‘마주보고 앉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동작을 형상화한 춤사위로 이를 살펴 보면 <사진 4-13>과 같다.

<사진 4-13> 마주보고 앉기 사위



<마주보고 앉기 사위 1>



<마주보고 앉기 사위2>

<사진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주보고 앉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동작을 상징하는 춤사위로 2인무로 연행할 때 사용하는 춤사위이다. ‘마주보고 앉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반대편에 앉아있는 상대편을 응시한다. 상체는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꼳꼳이 세운 상태에서 합장하듯이 꼳을 들고 있는 양손을 가슴 중앙에 모은다. 무릎은 양반다리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우거나 약간 벌려 세운 상태에서 두손을 모은다. 왼쪽 무릎을 세울 경우 오른쪽 무릎의 바깥쪽은 바닥에 붙인다. 발의 모양은 왼쪽 무릎을 세울 경우 왼발의 발바닥은 지면에 붙이고 오른쪽 발등의 측면은 바닥에 닿도록 하며 오른발 발바닥은 왼발과 수직이 되게 하며 양발의 뒤꿈치가 붙을 정도로 가까이 둔다.

(14) 등지고 앉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 작법무의 ‘등지고 앉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동작을 형상화한 춤사위로 이를 살펴 보면 <사진 4-14>와 같다.

<사진 4-14> 등지고 앉기 사위



<등지고 앉기 사위>



<등지고 앉기 사위>

<사진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지고 앉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동작을 상징하는 춤사위로 2인무로 출 때 연행하는 춤사위이다. ‘등지고 앉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반대편에 앉아있는 상대편과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면을 응시한다. 이 때 시선은 약15도 정도 하방을 향하게 한다. 상체 동작은 ‘마주보고 앉기 사위’와 동일하게 상체는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꼳꼳이 세우며 꼳을 들고 있는 양손을 합장하듯이 가슴 중앙에 모은다. 무릎은 양반다리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우거나 약간 벌린 상태에서 두손을 모은다. 오른쪽 무릎을 세울 경우 왼쪽 무릎의 바깥쪽은 바닥에 붙인다. 발의 모양은 오른쪽 무릎을 세울 경우 오른발의 발바닥은 지면에 붙이고 왼쪽 발등의 측면은 바닥에 닿도록 하며 왼발의 발바닥은 오른발과 수직이 되게 하며 양발의 뒤꿈치가 거의 붙을 정도로 가까이 둔다.

(15) 엇갈려 앉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 작법무의 ‘엇갈려 앉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동작을 형상화한 춤사위로 이를 살펴 보면 <사진 4-15>와 같다.

<사진 4-15> 엇갈려 앉기 사위



<엇갈려 앉기 사위>



<엇갈려 앉기 사위>

<사진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엇갈려 앉기 사위’는 부처님의 무량한 불법의 세계를 찬탄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동작을 상징하는 춤사위로 2인무로 출 때 연행하는 춤사위로 상대편과 엇갈려 앉는 동작이다. ‘엇갈려 앉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정면을 응시한 상태에서 시선은 처리는 약 15도 정도 하방을 향하게 한다. 상체 동작은 ‘마주보고 앉기 사위’와 동일하게 상체는 양반다리를 한 상태에서 꼳꼳이 세우며 꽃을 들고 있는 양손을 합장하듯이 가슴 중앙에 모은다. 무릎은 양반다리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우거나 약간 벌린 상태에서 두손을 합장하는 형태로 모은다. 왼쪽 무릎을 세울 경우 오른쪽 무릎의 바깥쪽은 바닥에 붙인다. 발의 모양은 왼쪽 무릎을 세울 경우 왼발의 발바닥은 지면에 붙이고 오른쪽 발등의 측면은 바닥에 닿도록 하며 오른발의 발바닥은 왼발과 수직이되게 하며 양발의 뒤꿈치가 거의 붙을 정도로 가깝게 둔다.

2) 하체 중심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의 나비작법무 연행 중 하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발 차고 나가기 사위’, ‘90도 회전 사위’, ‘무릎 구부리기 사위’, ‘무릎 피는 사위’, ‘앉는 사위’ 등 총 5가지의 하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1) 발 차고 나가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작법무의 하체중심 춤사위 중 ‘발 차고 나가기 사위’는 나비작법무의 상체 중심 춤사위의 ‘치고 나가는 사위’ 동작과 연결된 춤사위로 이를 살펴보면 <사진 4-16>과 같다.

<사진 4-16> 발차고 나가기 사위



<발차고 나가기 준비 사위>



<발차고 나가기 사위>

<사진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 차고 나가기 사위’는 나비작법무의 상체 중심 춤사위 중 ‘치고나가는 사위’와 연결된 춤사위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차고 나가기 전에 상체를 직립한 상태에서 양발을 11자 형태로 앞발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발차고 나가기 사위를 준비한다. ‘발차고 나가기 사위’ 연행 시 상체를 약간 굴신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 형태를 취한 상태에서 왼쪽 발을 지면에서 약 30cm 정도 든 상태에서 왼쪽발을 차듯이 전진하며, 왼쪽발을 차고 나간 후에는 반대로 오른발을 지면에서 약간 든 상태에서 오

른발을 앞으로 전진시키며 이동한다. ‘발차고 나가기 사위’는 전진 할 경우 왼발, 오른발 순으로 양쪽 발을 교대로 전진하여 이동하는 춤사위이다.

(2) 90도 회전 사위(좌, 우)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작법무의 하체중심 춤사위 중 ‘90도 회전 사위’는 연행 시 방향 회전을 하기 위한 사위로 좌, 우 반회전 할 때 사용하는 춤사위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17>과 같다.

<사진 4-17> 90도 회전 사위(좌, 우)



<90도 회전 사위 1>



<90도 회전 사위 2>

<사진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비 작법무의 ‘90도 회전 사위’는 나비 작법무 연행 시 방향 회전을 하기 위한 춤사위이다. 구체적으로 ‘90도 회전 사위’는 상체 동작은 꽃을 들고 있는 양팔을 지면과 수평이 되게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부터 반회전을 실시한다. 발의 모양은 ‘丁’자 모양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왼쪽 방향으로 향하기 위해 왼발을 90도 정도 좌측으로 이동시킨 후 오른발을 왼발쪽으로 이동시켜 회전 한다. 또한 오른쪽으로 회전 시 ‘丁’모양의 발 형태를 유지하면서 왼발 회전 방법과 동일하게 회전 한다. 이와 같이 ‘90도 회전 사위’는 나비 작법무 연행시 양손을 벌린 상태에서 로 번갈아 연결지어 동작하는 춤사위이다.

(3) 무릎 구부리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작법무의 하체중심 춤사위 중 ‘무릎 구부리기 사위’는 상체 중심 춤사위의 ‘양손 접는 사위’ 연행 시 연결하여 사용하는 춤사위로 이를 살펴보면 <사진 4-18>과 같다.

<사진 4-18> 무릎 구부리기 사위



<무릎 구부리기 사위>

<사진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릎 구부리기 사위’는 나비 작법무 상체 중심 춤사위 중 ‘양손접는 사위’ 연행시 사용하는 하체중심 춤사위이다. 구체적으로 ‘무릎구부리기 사위’는 직립한 상태에서 꽃을 든 양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하체 중심 동작으로 양손을 합장하듯이 접을 때 발은 11자 모양으로 지면에 닿도록 한 상태에서 무릎을 약 30도 정도 굴신하는 형태의 춤사위로 무릎을 피거나 회전 할 때 사전에 준비 동작처럼 사용하는 춤사위이다.

(4) 무릎 피는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작법무의 하체 중심 춤사위 중 ‘무릎 피는 사위’는 상체 중심 춤사위의 ‘양손 벌리기 사위’와 ‘좌, 우치기 사위’ 연행 시 연결하여 사용하는 춤사위로 이를 살펴보면 <사진 4-19>와 같다.

<사진 4-19> 무릎 피는 사위



<무릎 피는 사위(왼손치기) 1>



<무릎 피는 사위(왼손치기) 2>



<무릎 피는 사위(오른손치기) 1>



<무릎 피는 사위(오른손치기) 2>

<사진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릎 피는 사위’는 나비작법무 춤사위 중 ‘양손 벌리기 사위’와 ‘좌·우 치기 사위’ 연행 시 연결하여 사용하는 하체 중심 춤사위이다. 구체적으로 ‘무릎 피는 사위’는 왼손치기 <무릎 피는 사위 1>과 <무릎 피는 사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슴 앞에 합장 형태의

꽃을 들고 모아진 양손을 펼칠 때 무릎을 꼳꼳이 피는 춤사위로 왼손치기 연행시 왼발을 좌측으로 이동 한 후 오른발을 왼발 방향으로 이동하여 발의 모양을 ‘丁’자 모양을 만든 후 이동을 위해 구부린 무릎을 펴준다. 반대로 오른손 치기 사위 시행 시 오른발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후 왼발을 오른발 쪽으로 이동 한 후 발의 모양을 ‘丁’모양으로 만든 후 무릎을 펴준다. ‘오른손치기와 왼손치기 연행시 발의 이동과 무릎피는 사위의 동작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무릎 피는 사위’ 동작은 ‘무릎 구부르기 사위’나 ‘회전하는 사위’와 연결 동작으로 사용하는 춤사위이다.

(5) 앉는 사위(향화계 작법)

상주권공재 의식 중 나비작법무의 ‘앉는 사위’는 향화계 작법에서만 출현하는 춤사위로 부처님 설법 시 꽃비(花雨, 雨花)가 떨어지는 형태를 상징하며 부처님을 찬탄(讚歎)하고 공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춤사위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20>과 같다.

<사진 4-20> 양팔 벌려 앉는 사위



<앉는 사위 1>



<앉는 사위 2>



<앉는 사위 3>



<앉는 사위 4(후면)>



<엷갈려 앉기>



<마주보며 앉기>



<회전하며 앉기 1>



<회전하며 앉기 2>

<사진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비작법무의 ‘앉는 사위’는 향화계 작법에서만 출현하는 춤사위로 부처님 설법 시 꽃비(山花落)가 떨어지는 형태로 부처님을 찬탄(讚歎)하고 부처님을 공양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춤사위이다. 구체적으로 ‘앉는 사위’는 <앉는사위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체는 양손을 지면과 수평이 되게 펼친 상태에서 양발을 11자 모양으로 하고 양발의 넓이는 어깨 넓이로 벌린 후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반무릎 상태와 완전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는 상태의 춤사위를 말한다. 이 때 양발의 발등은 지면에 붙이고 발바닥은 상방향을 향하게 한다. 상체 중심 춤사위로는 ‘무릎꿇고 앉는 사위’, ‘뒤로 젖히기 사위’, ‘앞으로 숙이기 사위’, ‘쳐올리기 사위’ 등 상체 중심 춤사위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엇갈려 앉기’, ‘마주보며 앉기’, ‘회전하며 앉기’의 사진에서 보는 같이 상체 동작은 상체를 꼳꼳이 세운 상태에서 약간 구부린 후 왼쪽 무릎을 약 45도 정도 세운 후 오른쪽 무릎은 양반다리 자세와 유사하게 완전히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의 바깥쪽은 지면에 붙이는 동작을 취한다. 회전하며 앉기 춤사위의 앉는 방법도 마주보며 앉는 사위나 엇갈려 앉는 사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춤사위는 꽃비가 내리는 형상을 상징하는 춤사위로 상체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꽃을 든 양손을 앞으로 모은 다음, 최초에는 한번 위로 뿌리고, 엇갈려 앉는 사위를 통해 약 270도 정도 회전하며 앉아서 자리를 이동한 후 마무리 동작으로 3회에 걸쳐서 꽃을 든 양손을 위로 뿌리는 동작의 상체 중심 춤사위와 연결된 하체 중심 춤사위 이다. 향화계 작법에서 연행되는 상체 중심 사위는 ‘마주보고 앉는 사위’, ‘등지고 앉는 사위’, ‘엇갈려 앉는 사위’ 등과 연관하여 사용한다.

3) 소결론

상주권공재에서 사용하는 나비작법무의 상징적 의미는 나비 전신인 고치가 승화하고 나와 깨달음을 얻은 기쁨을 묘사해서 불교를 상징하는 해탈무(解脫舞) 혹은 불보무(佛寶舞)라고도 말한다. 나비작법무의 상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합장 사위’, ‘차고나가기 사위’, ‘양손별기기 사위’, ‘양손접는 사위’, ‘치기 사위’, ‘양팔벌리고 앉기 사위’, ‘사선으로 서고 앉기 사위’, ‘정면으로 무릎꿇고 앉는 사위’, ‘뒤로 젖히기 사위’, ‘앞으로 숙이기 사위’, ‘쳐올리기 사위’, ‘꽃치기 사위’, ‘마주보고 앉기 사위’, ‘등지고 앉기 사위’, ‘엇갈려 앉기 사위’ 등 총 15가지의 상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하체 중심 춤사위 종류는 ‘발차고나가기 사위’, ‘반회전 사위’, ‘무릎구부리기 사위’, ‘무릎 피는 사위’, ‘앉는 사위’ 등 총 5가지의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상주권공재 나비작법무에서 사용하는 상체 중심 춤사위의 특징은 상체 동작의 경우양팔을 펴거나 접을 때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동작, 고개 및 어깨의 움직임이 완만한 상체 동작, 앉았다 일어설 때의 요신(搖身), 그리고 발의 모양을 항상 ‘丁’자를 유지하거나 발 뒤꿈치를 거의 붙인 상태에서 앞꿈치를 약간 벌려 상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작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릎을 구부릴 때 15도, 30도, 45도 정도 구부렸다 피는 동작을 많이 사용하며, 시선 처리는 15도 정도 하방향을 향하는 경우가 많아 종교 무용으로서 절제된 춤사위와 좁은 공간에서 느린 동작과 정중하게 춤사위를 구사하는 특징이 있다.

하체 중심 춤사위 발의 모양은 ‘丁’자를 기본으로 하며 ‘11’자 모양이나 발 뒤꿈치를 거의 붙인 상태에서 앞꿈치를 약 15도 정도 벌리는 발 동작을 많이 사용한다. 회전하거나 발을 지면에서 뗄 때도 30cm에서 한 보폭 이상을 넘지 않게하여 정중하고 무거운 느낌의 춤사위를 구사하고 있으며, 굴신할 경우에도 무릎의 굽히는 각도가 30도~45도 이상을 넘지 않게 하며 앉아서 춤사위를 구사 할 경우에도 앉은 발과 무릎의 폭을 최소한으로 좁혀 춤사위를 구사하고 있어 극히 조심스럽고 절제된 하체 중심 춤사위를 구사하는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나비작법무에서 사용하는 상체·하체 춤사위를 종합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나비작법무 사용 상체·하체 춤사위

번호	춤사위	상체		하체	
		동작	시선	무릎	발모양
1	합장	합장	15도 하방	직립	뒤꿈치 붙이고 약 15 개방
2	차고나가기	30도 굴신, 양손은 뒤쪽	15도 하방	30~45도 굴신	뒤꿈치 붙이고 약 15 개방, 왼발을 지면에서 30cm 든다
3	양손벌리기	양손 벌려 수평	15도 하방	직립	‘丁’자
4	양손접기	양손 가슴 중앙아래	30~45도 하방	15~30도 굴신	‘丁’자
5	치기(좌, 우)	좌, 우 검지를 교대로 붙인다. 어깨는 30도 정도 상향	15도 하방	직립	뒤꿈치 붙이고 약 15 개방, ‘丁’자
6	양팔 벌리고 앞기	양팔벌려 수평	30~45도 하방	직립, 45도 굴신	‘11’자, 약 15도 개방
7	사선으로 서고 앞기	45도 사선, 수평	정면	직립, 45도 굴신	‘11’자, 약 15도 개방
8	정면으로 무릎꿇고 앞기	양팔 벌려 수평	45도, 30도 하방	반무릎, 완전무릎	‘丁’자, 어깨넓이 ‘11’자
9	뒤로 젖히기	양팔 벌려 수평, 45도 정도 젖힌다.	정면, 30도 하방	완전무릎	어깨넓이 ‘11’자
10	앞으로 숙이기	양팔벌려 수평, 가슴은 5cm 정도 지면에서 떨어짐	지면	완전무릎	어깨넓이 ‘11’자
11	꽃 치기	양손 수평, 가슴 중앙, 왼손 위, 오른손 아래 3회 교대	양손	직립, 30도 굴신	‘11’자, 약 15도 개방
12	쳐 올리기	양손 정중앙	정면, 상향	완전무릎, 반무릎	어깨넓이 ‘11’자
13	마주보고 앞기	양손 가슴 중앙	정면	왼 무릎세우기	왼 발바닥은 지면, 오른발 발등 측면은 지면
14	등지고 앞기	양손 가슴 중앙	15도 하향	오른 무릎세우기	오른 발바닥은 지면, 왼발 발등 측면은 지면
15	엇갈려 앞기	양손 가슴 중앙	15도 하향	왼 무릎세우기	왼 발바닥은 지면, 오른발 발등 측면은 지면

2. 바라 작법무

불교의 바라작법무는 ‘법보의 춤’으로 범패인 다라니와 진언(mantra: 口密)을 구음 반주로 추는 것이 일반적인 바라작법무이다. 바라작법무를 추는 사람은 속된 마음과 흥에 겨워 춤을 추어서는 안되고,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과 바른 신심으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의 춤사위로 추어야 한다. 또한 바라를 잡은 손이 몸 쪽으로 모아질 때는 정법(正法)을 받아들이고 손을 밖으로 펼칠 때는 부처님의 옳은 법을 널리 펼치겠다는 성심의 발원을 담아 추는 춤으로 삼보의 강림이나 정각을 성취한 법열을 발현하는 춤이다. (김능화, 2006: 108~109).

1) 상체 중심 춤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 연행 중 상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바라 합장사위’, ‘바라 올리는 사위’, ‘바라 내리는 사위’, ‘한 손씩 올리는 사위’, ‘양손 올리는 사위’, ‘바라 올리는 사위’, ‘양손 치기 사위’, ‘머리 위에서 올리는 사위’, ‘머리 위에서 내려 올리는 사위’, ‘바닥에서 올리기 사위’, ‘두 손 모아 치고 뒤로 넘기기 사위’등 총 11가지의 상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1) 바라 합장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의 ‘바라 합장 사위’는 부처님의 귀하고 중요한 법을 수호하고 전파한다는 마음을 담고있는 춤사위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21>과 같다.

<사진 4-21> 바라 합장사위



<앉은 바라 합장사위>



<기립 바라 합장사위>

<사진 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라 합장 사위’는 바라 작법무 시작 시 사용하는 춤사위로 부처님의 귀한 법을 성심을 다해 수호하고 전파한다는 마음 가짐을 상징화한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바라 합장 사위’는 바라작법무 시작시 바라를 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합장한 후 바라를 들고 기립한다. 시선은 바닥에 놓인 바라를 향하고 기립하여 바라를 합장 할 때는 양손에 들고 있는 바라의 끝부분을 바라본다. 상체 동작은 앉아 있을 경우 상체를 꼳꼳이 세운 상태에서 가슴 정중앙에 양손을 합장하며 기립하여 합장 할 경우 상체를 직립한 상태로 양손에 바라를 약간 겹치게 하며 자연스럽게 든다. 발의 모양은 양발을 자연스럽게 11자 형태로 하며 양발의 뒤꿈치는 닿을 정도로 가깝게 하고 앞발을 약 15도~20도 정도 벌린다. 바라를 합장한 상태는 바라의 안쪽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바라를 왼손 바라의 위에 얹어 놓은 상태의 동작을 취한다.

(2) 바라 올리는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의 ‘바라 올리는 사위’는 부처님의 법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 얻는 것을 상징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22>와 같다.

<사진 4-22> 바라 올리는 사위



<바라 올리는 사위>

<사진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라 올리는 사위’는 부처님의 법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 얻는 것을 상징하는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바라 올리는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눈을 약 15도 정도 하방을 향하며 지면을 바라본다. 상체 동작은 직립한 상태로 바라를 들고 있는 양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리면서 오른손 바라는 아래에 두어 바라의 안쪽이 위를 향하게 하고 왼손 바라는 바깥쪽이 위쪽을 향하게 한다. 이 때 양손에 들고 있는 바라의 끝이 약간 겹쳐지게 만든다. 즉 오른손 바라는 바라의 안쪽이 위를 향하게 하고 왼손 바라는 오른손 바라를 비스듬히 엇갈려 덮고 있는 형태의 춤사

위 동작이다. 바라를 머리 위로 올릴 때 가슴 앞에서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올리는 것이 중요한 춤사위이다. 발의 모양은 양발의 뒤킴치는 거의 붙인 상태에서 앞발을 11자를 중심으로 약간 벌리고 무릎은 약 30도 정도 구부렸다 피며 바라를 머리 위로 들어오리는 춤사위 동작이다.

(3) 바라 내리는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의 ‘바라 내리는 사위’는 부처님의 법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 얻는 것과 동시에 밑으로는 많은 중생들을 계도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상징하는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23>과 같다.

<사진 4-23> 바라 내리는 사위



<바라 내리는 사위(오른손,원손)>

<사진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라 내리는 사위’는 귀중한 부처님의 법을 전파하여 많은 중생을 계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춤사위이다. 구체적으로 ‘바라 내리는 사위’ 연행시 시선은 하방향을 향하여 약 15도~30도 정도 지면을 바라보거나 바라의 끝부분으로 시선을 처리한다. 상체 동작

은 직립한 상태에서 무릎을 약 30도 정도 굽히면서 회전한다. 또한 바라를 내리는 동작은 가슴 중앙에서 천천히 오른손은 상방향을 향하게 하고, 왼손의 바라는 머리 뒤쪽에 두어 바라의 안쪽이 후방을 향하게 한다. 발의 모양은 ‘丁’자를 기본으로 왼쪽 발을 좌측으로 향한 후 오른발을 왼쪽 발에 가져다 가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 때 바라는 회전하면서 머리 위로 왼손, 가슴쪽에는 오른손이 위치하게 하며, 교대로 머리 위에는 오른손, 가슴쪽에는 왼손이 위치하게 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3) 한 손씩 올리는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의 ‘한 손씩 올리는 사위’는 부처님 귀중하고 소중한 법을 널리 펼쳐 전파하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으로 이를 살펴보면 <사진 4-24>와 같다.

<사진 4-24> 한 손씩 올리는 사위



<오른손 올리는 사위>



<왼손 올리는 사위>

<사진 4-24>에서 보는 바와같이 ‘한 손씩 올리는 사위’는 부처님 귀중하고 소중한 법을 널리 펼쳐 알리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한 손씩 올리는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바라 내리는 사위’와 동일하게 하방향을 향하여 약 15도~30도 정도 지면을 바라보거나 바라의 끝부분으로 시선을 처리한다. 또한 불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불단의 부처님을 응시한다.

상체 동작은 직립한 상태에서 무릎을 약 30도 정도 굽히면서 왼쪽부터 회전한다. 바라의 위치는 오른손을 올릴 경우 왼손을 가슴 중앙에 바라의 안쪽이 상방향을 향하게 하고 오른손은 머리 뒤로 올리면서 바라의 안쪽이 후방을 향하게 한다. 교대로 왼손을 머리 위로 올릴 경우 왼손의 바라 안쪽이 머리 후방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은 가슴 중앙에서 바라의 안쪽이 하늘을 향하게 하면서 왼손과 오른손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발의 모양은 ‘丁’자를 기본으로 하여 왼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4) 양손 올리는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의 ‘양손 올리는 사위’는 부처님의 법을 깨닫고 널리 전파하고, 중생을 계도하는 것에 전력하여 마침내 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25>와 같다.

<사진 4-25> 양손 올리는 사위



<양손 올리기 사위>

<사진 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라 작법무의 ‘양손 올리는 사위’는 바라작법무의 마무리 동작으로 부처님 법의 전파와 중생 계도를 마무리하고 마침내 지혜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양손 올리는 사위’ 연행 시 시선은 약 45도 방향으로 지면을 바라본다. 상체 동작은 곳곳이 직립한 상태에서 양손에 든 바라를 머리 뒤로 올려서 등쪽에 붙인다. 이 때 양손에 들고 있는 바라의 안쪽이 후방을 향하게 하며 부처님 법의 구현을 마무리하였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발의 모양은 왼발을 앞쪽으로 한 상태에서 오른발을 왼발에 붙이는 ‘丁’자 모양의 동작을 취한다.

(5) 바라 올리는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의 ‘바라 올리는 사위’는 명(鳴)바라 연행 시 사용하는 바라작법무로 부처님의 법을 사자후(獅子吼)와 같이 올린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26>과 같다.

<사진 4-26> 바라 올리는 사위



<바라 올리는 사위 1>



<바라 올리는 사위 2>

<사진 4-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라 올리는 사위’는 부처님 법을 사자 후와 같이 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바라 올리는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눈을 지면을 향하게 하여 바라의 끝에 둔다. 상체 동작은 방향 이동에 따라 약 15도 정도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45도 방향으로 좌측과 우측 방향으로 이동한 후 가슴 정중앙에 양손의 바라의 안쪽이 하늘을 향하게 모은 상태에서 왼손의 바라는 아래쪽에 오른손 바라는 위쪽에 위치하고 바라를 약하게 ‘정정정’ 올리는 춤사위 동작이다.

발의 모양은 ‘丁’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45도 방향으로 이동한다. 즉 왼발을 왼쪽 45도 방향으로 이동 시 오른발의 뒤꿈치를 약간 들어 왼발쪽에 붙이고,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45도 이동 시 왼발의 뒤꿈치를 약간 들어 오른발 쪽에 가져다 붙인다. ‘바라 올리는 사위’는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교대로 발뒤꿈치를 약간 들고 옮겨가면서 바라를 작게 올리는 춤사위 동작이다.

(6) 양손치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의 ‘양손 치기 사위’는 명(鳴)바라 연행 시 사용하는 바라작법무로 부처님의 법을 깨우치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4-27>과 같다.

<사진 4-27> 양손치기 사위



<가슴 앞 모으기>



<양팔 벌리기>



<가슴 앞 모으기>

<사진 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바라의 ‘양손 치기 사위’는 양손에 들고 있는 바라를 양쪽으로 수평이 되게 벌린 상태에서 가슴 앞쪽으로 모으는 동작 시 바라를 크게 부딪쳐 소리내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것은 부처님의 법을 사자의 울음소리에 비교하여 크게 소리내어 부처님의 법을 깨우

치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양손 치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며 상체 동작은 직립 상태로 양손의 바라를 가슴 정중앙에 팔을 약간 구부리고 바라를 세워서 왼손. 오른손에 든 바라의 바깥 부분이 좌측과 우측을 향하게 하여 모은 상태에서 양팔을 벌려 바라의 안쪽이 정면을 향하게 한 후 다시 가슴 정중앙에 바라를 세운 상태로 양손을 모은다. 이 때 바라를 크게 쳐 부처님의 법을 깨우치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발의 모양은 자연스럽게 양발의 앞발은 11자 모양을 유지한다.

(7) 머리 위에서 올리는 사위(좌, 우)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의 ‘머리 위에서 올리는 사위’는 명바라에서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으로 영취산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28>과 같다.

<사진 4-28> 머리 위에서 올리는 사위(좌, 우)



<머리위에 바라올리는 사위(정면)>



<머리위에 바라올리는 사위(측면)>

<사진 4-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라 작법무의 ‘머리 위에서 올리는 사위’는 명바라에서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으로 머리 위에서 바라를 겹치게 하여 산(山)모양을 만드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머리 위에서 올리는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머리 위의 팔목이나 바라를 응시한다.

상체 동작은 양손의 바라를 머리 위로 위치하며, 바라의 겹치는 모양이 산의 형태를 닮게 만들고 이는 영축산을 의미한다. 또한 머리 위에서 바라를 겹친 후 상체를 좌측과 우측으로 약 30도~45도 정도 기울이며 약하게 바라를 부딪혀 소리내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 춤사위 동작은 좌, 우를 번갈아 동일하게 연행한다. 무릎은 오른쪽 사선으로 약 30cm 정도 이동 시킨 후 무릎을 45도 정도 구부리고 뒷무릎은 약 30도 정도 구부리며 뒷 발을 당겨 이동 한 앞발에 붙이며 무릎을 편다. 발의 모양은 ‘丁’로 시작하여 이동하는 앞발은 발바닥을 지면에 대고 뒷 발은 발바닥을 지면에 붙인 상태에서 뒤꿈치를 약 5cm 정도 지면에서 든다. 앞발의 이동이 끝나면 뒷발을 앞발에 당겨 ‘丁’자 모양을 만든다.

(8) 머리위에서 내려 올리는 사위(좌, 우)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의 ‘머리 위에서 내려 올리는 사위’는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에 비교해 바라를 약하게 올리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29>와 같다.

<사진 4-29> 머리위에서 내려 올리는 사위(좌, 우)



<바라 올리기 전 모습>



<바라 올린 후 모습>



<바라 내린 후 올리기>

<사진 4-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 위에서 내려 올리는 사위’는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에 비교해 바라를 약하게 올리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머리 위에서 내려 올리는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바라를 머리 올리기 전에는 정면을 응시하고, 바라를 머리 위로 올릴 때는 바라를 바라보고 머리 위에서 바라를 내릴 때는 지면을 향해 하방향을 바라본다.

상체 동작은 직립한 상태에서 양손에 겹쳐 있는 바라를 양쪽으로 벌리면서 바라를 들고 있는 손을 360도 회전하며 머리 위로 올린다. 또한 머리 위에서 내릴 때는 바라를 머리 위에서 동그랗게 겹쳐 오른손 바라 안쪽이 정면에서 약간 하늘을 향하게 한다. 머리 위에서 바라를 가슴쪽으로 내릴 때는 바라를 180도 앞으로 회전시켜서 양손의 바라 안쪽이 위를 향하게 하고 바라를 약간 겹쳐 작게 바라를 올린다. 이 춤사위 동작은 좌, 우로 교대로 연행한다. 무릎은 직립한 상태에서 바라를 머리 위로 올릴 때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머리 위에 바라를 올린 후에는 무릎을 피고 발 뒤꿈치를 5cm 정도 든다. 발의 모양은 바라를 머리 위에 올릴 때와 내릴 때 동일하게 ‘丁’자를 유지하며 바라를 머리 위에 올린 후에는 발 뒤꿈치를 약간 든다.

(9) 바닥에서 울리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의 ‘바닥에서 울리기 사위’는 부처님의 법을 통해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바라를 바닥에 대고 큰소리에서 작은 소리 순서로 3회 올려주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30>과 같다.

<사진 4-30> 바닥에서 울리기 사위



<바닥에서 울리기>

<사진 4-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닥에서 울리기 사위’는 부처님의 법을 통해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바라를 바닥에 대고 큰소리에서 작은 소리 순서로 올려주는 춤사위 동작이다. ‘바닥에서 울리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바닥에 있는 바라의 끝이나 지면을 향하게 한다.

상체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약 15도~30도 정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양손의 바라는 바라의 내부가 상방향을 향하게 하고 겹쳐진 바라를 큰 소리에서 작은 소리 순서로 3회 올린다. 무릎은 완전히 지면에 댄 상태에서 꿇어 앉은 자세이며, 발의 모양은 양발의 발등은 지면에 대고 발바닥은 상방향을 향하게 한다.

(10) 두손 모아치고 뒤로 넘기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의 ‘두손 모아치고 뒤로 넘기기 사위’는 부처님 귀중하고 소중한 법을 널리 펼쳐 중생들을 깨우치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31>과 같다.

<사진 4-31> 두 손 모아치고 뒤로 넘기기 사위



<두손 모아치기>



<뒤로 넘기기(우)>



<뒤로 넘기기(좌)>

<사진 4-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손 모아치고 뒤로 넘기기 사위’는 부처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법을 널리 펼쳐 중생들을 깨우치겠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두손 모아치고 뒤로 넘기기 사위’ 연행시 시선은 ‘두손 모아치기’, ‘뒤로 넘기기’ 동작 시 정면에서 약간 지면을 향한다.

상체 동작은 반 무릎 상태에서 상체를 직립한다. ‘두손 모아치기’ 때는 양손의 바라를 포개어 왼손 바라는 아래쪽에, 오른손은 위쪽에 위치하며 두 손의 바라를 포개며 작게 바라의 소리를 낸다. ‘뒤로 넘기기’ 때는 반무릎 상태에서 상체를 직립하고 오른손은 머리 뒤로 옮겨 바라의 내부가 후방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가슴 중앙에서 바라의 내부가 상방향을 향하게 한다. 교대로 왼손이 머리 뒤로 넘길 때는 왼손의 바라 내부가 후방을 향하게 하고 오른손의 바라는 가슴 중앙에 위치하며 바라의 내부가 상방향을 향하게 한다. 무릎은 반 무릎 꿇은 상태로 어깨넓이 정도 벌리고 바라를 머리 뒤로 넘길 때 약간의 반동을 주기도 한다. 양 발의 발등은 지면에 대고 발바닥은 상방향을 향하게 한다.

2) 하체 중심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 연행 중 하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무릎 구부리고 피며 이동하는 사위’, ‘회전 사위’ 등 총 2가지의 하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1) 무릎구부리고 피며 이동하는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의 ‘무릎 구부리고 피며 이동하는 사위’는 바라작법무 춤사위는 바라를 든 상태에서 전진 혹은 위치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하체 중심 춤사위 동작으로 이를 살펴보면 <사진 4-32>와 같다.

<사진 4-32> 무릎구부리고 피며 이동하는 사위



<무릎 구부리기 전 모습>



<무릎 구부린 모습>



<무릎 핀 모습>



<이동 회전하는 모습>



<무릎피며 이동하는 모습>



<이동하는 모습(좌)>



<이동하며 오른발 부치는 모습>



<이동이 완료된 모습>

<사진 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릎 구부리고 피며 이동하는 사위’는 바라작법무 연행시 바라를 든 상태에서 전진 혹은 위치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무릎 구부리고 피며 이동하는 사위’ 연행 시 무릎구부리기 전 준비동작은 양발을 11자로 만들고 어깨넓이 정도 벌려 주며 그 상태에서 무릎을 약 30도~45도 정도 구부린 후 다시 피면서 ‘丁’자 형태의 발 모양을 만든다.

‘무릎 피며 이동하는 사위’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 할 경우 왼발을 약 30도~45도 정도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왼발을 전진시키고 오른쪽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丁’자 모양을 만든 후 다시 무릎을 피고, 오른발을 왼발 복숭아뼈에 가까이 부친다. ‘무릎 구부리고 피며 이동하는 사위’는 왼발, 오른발을 교대로 하여 사용하며 바라작법무 연행 시 이동 또는 전진 할 때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2) 회전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바라 작법무의 ‘회전 사위’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몸을 회전하할 때 사용하는 하체 중심 춤사위 동작을 말하며 이를 살펴보면 <사진 4-33>과 같다.

<사진 4-33> 회전 사위



<회전하는 사위(좌)1>



<회전하는 사위(좌)2>



<회전한 모습(좌)3>



<회전하는 사위(좌)4>

<사진 4-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전 사위’는 바라무 연행자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회전 할 때 사용하는 하체 중심 춤사위 동작이다. 바라무의 ‘회전 사위’의 회전 순서는 왼쪽부터 시작하여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춤사위 동작을 말한다. 사방으로 한번 회전하는 춤사위 동작을 일공(一空), 두 번 회전하는 것은 이공(二空), 세 번 회전하는 것은 삼공(三空)이라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회전하는 사위’ 연행 시 상체를 직립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회전하기 위해 ‘丁’자 모양의 발 모양에서 왼발을 들어 약 90도 방향으로 옮긴 후 오른발을 왼발의 뒤꿈치 쪽으로 이동시켜 ‘丁’자 모양이나 뒤꿈치가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앞발이 약 15도 정도 벌려진 11자 모양의 발모양을 만든다. 계속적인 회전을 할 경우 동일한 회전 방법을 통해서 회전한다. 바라작법무이 회전하는 방법은 직립한 상태에서 왼발을 먼저 이동해서 왼쪽 방향으로 회전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오른발을 먼저 이동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3) 소결론

상주권공재에서 사용하는 바라작법무의 상징적 의미는 법보무(法寶舞)이며 부처님의 공덕과 바른 신심으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의 춤사위로 정법과 삼보의 강림, 그리고 정각을 성취한 법열을 발현하는 작법무이다.

바라작법무의 상체중심 춤사위 종류는 ‘바라 합장사위’, ‘바라 올리는 사위’, ‘바라 내리는 사위’, ‘한 손씩 올리는 사위’, ‘양손 올리는 사위’, ‘바라 올리는 사위’, ‘양손 치기 사위’, ‘머리 위에서 올리는 사위’, ‘머리 위에서 내려 올리는 사위’, ‘바닥에서 올리기 사위’, ‘두 손 모아 치고 뒤로 넘기기 사위’등 총 11가지의 상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하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무릎 구부리고 피며 이동하는 사위’, ‘회전 사위’ 등 총 2가지의 하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상주권공재 바라작법무에서 사용하는 상체 중심 춤사위의 특징은 상체 동작의 경우바라를 들고 있는 양손을 거의 움직임 없이 있거나 작은 소리로 바라를 울리거나, 크게 소리 내면서 전진 혹은 회전하는 상체 중심 동작이 춤사위를 구사한다. 바라작법무의 상체 중심 춤사위 동작은 대부분 꼴뚝이 서 있는 직립상태에서 시작하며 회전하거나 이동할 때도 상체를 직립하거나 약 15도~45도 정도 기울이는 정도로 상체의 동작을 절제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 바라작법무는 정적인 춤사위 동작과 동적인 춤사위 동작이 균형감을 이루고 있는 작법무이다. 즉 활기찬 춤사위와 경건한 춤사위가 잘 결합되어 있어 단순한 동작을 통한 자유로운 절제미와 경외심을 불러 일으키는 춤사위로 구성된 작법무이다.

하체 중심 춤사위 발의 모양은 ‘丁’자를 기본으로 하며 발 뒤꿈치를 거의 붙인 상태에서 앞꿈치를 약 15도~30도 정도 벌리는 ‘11’자 모양의 발 동작을 많이 사용한다. 발을 이동시킬 때도 45도 방향으로 약 45cm 정도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회전 시에도 한 발 30cm 이내로 이동시켜 회전한다. 발 뒤꿈치는 약10cm~15cm 이내로 약간 들어주는 특징이 있다. 시선은 전방을 주시하거나 눈을 내려보는 상태에서 지면을 향해 약 15도~30도 정도로 시선을 처리하거나 바라 동작시 바라의 테두리인 끝 부분을 응시한다. 무릎의 각도는 반무릎을 할 때를 제외하곤 바닥에 꿇거나 바라를 치거나 올리고 내릴 때 약 30도 이상을 넘지 않게 굽혔다 펴기를 반복한다.

바라작법무의 하체중심 춤사위는 조심스럽고 절제된 춤사위를 구사하고 있으나 상체 중심 춤사위는 절제되고 정중한 춤사위 속에서도 바라를 들고 있는 팔의 올리고 내리는 동작, 펼치고 접는 상체의 움직임과 바라 소리의 크기로 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작법무이다.

이상과 같이 바라작법무에서 사용하는 상체·하체 춤사위를 종합 요약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바라작법무 사용 상체·하체 춤사위

번호	춤사위	상체		하체	
		동작	시선	무릎	발모양
1	합장	합장	지면, 바라 끝	완전무릎, 직립	뒤꿈치 붙이고 약 15 개방
2	올리기	양손 머리 위, 왼손아래 오른손 위, 바라 끝 겹침	15도 하방	직립, 30도 굴신	뒤꿈치 붙이고 약 15 개방
3	내리기	왼손, 오른손 교대로 머리 위, 가슴	15~30도 하방, 바라 끝	직립, 30도 굴신	‘丁’자
4	한 손씩 올리기	왼손, 오른손 교대로 머리 위, 가슴, 좌측 회전	15~30도 하방, 바라 끝	직립, 30도 굴신	‘丁’자, 좌측회전
5	양손올리기	머리 뒤에 양손 바라, 바라 안쪽이 후방	45도 하방	직립	‘丁’자
6	바라올리기	상체를 이동하는 방향으로 15도 기울 이고, 바라 내부를 상향, 약하게 바라 올림	15도 하방	직립, 앞 무릎 45도 굴신	‘丁’자, 좌·우로 45도 방향 이동, 발 뒤꿈치 10cm 든다
7	양손치기	가슴 중앙, 양팔 수평, 가슴 중앙	정면	직립	‘11’자
8	머리 위에서 올리기 (좌, 우)	양손의 바라를 머리 위에서 겹쳐 산 모양, 상체를 좌·우측으로 30~ 45도 기울임	머리 위 팔목, 바라	앞 무릎 45도, 뒷 무릎 30도 굴신, 직립	‘丁’자, 이동하는 발은 지면에 붙이고 뒷 발의 뒤꿈치 5cm 든다
9	머리 위에서 내려 올리기	양손의 바라를 별리면서 360도 회전 시켜 머리 위, 내릴 때는 앞으로 180도 회전, 바라의 안쪽이 상향	정면, 머리 위 바라, 하방	직립, 머리 위 30도 굴신, 직립	‘丁’자, 바라가 머리 위 일 때 발 뒤꿈치 5cm 든다
10	바닥에서 올리기	상체 15~30도 기울이고 양손의 바라는 안쪽이 방향, 3회 올린다	지면, 바라 끝	완전무릎	어깨넓이 ‘11’자, 발등은 지면, 발바닥은 상향
11	두손 모아 치고 뒤로 넘기기	양손의 바라를 포개며, 뒤로 넘길 때는 오른손 바라는 머리 뒤, 왼손 바라는 가슴 중앙(좌, 우 교대)	지면	완전무릎, 반 무릎	어깨넓이 ‘11’자, 발등은 지면, 발바닥은 상향

3. 법고 작법무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작법무는 ‘승보(僧寶)의 춤’으로 삼륜계의 중생제도와 자비심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법무이다. 복채를 모으는 동작은 선업(善業)을 모으고 복채를 밑에서 위로 치는 동작은 악업(惡業)을 버리라는 의미의 동작으로 법고작법무는 삼륜계의 중생제도, 서원(誓願), 자비심, 하심, 원결풀이, 망상과 일체고액의 탈피, 환희심 등을 표현하고 있는 작법무이다.

1) 상체 중심 춤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는 ‘승보의 춤’으로 중생제도와 자비심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법무이다. 법고 작법무 연행 중 상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복채 모으는 사위’, ‘변죽 훑기 및 치는 사위’, ‘손 엮기 사위’, ‘어르기 사위’, ‘양손치기 사위’, ‘복채 넣기 사위’, ‘좌우치기 사위’, ‘숨고르기 사위’, ‘복채로 목감기 사위’, ‘허리젓혀 변죽돌기 사위’, ‘정곡치기 사위’, ‘마무리 사위’등 총 12가지의 상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1) 복채 모으는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복채 모으는 사위’는 나비 작법무, 바라 작법무와 동일하게 부처님의 법을 통해 삼륜계(三輪界)의 중생제도와 자비심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34>와 같다.

<사진 4-34> 북채 모으는 사위



<북채모으는 사위 1>



<북채모으는 사위 2>



<북채모으는 사위(후면) 3>

<사진 4-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채 모으는 사위’는 부처님의 현묘한 법을 통해 삼륜계의 중생 제도와 자비심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북채 모으는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불단의 부처님을 향해 서서 북채 밑으로 시선을 처리한다. 상체 동작은 법고로부터 약 2m~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직립한 상태로 양발의 뒤꿈치를 붙이고 앞발은 약 15도 정도 벌린 11자 형태를 유지한다. 양손의 북채를 가지런히 하여 이마 정도 높이까지 올린 후 불단을 향하여 허리를 45도 정고 숙이면서 반배(半拜)로 예를 올린다. 반배 할 때 무릎은 약 30도 정도 구부리고 발의 모양은 뒤꿈치를 가까이 댄 상태에서 앞발을 약간 벌린 11자 모양의 형태를 취한다. 이 춤사위 동작은 법고 작법무를 시작하기 전 법고를 향하여 겸허한 마음가짐과 부동자세를 취하고 가슴 정중앙에 양손으로 북채를 들고 있는 춤사위 동작이다.

(2) 변죽 훑기 및 치는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변죽훑기 및 치는 사위’는 하늘, 바다, 땅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서원(誓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35>와 같다.

<사진 4-35> 변죽 훑기 및 치는 사위



<변죽훑기(상단)>



<변죽훑기(중단)>



<변죽훑기(하단)>



<왼손치기 사위>



<오른손 치기>



<양손으로 중앙 치기>

<사진 4-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죽훅기 및 치는 사위’는 하늘·바다·땅을 의미하는 삼륵계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변죽훅기 및 치는 사위’ 연행 시 시선은 상단 변죽을 훅을 때는 북의 위쪽, 중단을 훅을 때는 북의 중간, 하단을 훅을 때는 북 하단의 변죽을 응시한다. 치기사위 연행 시에는 시선은 북의 변죽 양끝을 응시하면서 북을 친다. 상체 동작은 직립 상태에서 상단은 팔을 치켜들고 발 뒤꿈치를 약간 들어준다. 중단은 직립상태, 하단을 훅을 대도 직립 상태에서 ‘주루룩’ 훅어 준다. 무릎은 북을 훅을 때 약간씩 반동을 주며 발의 모양은 ‘丁’자 모양을 기본으로 시작하여 왼발 뒤에 오른발을 가져다 붙이며 약간 들어 준다. 법고를 삼등분하여 훅는 동작의 의미는 하늘·바다·땅의 삼륵계의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법회에 동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춤사위 동작이다. 변죽을 3회 훅은 이후에는 치는 동작을 연결한다.

‘치는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북의 양끝의 변죽을 향하게 시선을 처리한다. 상체 동작은 왼손, 오른손, 왼손 순서로 3회 북의 변죽을 타격한다. 상체는 직립한 상태에서 북채를 든 손으로 북의 변죽을 치며, 이때 반대편 손은 다음 타격을 위해 어깨보다 높이 들어준다. 발은 어깨넓이 정도 ‘11’자로 벌린 상태에서 왼손, 오른손 타격 시 무릎과 어깨를 약간씩 반동을 주면서 친다. 양손으로 북의 중앙인 정곡을 칠 경우에도 발의 모양은 ‘11자’이며 무릎과 어깨를 약간씩 반동을 주면서 타격한다. ‘치는 사위’ 동작은 변죽을 왼손, 오른손, 왼손 순서로 3회 타격 한 후 법고의 중앙을 양손으로 1회 ‘뚜당’하고 타격한다. ‘치는 사위’ 춤사위에서 변죽을 타격하는 의미는 중생들의 번뇌를 떨쳐내라는 신호이고, 법고의 중앙을 타격하는 의미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옳고 바르게 들으라는 것으로 수행 자각하라는 것을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3) 손 엮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손 엮기 사위’는 오른손과 왼손을 겹쳐 엮는 사위로 일체의 원결(怨結)과 탐욕을 풀어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36>과 같다.

<사진 4-36> 손 엮기 사위



<손 엮기 사위>

<사진 4-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 엮기 사위’는 일체의 원결과 탐욕을 풀어버리라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손 엮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손목으로 북채를 ‘X’자 모양으로 엮을 때 손목을 응시한다. 상체 동작은 직립한 상태에서 무릎은 약 30도 정도 굽히고 어깨는 북의 좌, 우 변죽에 맞추며 북쪽, 동쪽, 서쪽 방향으로 양손을 엮어 준다. 왼쪽으로 상체를 이동할 때는 북채를 들고 있는 오른손은 위쪽에 위치하고 왼손은 오른손을 밑에서 받치고 있는 형태의 춤사위 동작이다. 오른쪽으로 상체를 이동할 때

는 북채를 든 왼손이 위쪽에 위치하고 오른손은 왼손을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형태의 춤사위 동작으로 양쪽으로 5회씩 손 엮기 사위를 실행한다. 무릎은 손을 엮을 때 약 30도 정도 굽히며 발의 모양은 뒤꿈치를 가깝게 붙이고 발의 앞쪽은 약 15도 정도 벌려준다. 법고작법무에서 ‘손 엮기 사위’는 일체의 탐욕과 원결을 풀어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춤사위 동작이다.

(4) 어르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어르기 사위’는 일체의 망상을 떨쳐 버리고 하심(下心)하는 마음가짐으로 삶을 원만하게 하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37>과 같다.

<사진 4-37> 어르기 사위



<어르기사위 전면 1>



<어르기 사위 전면 2>



<어르기 사위 후면 1>



<어르기 사위 후면 2>

<사진 4-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고 작법무의 ‘어르기 사위’는 일체의 망상을 떨쳐버리고 하심(下心)하라는 의미의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어르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 시 왼쪽 45도 방향 아래쪽을 응시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 시 오른쪽 45도 방향 아래쪽을 응시한다.

상체 동작은 직립한 상태에서 복채를 든 양손을 휘젓는 것 같은 형태로 법고를 향해 이동하는데, 좌, 우로 이동 할 때 상체는 약 30도 정도 기울이며 이동한다. 법고를 향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중앙 등 총 5회 어르기 사위 동작을 하면서 이동한다. 즉 법고를 향해서 먼저 왼쪽방향으로 복채를 들고 있는 손을 사선으로 흔드는 동작을 취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복채를 들고 있는 손을 사선으로 흔들며 법고를 향해 이동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어르기 춤사위 동작은 법고무 전체 연행 중 중간 중간에 연행하거나 새로운 춤사위 동작이 나오기 전에 연행하는 특징이 있다.

무릎은 좌, 우 어르기 동작을 하면서 이동시 약 30도 정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한다. 발의 모양은 왼쪽으로 이동 시 왼발을 앞으로 약간 들

어 한 보폭 만큼 이동시킨 후 오른발을 당겨서 왼발에 붙이고 오른발을 약간 들어 한 보폭 만큼 이동시킨 후 왼발을 당겨서 오른발에 붙이는 형태로 이동한다. 법고 작법무의 ‘어르기 사위’는 일체의 망상을 떨쳐버리고 하심(下心)하고 삶을 원만하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춤사위 동작이다.

(5) 양손치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양손치기 사위’는 선업(善業)을 모으고 악업(惡業)을 떨쳐 버리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38>과 같다.

<사진 4-38> 양손치기 사위



<양손치기 사위 1>



<양손치기 사위 2>

<사진 4-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손치기 사위’는 ‘모아치기 사위’라고도 하며 선업은 모으고 악업은 떨쳐버리라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양손치기 사위’ 연행 시 복채를 밑에서 위로 칠 경우 시선은 복채를 따라 밑에서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복의 중앙인 정곡을 타격 할 경우에는 복의 중앙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상체 동작은 복을 타격 할 경우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체를 약 15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양손에 든 복채를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타격한다.

무릎은 복을 타격할 때 약 15도~30도 정도 구부리면서 법고를 친다. 발의 모양은 왼발을 앞쪽에 두고 오른발은 뒤쪽에 두는데 약간 떨어져 있는 ‘丁’자 모양을 하고 복을 칠 때는 뒤쪽에 위치해 있는 오른발 뒤꿈치를 약 5cm~10cm정도 들어준다. 법고작법무의 ‘양손치기 사위’에서 복채를 든 두손을 모으는 춤사위 동작은 선업(善業)을 모으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밑에서 위로 복을 치는 동작은 악업(惡業)을 멀리하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양손치기 사위’는 법고 중앙에서 위쪽으로 총 5회에 걸쳐 치는 동작을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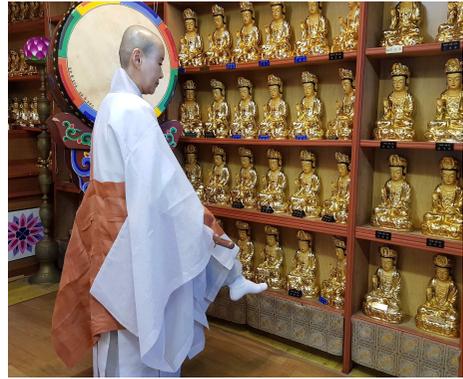
(6) 복채 넣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복채 넣기 사위’는 무릎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복채를 무릎사이로 집어넣는 사위로 항상 하심(下心)하고 삶을 원만하게 둥글게 하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39>와 같다.

<사진 4-39> 복채 넣기 사위



<복채 넣기 사위 1>



<복채 넣기 사위 2>

<사진 4-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고작법무의 ‘복채 넣기 사위’는 항상 하심하는 자세와 삶을 원만하게 하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복채넣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복채를 넣는 무릎을 응시한다. 상체 동작은 상체를 직립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굴신하여 복채를 들고 있는 양손을 약 45도~60도 정도 벌린 후 왼발과 오른발 사이로 복채를 집어 넣기를 반복하는데 좌, 우 양팔로 원형을 그리면서 들려져 있는 무릎 사이로 양손의 복채를 집어넣는 동작이다.

즉 상체를 약간 굴신한 상태에서 지면에서 약간 굽혀져 있는 왼쪽 무릎 안 사이로 복채를 든 양손을 집어넣고, 교대로 오른쪽 무릎 안 사이로 복채를 든 양손을 집어 넣는 춤사위 동작이다. 무릎은 지면에서 30cm~50cm 정도 발을 든 무릎을 약 45도 정도 굽히고 무릎을 들지 않은 발은 지면에 붙인다. 즉 왼발을 들어 무릎을 굽힐 경우 오른발은 지면에 붙인 상태이고 반대로 오른발을 들어 무릎을 굽힐 경우 왼발은 지면에 붙인다. 법고작법무의 ‘복채 넣기 사위’ 는 항상 삶을 둥글고 원만하게 하심하는 자세로 생활하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7) 좌우치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작법무의 ‘좌우치기 사위’는 정진에 매진하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진 4-40>과 같다.

<사진 4-40> 좌우치기 사위



<좌우 치기 왼손>



<좌우 치기 오른손>

<사진 4-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우치기 사위’는 정진(精進)에 매진하라는 의미의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좌우 치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왼쪽 북채로 타격할 때는 왼쪽 북채를 보고 오른쪽 북채로 타격할 때는 오른손 북채를 시선을 고정한다. 상체 동작은 상체를 직립한 상태에서 북채를 든 손을 지면과 수평이 되게 벌린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북채로 법고를 타격한다. 법고의 중앙에서 위쪽으로 북채를 들고 있는 왼손을 먼저 타격한 후 오른손으로 타격한다. 왼손과 오른손을 교대로 법고의 중앙에서 위로 치듯이 5회 타격한다. 5회 타격 후에는 법고의 중앙인 정곡을 왼손, 오른손으

로 ‘뚜당’하고 타격한다. 무릎은 편 상태에서 법고를 칠 때 약간 무릎을 구부린다. 발의 모양은 양발의 뒤꿈치를 붙이고 앞은 약간 벌린 상태에서 ‘丁’자 모양을 만든다. 법고작법무의 ‘좌우치기 사위’는 정진에 매진하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8) 숨고르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숨고르기 사위’는 일체의 망상을 버리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41>과 같다.

<사진 4-41> 숨고르기 사위



<숨고르기 사위>

<사진 4-41>에서 보는 바와같이 ‘숨고르기 사위’는 일체의 망상(妄想)을 버리라는 의미를 갖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숨고르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북채를 응시하면서 법고의 중앙을 바라본다. 상체 동작은 직립한

상태에서 법고를 칠 때 앞으로 약 15도 정도 상체를 기울이고 오른손, 왼손을 교대로 법고의 중앙을 약하게 12회 정도 두드리는 춤사위 동작이다. 무릎은 법고 앞쪽에 나가있는 왼쪽 무릎은 피거나 약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한다. 발의 모양은 ‘정’자를 기본으로 해서 오른발 뒤꿈치를 지면에서 약 10cm정도 든 상태에서 법고를 약하게 타격한다. 법고작법무의 ‘숨고르기 사위’는 중생들의 일체 망상을 떨쳐 버리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이다.

(9) 북채로 목감기 사위(좌, 우)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북채로 목감기 사위’는 자비심으로 넓은 포용력을 갖춘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42>과 같다.

<사진 4-42> 북채로 목감기 사위(좌, 우)



<북채로 목감기(좌)1>



<북채로 목감기(좌)2>



<북채로 목감기(좌)3>



<북채로 목감기(우)1>



<북채로 목감기 (우)2>



<북채로 목감기(우)3>

<사진 4-42>에서 보는 바와같이 ‘복채로 목감기 사위’는 자비심으로 넓은 포용력을 갖춘 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복채로 목감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시작 할 때는 정면을 응시하면서 시작하여 좌측 목감기 때는 왼쪽으로 시선을 약간 이동시킨다. 오른쪽 목감기 때는 오른쪽으로 시선을 이동시킨다. 상체 동작은 직립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법고를 치고 왼손은 앞쪽으로 향한 후 목을 감싸고, 목 뒤쪽으로 복채로 목을 감싸 듯 감는다. 교대로 왼손은 법고를 치고 오른손은 앞쪽으로 향한 후 목을 감싸고 목 뒤쪽으로 복채로 목을 감싸 듯 감는 춤사위 동작이다. 무릎은 지면으로부터 20cm 정도 들며 무릎의 각도 약 30도~45도를 유지한다. 발의 모양은 왼발, 오른발 공히 지면으로부터 약 20cm 정도 들며 발바닥은 지면을 향하게 한다. 들지 않는 발은 지면에 붙인 상태를 유지한다. 양손을 교차시키며 총 5회 목감기를 실시한다. 법고작법무의 ‘복채로 목감기 사위’는 자비심을 발흥하여 넓은 포용력을 갖추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10) 허리 젓혀 변죽돌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허리젓혀 변죽돌기 사위’는 상대방을 자비심으로 이해하고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43>과 같다.

<사진 4-43> 허리 짓혀 변죽돌기 사위



<허리 짓혀 변죽돌기 사위 1>



<허리 짓혀 변죽돌기 사위 2>



<허리 짓혀 변죽돌기 사위 3>



<허리 짓혀 변죽돌기 사위 4>

<사진 4-43>에서 보는 바와같이 ‘허리젓혀 변죽돌기 사위’는 상대방을 자비심으로 이해하고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허리젓혀 변죽돌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왼쪽 복채를 따라 시선을 이동시키며 변죽돌기를 마쳤을 때는 법고의 중앙을 응시한다.

상체 동작은 먼저 시계 방향으로 변죽돌기를 시작할 때 약 30도 이상 허리를 젓혀 변죽을 돈다. 변죽돌기 할 때 허리를 직접적으로 사용 도는 것 보다는 무릎을 약간 굽혀 도는 것이 효과적이다. 복채를 들고 있는 오른쪽 어깨는 낮게 되고 왼쪽 어깨는 높은 상태로 변죽돌기를 한다. 즉 변죽돌기 시작 시 한 손으로 법고 중앙을 타격한 후 왼손은 법고 중앙에 고정시키고 오른손은 변죽을 약하게 두드리면서 상체를 시계 방향으로 270도~360도 회전 한 후 오른손으로 양쪽 변죽을 번갈아 3회 타격한다. 손을 변경하여 오른손을 법고 중앙에 고정시키고 왼손으로 변죽을 약하게 두드리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리고 회전 270도~360도 회전한 후 왼쪽 손으로 변죽을 3회 훑은 후에 양쪽 변죽을 조금 강하게 3회 타격한다.

무릎은 허리 젓혀 변죽돌기 할 때 약 20도~30도 정도 굽혀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변죽돌기를 한다. 발의 모양은 오른발은 왼쪽으로 전진하듯이 밀면서 시작하고 왼발은 오른발 쪽으로 당기면서 약 5cm~10cm 정도 들면서 변죽돌기를 실시한다. 법고작법무의 ‘허리젓혀 변죽돌기 사위’는 자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11) 정곡 치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정곡 치기 사위’는 일체고액(一切苦厄)과 어리석은 마음을 떨쳐버리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44>와 같다.

<사진 4-44> 정곡 치기 사위



<정곡치기 사위1>



<정곡 치기 사위2>

<사진 4-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고작법무의 ‘정곡치기 사위’는 일체고액(一切苦厄)과 어리석은 마음을 떨쳐버리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정곡치기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법고 하단에서 상단의 변죽을 향해서 시선을 이동한다. 상체 동작은 직립한 상태에서 앞쪽으로 약 15도 정도 기울이며 양손의 북채를 법고 중앙의 정곡을 크게 왼손, 오른손을 거의 동시에 ‘뚜당’하고 타격하는 춤사위 동작으로 법고 중앙을 타격과 동시에 동·서·남쪽 방향으로 무릎을 약 45도 정도 굽혀 굴신 한 후에 일어나서 북쪽 방향을 향해 오른쪽으로 3회 회전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무

릎은 왼쪽 무릎을 약 15도 정도 구부린다. 발의 모양은 ‘丁’자 모양을 기본으로 하여 왼발을 앞으로 하여 지면에 붙이고 오른발은 뒤꿈치를 약 5cm~10cm 정도 들어 양손 정곡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법고작법무의 ‘정곡치기 사위’는 인간이 망상으로부터 발원하는 일체고액(一切苦厄)과 어리석은 마음을 떨쳐 버리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12) 마무리 사위

상주권공제 의식 중 법고작법무의 ‘마무리 사위’는 법고작법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춤사위 동작으로 삼륜계의 중생을 제도하는 서원을 달성한 후 환희심이 발원되었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45>와 같다.

<사진 4-45> 마무리 사위



<마무리 사위 1>



<마무리 사위 2>



<마무리 사위 3>



<마무리 사위 4>



<마무리 사위 5>



<마무리 사위 6>

<사진 4-45>에서 보는 바와같이 법고작법무의 ‘마무리 사위’는 마지막 춤사위 동작으로 삼륜계의 중생을 제도하는 서원을 달성한 후 환희심이 발원되었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마무리 사위’ 연행 시 시선은 복채를 향해서 시선을 이동하며 약간 위쪽을 응시한다.

상체 동작은 직립한 상태에서 양팔을 지면과 수평 또는 약 45도 정도 사선으로 원을 그리듯이 회전하는데 처음 두 번의 회전은 천천히 시작 한 후 세 번째 회전부터는 점점 빨리 회전하여 다섯번째 회전까지 한다. 또한 복채를 든 양손을 펼쳐 회전하면서 하늘을 향해 좌, 우 손을 밀어 올리듯이 들어올린다. 즉 복채를 들고 있는 왼손, 오른손을 머리 위로 위치시킨 후 몸을 회전하면서 복채를 든 왼손은 왼쪽 머리 위로 복채를 돌리고, 오른손은 오른쪽 머리 위로 복채를 돌리는 춤사위 동작이다.

‘마무리 사위’의 구성은 어리석은 중생을 교화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였다는 기쁨을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과 중생제도의 서원을 달성하게 해 주신 부처님께 찬탄하는 춤사위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은 복채를 머리 위로 하면서 양손으로 복채를 받들고 불단의 부처님을 향해 직립한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 숙여 반배하면서 법고작법무를 끝마친다.

무릎은 곧게 편 상태에서 회전 할 때마다 왼쪽, 오른쪽 무릎을 30도 정도 구부리며 발을 약간씩 들면서 이동하면 회전한다. 발의 모양은 한 바퀴를 도는 상태에서 ‘丁’자를 기본으로 원을 그리며 크게 회전한다. 왼쪽으로 회전 할 경우 오른발의 뒤꿈치를 지면에서 10cm 정도 들고, 오른쪽으로 회전할 경우 왼발 뒤꿈치를 약 10cm 정도 들면서 원활하며 효과적인 회전을 한다. 마지막으로 불단의 부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때는 양발을 곧게 모으고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붙인 상태에서 반배를 실시한다. 법고작법무의 ‘마무리 사위’는 삼륜계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서원 달성과 이를 달성하게 해 주신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 환희심과 찬탄의 의미를 상징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2) 하체 중심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 연행 중 하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빠른 걸음이동 사위’, ‘양발 뒤꿈치 들기 사위’, ‘발 모으기 사위’, ‘돌기 사위’, ‘뒤꿈치 들기 사위’, ‘한발 들기 사위’, ‘무릎 들기 사위’,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 ‘도는 사위’ 등 총 9가지의 하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1) 빠른 걸음 이동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빠른 걸음 이동 사위’는 법고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46>과 같다.

<사진 4-46> 빠른 걸음 이동 사위



<빠른 걸음이동 사위 1>



<빠른 걸음이동 사위 2>

<사진 4-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빠른 걸음이동 사위’는 법고작법무 시작 시 ‘북채 모으는 사위’가 끝나고 상체 중심 춤사위 중 ‘변죽 훑기 및 치는 사위’를 연행하기 위해 법고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빠른 걸음 이동 사위’는 3m~5m 전방에 위치해 있는

법고를 향하여 양발을 이용하여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여 법고 중앙에 정지함과 동시에 뒤통치를 약간 드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것은 법고를 타격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춤사위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왼발을 들어 앞으로 전진시킨 후 오른발을 번갈아 전진 이동시키며 법고의 중앙에 도달하면 왼쪽 발이나 오른쪽발의 뒤통치를 지면에서 약 10cm 정도 들어 법고를 타격하기 용이하게 하는 동작이다.

(2) 양발 뒤통치 들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작법무의 ‘양발 뒤통치 들기 사위’는 상체 중심 춤사위 중 ‘양손 치기 사위’ 때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47>과 같다.

<사진 4-47> 양발 뒤통치 들기 사위



<양발 뒤통치 들기 사위 1>



<양발 뒤통치 들기 사위 2>

<사진 4-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발 뒤통치 들기 사위’는 법고 작법무의 상체 중심 춤사위 중 ‘양손치기 사위’ 때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

체적으로 ‘양발 뒤꿈치 들기 사위’는 법고를 타격 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한 춤사위 동작으로 상체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통하여 법고 타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춤사위 동작이다. 법고 중앙에서 발의 모양을 ‘丁’자로 시작하여 양발을 11자 모양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양발의 뒤꿈치를 약 10cm 정도 지면에서 들어 법고를 타격하기에 용이하게 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3) 발 모으기 사위(좌, 우)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작법무의 ‘발 모으기 사위’는 ‘손엮기 사위’ 때 사용되는 춤사위로 좁은 공간에서 이동할 때 용이한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 48>과 같다.

<사진 4-48> 발 모으기 사위(좌, 우)



<발 모으기 사위 1>



<발 모으기 사위 2>

<사진 4-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 모으기 사위’는 법고작법무 상체 중심 춤사위 중 ‘손엮기 사위’ 연행 시 연관하여 사용되는 춤사위 동작으로 좁은 공간에서 이동할 때 용이한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발 모으기 사위’는 상

체 중심 춤사위 중 ‘손엮기 사위’ 연행 시 사용하는 춤사위이다. 왼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 왼발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며 왼쪽 무릎에 힘을 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조심히 끌어당겨 왼발의 복숭아뼈 옆에 가져다 부치는 동작이다. 이때 오른발과 왼발은 ‘丁’자의 발 모양의 형태를 만들며 발바닥은 지면에 완전히 붙인다. 또한 오른쪽으로 이동 시 오른발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며 오른쪽 무릎에 힘을 준 상태에서 왼발을 조심히 끌어당겨 왼발 복숭아뼈 옆에 가져다 부치는 동작을 한다. 왼쪽 방향으로 이동 할 때와 동일하게 모아진 발의 모양은 ‘丁’자 형태를 유지하며 발바닥은 지면에 완전히 붙인 상태를 유지한다.

(4) 돌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작법무의 ‘돌기 사위’는 상체 중심 춤사위 중 ‘손 엮기 사위’ 연행 시 사용하는 동작으로 방향 전환 할 때 사용하는 춤사위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49>와 같다.

<사진 4-49> 돌기 사위



<돌기 사위 1>



<돌기 사위 2>

<사진 4-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기 사위’는 상체 중심 춤사위 중 ‘손 엮기 사위’ 연행 시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으로 방향 전환 할 때 사용하는 춤사위이다. 구체적으로 ‘돌기 사위’는 왼쪽으로 회전 할 경우 오른발을 약 30도 옆으로 이동하고 왼발을 지면에서 들어 오른발 뒤쪽으로 둔 상태에서 회전하여 방향을 전환한 후 동쪽을 향하여 앉는다. 오른쪽으로 회전할 경우 왼발을 옆으로 하고 오른발을 들어 왼발의 뒤쪽으로 둔 상태에서 회전하여 방향을 전환한 후 서쪽을 향해서 앉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 때 무릎은 이동하거나 방향 전환시 약 15도 정도 굽히며 사용한다.

(5) 뒤꿈치 들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뒤꿈치 들기 사위’는 상체 중심 사위 중 법고 ‘좌우치기 사위’, ‘정곡치기 사위’ 연행 시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50>과 같다.

<사진 4-50> 뒤꿈치 들기 사위



<뒤꿈치 들기 사위 1>



<뒤꿈치 들기 사위 2>

<사진 4-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고작법무 하체 중심 사위의 '뒤꿈치 들기 사위'는 상체 중심 사위 중 법고 '좌우치기 사위', '정곡치기 사위' 연행 시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으로 법고 타격을 용이하게 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뒤꿈치 들기 사위'는 법고작법무의 상체 중심 춤사위 중 '좌우치기 사위', '정곡치기 사위' 연행 할 때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으로 왼손으로 법고를 칠 때 왼발 뒤꿈치를 지면에서 5cm~10cm 정도 약간 들고 법고를 치고 오른발을 발바닥을 지면에 완전히 붙인다. 오른손으로 법고를 칠 때도 동일하게 오른발 뒤꿈치를 지면에서 5cm~10cm 정도 약간 들면서 법고를 치며 왼발의 발바닥은 지면에 완전히 붙인다. 이렇게 발 뒤꿈치를 약간씩 들고 반동을 주면서 법고를 치는 것은 타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춤사위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6) 한 발 들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작법무의 '한 발 들기 사위'는 상체 중심 사위 중 '목감기 사위' 연행 시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51>과 같다.

<사진 4-51> 한 발 들기 사위



<한 발 들기 사위(좌)>



<한 발 들기 사위(우)>

<사진 4-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고작법무 하체 중심 춤사위의 ‘한 발 들기 사위’는 상체 중심 사위 중 ‘목감기 사위’ 연행 시 연결하여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한 발 들기 사위’는 상체 중심 사위 중 ‘목감기 사위’ 연행 시 사용하는 동작으로 왼발을 지면에서 약 30cm정도 발을 드는 동작으로 이때 발바닥은 지면을 향하게 하고 반대 발은 발바닥을 지면에 완전히 붙인 상태를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오른발을 들 경우에도 오른발을 지면에서 30cm정도 발을 들며 발바닥은 지면을 향하게 하고 반대편 발의 발바닥은 지면에 완전히 붙인 상태를 유지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것은 복채를 목 앞이나 목 뒤로 돌릴 때 몸의 꼬임과 용이하게 하고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한 춤사위 동작이다.

(7) 무릎 들기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무릎 들기 사위’는 상체 중심 사위 중 ‘복채 넣기 사위’ 연행시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으로 하심(下心)하고 삶을 원만하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춤사위 동작 때 복채를 무릎사이로 이동 시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52>와 같다.

<사진 4-52> 무릎 들기 사위



<무릎 들기 사위 (좌)>



<무릎 들기 사위 (우)>

<사진 4-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릎 들기 사위’는 상체 중심 사위 중 ‘복채 넣기 사위’ 연행 시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무릎 들기 사위’는 왼쪽 무릎을 90도에 가깝게 올려 굽힌 후 그 사이에 양손에 들고 있는 복채를 집어넣는다. 이 때 들고 있는 왼발의 발등은 상방향을 향하고 발바닥은 지면을 향하게 하며 발의 앞꿈치가 너무 앞으로 들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오른발은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 발바닥을 지면에 완전히 붙여 고정한다.

교대로 오른쪽 무릎을 들 경우에도 왼발 무릎들기와 동일하게 무릎을 90도에 가깝게 올려 굽힌 후 양손에 들고 있는 복채를 무릎사이로 집어 넣는다. 이 때 들고 있는 오른발의 발등은 상방향을 향하고 발바닥은 지면을 향하게 하며 발 앞꿈치가 너무 들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왼발은 몸의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 발바닥을 지면에 완전히 붙인다. 법고작법무의 ‘무릎 들기 사위’는 항상 하심(下心)하고 삶을 원만하게 하라는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춤사위 동작이다.

(8)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 작법무의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는 상체 중심 춤사위 중 ‘손 엮기 사위’ 연행시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53>과 같다.

<사진 4-53>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 1>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 2>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 3>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 4>

<사진 4-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는 상체 중심 춤사위 중 ‘손 엮기 사위’ 연행시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는 한 발로 방향 회전 시 돌기 사위와 유사하

게 사용하며 왼쪽 방향으로 회전 시 무릎을 약 45도 정도 굽히고 발의 모양은 11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발은 발바닥을 지면에 완전히 붙인다. 무릎을 피는 것과 동시에 왼발을 약 45도 정도 왼쪽 방향으로 진행시킨 후 오른발을 약간 들어 당겨서 왼발 뒤꿈치에 가져다 붙이며 ‘丁’자 모양의 발 모양을 만든다.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 시에는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무릎을 약 45정도 굽히고 발 모양은 11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왼발은 발바닥을 지면에 완전히 붙인다. 무릎을 피는 것과 동시에 오른발을 약 45도 정도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시킨 후 왼발을 약간 들면서 당겨 오른발 뒤꿈치에 가져다 붙이며 ‘丁’자 모양의 발 모양을 만든다. 법고 작법무의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는 춤사위의 미적인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불교의 자비심과 하심(下心)하는 생활을 통하여 수행 정진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9) 도는 사위(緩,急)

상주권공재 의식 중 법고작법무의 ‘도는 사위’는 ‘천천히 도는 사위’와 ‘빨리 도는 사위’로 구분된다. ‘천천히 도는 사위’는 상체 중심 사위 중 ‘허리젓혀 변죽훅기 사위’와 연관된 사위이고, ‘빨리 도는 사위’는 상체 중심 사위 중 ‘마무리 사위’ 연행 시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이를 살펴보면 <사진 4-54>와 같다.

<사진 4-54> 도는 사위(緩,急)



<천천히 도는 사위 1>



<천천히 도는 사위 2>



<천천히 도는 사위 3>



<천천히 도는 사위 4>



<빨리 도는 사위 1>



<빨리 도는 사위 2>



<빨리 도는 사위 3>



<빨리 도는 사위 4>

<사진 4-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는 사위’는 ‘천천히 도는 사위’와 ‘빨리 도는 사위’로 구분되는 춤사위 동작이다. ‘천천히 도는 사위’는 상체 중심 춤사위 중 ‘허리젓혀 변죽훑기 사위’와 연관된 사위이다. 구체적으로 ‘천천히 도는 사위’는 왼쪽 방향으로 회전 시 오른발을 왼쪽 방향으로 빼면서 지면에 완전히 붙이고 왼발은 지면에서 10cm 정도 뒤꿈치를 들어 서서

히 몸을 회전하는 동작으로 발의 모양은 11자 형태를 유지한다. 오른쪽으로 회전 시에는 왼발을 오른쪽 방향으로 빼면서 지면에 완전히 붙이고 오른발은 지면에서 약10cm 정도 뒤꿈치를 들어 서서히 몸을 회전하는 동작으로 발의 모양은 11자 형태를 유지한다.

‘빨리 도는 사위’는 상체 중심 사위 중 ‘마무리 사위’ 연행 시 사용하는 춤사위 동작이다 구체적으로 ‘빨리 도는 사위’ 회전 방법은 ‘천천히 도는 사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왼쪽 방향으로 빨리 회전 할 경우 양 무릎을 약 30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왼발 뒤꿈치를 지면에서 약간 들면서 왼발을 약 45도 방향으로 이동시켜 발바닥을 고정시키고 오른발 뒤꿈치는 지면에서 약10cm 정도 들고 오른발을 왼발 뒤꿈치로 당겨 ‘丁’자 모양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반복한다. 교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빨리 회전 할 경우 양무릎을 약 30도 정도 굽힌 상태에서 오른발 뒤꿈치를 지면에서 약간 들면서 오른발을 약 45도 방향으로 이동시켜 발바닥을 고정시키고 왼발 뒤꿈치는 지면에서 약10cm 정도 들고 왼발을 오른발 뒤꿈치로 당겨 ‘丁’자 모양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반복한다.

3) 소결론

상주권공재에서 사용하는 법고작법무의 상징적 의미는 승보무(僧寶舞)이며 중생 제도와 자비심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법무이다. 법고 작법무의 상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복채 모으는 사위’, ‘변죽 훑기 및 치는 사위’, ‘손 엮기 사위’, ‘어르기 사위’, ‘양손치기 사위’, ‘복채 넣기 사위’, ‘좌우치기 사위’, ‘숨고르기 사위’, ‘복채로 목감기 사위’, ‘허리젓혀 변죽돌기 사위’, ‘정곡치기 사위’, ‘마무리 사위’등 총 12가지의 상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하체 중심 춤사위 종류는 ‘빠른 걸음 이동 사위’, ‘양발 뒤꿈치 들기 사위’, ‘발 모으기 사위’, ‘돌기 사위’, ‘뒤꿈치 들기 사위’, ‘한발 들기 사위’, ‘무릎 들기 사위’,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 ‘도는 사위’ 등 총 9가지의 하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상주권공재 법고작법무에서 사용하는 상체 중심 춤사위의 특징은 상체 동작의 경우 법고를 타격하거나 변죽을 훑거나 치기, 손 엮기, 목감기, 어르기, 마무리 사위 등에서와 같이 다른 작법무에 비하여 상체 동작 움직임의 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사용하여 동적이며 순발력 있는 춤사위를 구사한다. 법고작법무의 상체 중심 춤사위의 대부분은 직립한 상태에서 시작하며 상체를 약15도~30도 정도 기울이는 정도로 상체의 동작을 절제하는 춤사위를 구사하여 장중하고 경건한 느낌의 춤사위를 구사하는 특징이 있다. 다만 ‘어르기 사위’, ‘복채넣기 사위’, ‘목감기 사위’, ‘허리젓혀 변죽돌기 사위’, ‘마무리 사위’와 같은 경우에는 양팔의 움직임이나 폭을 크게 하여 동적이면서도 장엄한 느낌이 들도록 춤사위를 구사하는 특징이 있다. 법고작법무 연행시 시선은 상·하 방향으로 약 15~30도 정도 향하게 하고 좌선 할 때처럼 눈을 1/3 정도 뜬다는 느낌으로 시선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체 중심 춤사위 발의 모양은 ‘丁’자를 기본으로 하며 발 뒤꿈치를 거의 붙인 상태에서 앞꿈치를 약 15도~30도 정도 벌리는 ‘11’자 모양의 발 동작을 많이 사용한다. 발을 이동시킬 때도 약 30도~45도 방향으로 약 35cm~50cm 정도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회전 시에도 한 발 30cm 이내로 이동시켜 회전한다. 발 뒤꿈치는 약10cm 이내로 약간 들어주어 몸의 반동을 주는 형태를 취하며 ‘한 발 들기 사위’에서는 지면으로부터 30cm~40cm 정도 들어준다. 무릎의 각도는 이동하거나 회전 할 때 약 15도 정도 무릎을 굽혀 주고, ‘무릎 들기 사위’에서는 무릎을 지면으로부터 약 90도 가깝게 들어주며 대부분의 이동하거나 회전하는 춤사위에서는 약15도~45도 정도 무릎을 굽혀 사용한다.

법고작법무의 상체 중심 춤사위는 절제되고 정중한 춤사위 속에서도 복채로 복을 치거나 변죽 돌기, 어르기, 마무리 사위 연행 시 팔을 휘젓거나 펼치고 접을 때 동적인 춤사위를 강조하는 작법무라고 할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하체 중심 춤사위는 정적이면서도 절제된 발 동작과 무릎 각도를 사용하여 춤사위를 장중하게 구사하고 있어 법고작법무는 정적이며 동적인 춤사위가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구사 되는 작법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법고작법무에서 사용하는 상체·하체 춤사위를 종합 요약하면 <표 4-3>과 같다.

<표 4-3> 법고작법무 사용 상체·하체 춤사위

번호	춤사위	상체		하체	
		동작	시선	무릎	발모양
1	복채 모으기	양손의 복채를 이마 높이에 위치 후 불단을 향해 반배	복채 하방	직립, 30도 굴신	뒤꿈치 붙이고 약 15 개방
2	변죽 훑기 및 치기	65도, 45도, 15도 변죽 훑기, 왼손,오른손,왼손 순으로 3회 치기	법고의 상·중·하단, 변죽 양끝	직립	‘丁’자, 어깨넓이 ‘11’자
3	손 엮기	복채를 ‘X’ 모양, 어깨는 좌, 우 변죽에 정렬, 북,동,서 방향 순으로 손을 엮는다	손목	직립, 30도 굴신	뒤꿈치 붙이고 약 15 개방
4	어르기	복채를 든 양손을 법고를 향해서 사선으로 좌, 우 흔들며 이동 시 30도 정도 기울임	45도 하방	직립, 30도 굴신	좌, 우 양발을 교대로 한 보폭 만큼 이동, ‘丁’자
5	양손 치기	양손 복채는 밑에서 상향으로 친다. 상체는 1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인다	하방/ 상방	15~30도 굴신	떨어져 있는 ‘丁’자, 뒤꿈치를 5cm~10cm 든다
6	복채 놓기	양팔을 45~60 정도 벌려 무릎 사이로 복채를 놓는다.	무릎	45도 굴신, 지면에서 30cm~50cm 든다	양발을 교대로 지면에 붙인다
7	좌우치기	양팔 벌려 수평, 법고 중앙에서 왼손, 오른손 순서로 상향하게 친다	복채	직립, 30도 굴신	‘丁’자
8	숨 고르기	법고를 칠 때 앞으로 15도 정도 기울이고 법고 중앙을 약하게 12회 친다.	복채	앞 무릎은 직립 혹은 15도 굴신	‘丁’자, 뒤꿈치는 10cm 정도 든다
9	복채로 목감기	좌, 우 손으로 법고를 치고 한 손은 목 앞, 뒤의 순서로 목을 감싼다	정면, 좌·우	직립, 30도~45 굴신	좌, 우 발을 지면에서 20cm 정도 든다

번호	춤사위	상체		하체	
		동작	시선	무릎	발모양
10	허리젓혀 변죽 돌기	허리를 30도 정도 젓혀 변죽을 돈다. 한 손은 법고에 부치고 한 손은 변죽을 친다. 시계방향, 반대 방향으로 돈다	복채, 법고 중앙	30도 굴신	오른발을 왼쪽으로 전진하듯 밀고, 왼발은 오른발 쪽으로 당기면서 지면에서 5cm~10cm 정도 든다
11	정곡 치기	상체를 15도 정도 기울여 양손으로 '뚜당'치고 동·서·남쪽 방향으로 굴신한 후 북쪽 방향을 향해 오른쪽으로 3회 회전한다.	변죽 하단에서 상단 방향	직립, 45도, 15도 굴신	'丁'자. 뒤꿈치는 10cm 정도 든다
12	마무리	양팔을 지면에서 수평 혹은 45도 정도 사선으로 원을 그린다. 하늘을 밀어 올리듯이 복채를 들어올린다	복채	직립, 좌·우 무릎을 30도 정도 굴신하며 회전	'丁'자를 기본으로 원을 그리며크게 회전, 좌·우 발 뒤꿈치는 10cm 정도 든다

V. 결 론

불교의식 중 상주권공재는 영혼 천도의식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재의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식이다. 즉 상주권공재는 천도의 대상인 영가를 도량으로 불러 맞이한 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법식을 베풀어 받도록 하는 의식이며, 영가에게 공양을 대접한 후 극락왕생 하도록 봉송하는 내용으로 의식절차가 구성되어 있다. 불교의식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고 대중화되어 있는 상주권공재의 의식 구성 절차와 이에 따라 사용하는 법문내용, 작법무의 종류, 그리고 작법무의 춤사위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상주권공재의 의식절차는 시련, 대령, 관욕, 신중단, 상단권공, 관음시식, 봉송 등 총 7개의 의식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차들 중 작법무가 출현하는 절차는 사찰 일주문 밖에 나가 영가를 맞아드리는 “시련”, 영가에게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는 “대령”, 불보살 친견 전에 영가의 삼독(三毒)을 부처님의 법력을 빌어 청정하게 하는 “관욕”, 불도량을 잘 수호하고 영가를 극락왕생하게 모든 신중을 청하는 “신중단”, 불전에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의 가피력을 기원하고 받는 “상단권공” 등 총 4개의 의식 절차에서 나비작법무,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가 연행된다.

둘째, 작법무가 연행되는 과장의 법문의 주요 내용과 사용되는 작법무는 제 1절차 “시련” 절차의 경우 옹호신을 청하는 ‘옹호계’ 과장에서 요잡 바라작법무, 시방 성현님들께 감로차를 올리는 ‘다계’과장에서는 다계 나비작법무, 막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불경을 연다는 의미의 ‘귀경’ 과장에서는 사용하는 법문은 없지만 귀경 나비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가 연행된다. 제 3절차 ‘관욕’의 경우 영가의

목욕을 시키는 ‘관욕계’ 과장에서 진언 후 법문은 없지만 관욕계 바라작법무, 영가의 옷을 태워 법으로 만들고 옷을 입히는 의식인 화의재진언을 할 때 화의재진언 바라작법무를 연행한다. 제4절차인 “신중단” 절차의 경우 신중들을 청하여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옹호계’ 과장에서는 요잡바라작법무, 삼보님과 제석님께 감로다를 올리는 ‘다계’ 과장에서는 요잡바라무를 연행한다.

상주권권공재 의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장인 제 5절차 “상단권공”의 경우 불·법·승을 찬탄하고 귀의하겠다는 ‘정례’ 과장에서는 정례 나비작법무, ‘천수바라’는 복청계 후 천수경대비신주경 진언에 맞추어 천수바라작법무, 삼보님과 천룡님을 청하는 ‘도량계’ 과장에서는 도량계 나비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부처님 법의 창고를 연다는 의미의 ‘삼남태’ 과장에서는 다계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꽃과 향으로 불보살을 청하는 ‘향화청’ 과장에서는 내림계 바라작법무, 불단의 설치를 발원하는 진언을 하는 ‘육건만나라’ 과장에서는 다계 나비작법무, 성현들에게 감로차를 올리는 ‘다계’ 과장에서는 요잡 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법고작법무, 불보살의 가피를 입게 되기를 기원하는 ‘사다라니’ 과장에서는 사다라니 바라작법무, 부처님이 은혜를 갚게 해 달라는 기원의 ‘운심계’ 과장에서는 운심계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등이 연행된다.

셋째, 상주권공재 의식에서 연행되는 나비작법무는 나비의 전신인 애벌레 고치가 그것을 깨치고 나와 깨달음을 얻어 기쁨을 표현하였다고 해서 불교의 해탈무(解脫舞) 또는 “불보(佛寶)의 춤”이라고 한다. 나비 작법무의 전체적인 춤사위의 의미는 깨달음, 수행과 정진, 환희심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상체 중심의 춤사위는 ‘합장 사위’, ‘차고 나가기 사위’, ‘양손 벌리기 사위’, ‘양손 접는 사위’, ‘치기 사위’, ‘양팔 벌리고 앉기 사위’, ‘사선으로 서고 앉기 사위’, ‘정면으로 무릎 꿇고 앉는 사위’, ‘뒤로 찢히기 사위’,

‘앞으로 숙이기 사위’, ‘쳐올리기 사위’, ‘꽃치기 사위’, ‘마주보고 앉기 사위’, ‘등지고 앉기 사위’, ‘엇갈려 앉기 사위’ 등 총 15가지의 상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하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발 차고 나기기 사위’, ‘90도 회전 사위’, ‘무릎구부리기 사위’, ‘무릎 피는 사위’, ‘앉는 사위’ 등 총 5가지의 하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상주권공재 의식에서 진행되는 바라작법무의 상징적 의미는 법보무(法寶舞)이며 부처님의 공덕과 바른 신심으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의 춤사위이다. 바라작법무의 전체적인 춤사위의 의미는 부처님의 설법, 중생 제도의 마음다짐, 정법(正法), 삼보(三寶)의 강림, 그리고 정각(正覺)을 수호하여 법열을 발현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바라작법무의 상체중심 춤사위 종류는 ‘바라 합장사위’, ‘바라 올리는 사위’, ‘바라 내리는 사위’, ‘한 손씩 올리는 사위’, ‘양손 올리는 사위’, ‘바라 올리는 사위’, ‘양손 치기 사위’, ‘머리 위에서 올리는 사위’, ‘머리 위에서 내려 올리는 사위’, ‘바닥에서 올리기 사위’, ‘두 손 모아 치고 뒤로 넘기기 사위’ 등 총 11가지의 상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하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무릎 구부리고 피며 이동하는 사위’, ‘회전 사위’ 등 총 2가지의 하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상주권공재 의식에서 진행되는 법고작법무의 상징적 의미는 승보무(僧寶舞)이며 중생 제도와 자비심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작법무이다. 전체적인 춤사위의 의미는 삼륜계의 중생제도, 서원(誓願), 자비심, 하심, 원결풀이, 망상과 일체고액의 탈피, 환희심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법고 작법무의 상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복채 모으는 사위’, ‘변죽 훑기 및 치는 사위’, ‘손 엮기 사위’, ‘어르기 사위’, ‘양손치기 사위’, ‘복채 넣기 사위’, ‘좌우치기 사위’, ‘숨고르기 사위’, ‘복채로 목감기 사위’, ‘허리젓혀 변죽돌기 사위’, ‘정곡치기 사위’, ‘마무리 사위’ 등 총 12가지의 상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하체 중심 춤사위 종류는 ‘빠른 걸음 이동 사위’, ‘양발 뒤꿈치 들기 사위’, ‘발 모으기 사위’, ‘돌기 사위’, ‘뒤꿈치 들기 사위’, ‘한발 들기 사위’, ‘무릎 들기 사위’,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 ‘도는 사위’ 등 총 9가지의 하체 중심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 재 의식 중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상주권공재는 총 7개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작법무가 출현하는 절차는 “시련”, “관욕”, “신 중단”, “상단권공” 등 총 4개의 절차에서 작법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주권공재에서 사용되는 작법무 중 나비작법무는 ‘불보(佛寶)의 춤’으로 깨달음, 수행과 정진, 환희심 등의 불교의 상징적 의미를 춤사위로 표현하고 있으며 상체의 동작도 머리카나 몸의 움직임이 천천히 하거나 완만한 춤사위가 대부분이다. 또한 시선의 처리도 좌선하듯이 하방향을 응시하는 경우가 많고 무릎을 굽히는 각도도 크지 않으며 발의 동작도 ‘丁’자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거나 회전하고 있어 진중하고 정적인 춤사위를 구사하고 있다.

바라작법무는 ‘법보(法寶)의 춤’으로 부처님의 설법, 중생 제도의 마음 다짐, 정법(正法), 삼보(三寶)의 강림, 그리고 정각(正覺)을 수호하여 법열을 발현하는 등의 불교 이념을 상징화한 춤사위이다. 바라작법무는 바라를 들고 있는 손의 움직임이 거의 없거나, 바라를 작은 소리로 치거나 큰 소리로 치며 이동 또는 회전하는 춤사위 동작 등으로 구성하여 정적·동적인 춤사위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상체의 움직임도 거의 직립한 상태 혹은 이동하거나 회전 할 때 약 15도~45도 정도 기울인다. 시선의 처리는 대부분 지면이나 바라의 끝부분을 응시하며, 무릎의 각도도 최대한 45도 이상을 굽히지 않는다. 발의 모양은 ‘丁’자를 중심으로 이동, 회전하고 있어 지극히

절제된 춤사위와 정중함을 표현하고 있다. 즉 바라작법무는 정적·동적 춤사위의 균형감이 잘 조화된 작법무라고 하겠다.

법고작법무는 ‘승보(僧寶)의 춤’으로 삼륜계의 중생제도, 서원(誓願), 자비심, 하심, 원결풀이, 망상과 일체고액의 탈피, 환희심 등 불교 이념의 실천성을 상징화한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법고작법무는 다른 작법무와 동일하게 정적·동적인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으나 팔을 휘젓거나 펼치고 접을 때 상체의 움직임이 다른 작법무에 비해 동적이며 크고 활발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시선처리는 상·하 방향으로 약 15도 정도 눈을 1/3정도 뜬다는 느낌으로 처리하여 경외감을 보여주고, 발의 모양도 ‘丁’자를 기본으로 앞 발꿈치를 15도~30도 정도 벌리는 ‘11’자 모양으로 하여 상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려는 동작을 많이 취한다. 법고작법무는 상체의 절제되고 정중한 춤사위 동작 속에서 북을 치거나 변죽돌기, 어르기, 마무리 사위 등에서는 동적인 동작을 극대화하여 신심을 발흥시키는 요소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정적이면서도 절제된 하체 동작과 동적인 상체 동작을 통해 정중하면서도 장엄한 춤사위를 보여주는 작법무라고 하겠다.

이상의 불교 의식에서 연행되는 작법무 동작 분석을 통해 상주권공재의 작법무는 불교의 이념을 춤사위라는 방편을 통해 종교적 이념 구현과 의미를 상징화한 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법무는 몸 동작의 절제를 통해 정적인 춤사위를 극대화하여 경건함과 정중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상체의 활기찬 팔 동작을 통해 동적이며 활동적인 춤사위를 극대화하여 경외감과 장엄함을 보여주는 춤사위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불교의식에서 연행되는 작법무는 종교적 수행의 행위임과 동시에 종교 이념의 상징화와 구현을 위해 정적·동적인 춤사위 요소를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구성한 종교 무용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능화(2001). 『천수바라춤』. 인천: 한국불교무용연구소.
- _____ (2006). 『한국의 불교무용』. 서울: 도서출판 푸른세상.
- _____ (2017). 『생전예수시왕칠재』. 인천: 도서출판예림원.
- _____ (2018). 『범패의식』. 인천: (사)범패와작법무보존회.
- _____ (2018). 『범패작법』. 인천: (사)범패와작법무보존회.
- 김법현(1997). 『영산재연구』. 서울: 도서출판 운주사.
- _____ (2002). 『불교무용』. 서울: 도서출판 운주사.
- _____ (2005). 『한국의 불교음악』. 서울: 도서출판 운주사.
- 삼화사국행수륙보존회(2015). 『삼화사 국행 수륙재』. 인천: (사)범패와작법 무보존회.
- 상진(2019). 『청련사예수시왕칠재의 역사·문화적 의의』. 경기: 청련사범음범 패보존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1』. 서울: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 _____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2』. 서울: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 _____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3』. 서울: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 송방송(2012). 『한겨레음악사전 상』. 서울: 보고사.
- 심상현(2001). 『불교의식각론 V』. 서울: 한국불교출판부.
- 윤허용하(1995). 『불교사전』. 서울: 동국역경원.
- 이지형(1992). 『생전예수재』. 서울: 도서출판 동림.

- 장사훈(1984). 『국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조용길·백성(2007). 『불교천도재와 사찰학춤작법』. 울산: 한지디자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0』. 서울: 웅진출판
주식회사.
- _____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서울: 웅진출판주
식회사.
- _____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서울: 웅진출판주
식회사.
- _____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서울: 웅진출판주
식회사.
- 한만영(1991). 『한국전통음악연구』. 서울: 도서출판 풍남.
- 혜월명조(2011). 『보정생전예수재』. 서울: 에세이퍼블리싱.
- _____ (2011). 『예수재』. 서울: 에세이퍼블리싱.
- 홍윤식(2009). 『범패와작법무』. 서울: 민속원.

<학술지 및 학위논문>

- 강명화(2011). 「영산재의 식당작법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김동찬(2008). 「영산재 범패·작법 태징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
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재(2007). 「중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바라춤 음악 연구」. 동국
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영(2012). 「靈山齋 범고춤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열(2017). 「영남 천수바라 작법무에 관한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국(1994). 「梵唄 音樂에 關한 小考」. 『釋林』 제28집. 東國大學校釋林會. 35-158쪽.
- 김응기(1996). 「작법무연구: 상주권공재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제14집. 한국무용연구학회. 27~46쪽.
- _____ (2004). 「영산재 작법무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6). 「영산재의 음악(범패)」. 『공연문화연구』 제12집. 한국공연문화학회. 63-88쪽.
- 남인화(2013). 「영산재 작법무의 종류와 구성에 관한 검토」. 『禪文化研究』 제15집. 韓國佛教禪理研究院, 185-219쪽.
- 노명열(2010). 「현행 생전예수재와 조선시대 생전예수재 비교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능 화(2003a). 「佛敎文化遺産 梵唄와 作法舞」. 『한국무용연구』. 101-121쪽.
- _____ (2003b). 「한국 불교무용의 사상적 의미와 문화예술적 가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경환(2006). 「향화계작법 구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경(2011). 「作法舞의 美的 分析」. 『韓國佛敎學』 제59호. 韓國佛敎學會. 323-361쪽.
- 박은제(1987). 「불교의식의 작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현(2006). 「불교무용 나비춤 동작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 현(2017). 「중제 영산재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정매(2015). 「영제 범패 영산작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인애(2016). 「경제범패<정례>연구(1)」. 『한국음악사학보』 제56집. 한국음악사학회. 173-205쪽.

- 신은주(1991). 「불교 의식무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심상현(2006). 「作法舞 舉行의 背景과 意義」. 『한국공연문화학회』 12권 12호. 한국공연문화학회. 133-172쪽.
- _____(2012). 「作法舞의 淵源과 機能에 對한 考察」. 『동아시아불교문화』 12호.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35-266쪽.
- 양영진(2015). 「영제 바라무 동작과 범패 선율의 관련성」. 『국악논문집』 제 31집. 국립국악원. 89-110쪽.
- 양효순(2006). 「영남 불모산 영산재와 전라북도 영산작법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정원(2018). 「영산작법 나비춤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혜(2017). 「불교의식무 상주권공재 현대적 변화」.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식(2015). 「불교의식의 태평소 음악에 관한 연구」. 『예술논집』.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 31-40쪽.
- 이일호(2011). 「범패승 계보와 전승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희(2006). 「식당작법 무용 구성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만영(1967). 「梵唄 誦소리 의 旋律形態: 喝香·合掌偈·開啓를 中心으로」. 『불교학보』 제5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15-237쪽.
- 한정미(2010). 「불교의식의 작법무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윤식(1970). 「의식음악으로서의 범패」. 『佛敎學報』 제7집. 東國大學校佛敎文化研究院. 217-254쪽.

국문초록

상주권공재 작법무 춤사위 동작 분석 연구

남 미 애

음악학과 한국음악이론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는 불교 의식 중 상주권공재에서 진행되는 작법무의 춤사위에 대하여 상주권 공재의 의식 구성 절차와 법문내용, 작법무의 종류, 그리고 작법무의 춤사위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상주권공재의 의식절차는 시련, 대령, 관욕, 신중단, 상단권공, 관음시식, 봉송 등 총 7개의 의식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절차들 중 작법무가 출현하는 절차는 “시련”, “대령”, “관욕”, “신중단”, “상단권공” 등 총 4개의 의식 절차에서 나비작법무,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가 진행된다.

둘째, 작법무가 진행되는 절차별 사용 작법무는 제 1절차 “시련” 절차에서는 ‘옹호계’ 과장에서 요잡 바라작법무, ‘다계’과장에서는 다계 나비작법무, 막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귀경’ 과장에서는 귀경 나비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가 진행된다. 제 3절차 ‘관욕’은 ‘관욕계’ 과장에서 관욕계 바라작법무, 화의재진언 과장은 의재진언 바라작법무를 연행한다. 제4절차인 “신중단” 절차의 경우 ‘옹호계’ 과장은 요잡 바라작법무, ‘다계’ 과장은 요잡 바라작법무를 연행한다. 제 5절차 “상단권공”의 경우 ‘정례’ 과장은 정례 나비작법무, ‘천수바라’ 과장은 천수바라작법무, ‘도량계’ 과장은 도량계 나비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삼남태’ 과장은 다게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향화청’ 과장은 내림게 바라작법무, ‘육건만나라’ 과장은 다게 나비작법무, ‘다게’ 과장은 요잡 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법고작법무, ‘사다라니’ 과장은 사다라니 바라작법무, ‘운심게’ 과장에서는 운심게 나비작법무, 요잡 바라작법무, 사방요신 나비작법무 등이 연행된다.

셋째, ‘불보의 춤’인 나비작법무의 상체 중심의 춤사위는 ‘합장 사위’, ‘차고 나가기 사위’, ‘양손 벌리기 사위’, ‘양손 접는 사위’, ‘치기 사위’, ‘양팔 벌리고 앉기 사위’, ‘사선으로 서고 앉기 사위’, ‘정면으로 무릎 꿇고 앉는 사위’, ‘뒤로 젖히기 사위’, ‘앞으로 숙이기 사위’, ‘쳐올리기 사위’, ‘꽃치기 사위’, ‘마주보고 앉기 사위’, ‘등지고 앉기 사위’, ‘엇갈려 앉기 사위’ 등 총 15가지, 하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발 차고 나가기 사위’, ‘90도 회전 사위’, ‘무릎구부리기 사위’, ‘무릎 피는 사위’, ‘앉는 사위’ 등 총 5가지의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법보의 춤’인 바라작법무의 상체중심 춤사위 종류는 ‘바라 합장사위’, ‘바라 올리는 사위’, ‘바라 내리는 사위’, ‘한 손씩 올리는 사위’, ‘양손 올리는 사위’, ‘바라 올리는 사위’, ‘양손 치기 사위’, ‘머리 위에서 올리는 사위’, ‘머리 위에서 내려 올리는 사위’, ‘바닥에서 올리기 사위’, ‘두 손 모아 치고 뒤로 넘기기 사위’ 등 총 11가지, 하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무릎 구부리고 피며 이동하는 사위’, ‘회전 사위’ 등 총 2가지의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승보의 춤’인 법고작법무의 상체 중심 춤사위의 종류는 ‘복채 모으는 사위’, ‘변죽 훑기 및 치는 사위’, ‘손 엮기 사위’, ‘어르기 사위’, ‘양손치기 사위’, ‘복채 넣기 사위’, ‘좌우치기 사위’, ‘숨고르기 사위’, ‘복채로 목감기 사위’, ‘허리젓혀 변죽돌기 사위’, ‘정치기 사위’, ‘마무리 사위’ 등 총

12가지, 하체 중심 춤사위 종류는 ‘빠른 걸음 이동 사위’, ‘양발 뒤꿈치 들기 사위’, ‘발 모으기 사위’, ‘돌기 사위’, ‘뒤꿈치 들기 사위’, ‘한발 들기 사위’, ‘무릎 들기 사위’, ‘무릎 굽혀 회전하는 사위’, ‘도는 사위’ 등 총 9가지의 춤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 의식에서 연행되는 작법무 동작 분석을 통해 상주권공재의 작법무는 불교의 이념을 춤사위라는 방편을 통해 종교적 이념 구현과 의미를 상징화한 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법무는 몸 동작의 절제를 통해 정적인 춤사위를 극대화하여 경건함과 정중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상체의 활기찬 팔 동작을 통해 동적이며 활동적인 춤사위를 극대화하여 경외감과 장엄함을 보여주는 춤사위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불교의식에서 연행되는 작법무는 종교적 수행의 행위임과 동시에 종교 이념의 상징화와 구현을 위해 정적·동적인 춤사위 요소를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구성한 종교 무용이라 하겠다.

주제어: 상주권공재, 불교무용, 작법, 나비작법무, 바라작법무, 법고작법무

Abstract

The Steps and Moves of Sangjugwongongjae Jakbeop Dance

Nam, Mi Ae

Major in Korean Musicology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eps and moves of Jakbeop Dance, performed in Sangjugwongongjae, one of Buddhist ceremonies, focusing on the organization procedure and content of Sangjugwongongjae ceremony, the kinds of Jakbeop Dance, and the dancing steps of Jakbeop Danc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angjugwongongjae ceremony consisted of such 7 procedures as siryeon, daeryeong, gwanyok, sinjungdan, sangdangwongong, gwaneumsisik and bongsong. Among these procedures, Jakbeop Dance was performed in such 4 procedures as siryeon, daeryeong, gwanyok and sinjungdan as the form of Nabi-Jakbeop Dance, Bara-Jakbeop Dance and Beopgo-Jakbeop Dance.

Second, regarding the kinds of Jakbeop Dance us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1) In the first procedure of 'siryeon', Yojab Bara-Jakbeop Dance is performed in the scene of 'onghoge'; Dage Nabi-Jakbeop Dance, Makbara-Jakbeop Dance and Sabangyosin

Nabi-Jakbeop Dance are performed in the scene of 'dage'; and Gwigyeong Nabi-Jakbeop Dance, Sabangyosin Nabi-Jakbeop Dance, Yojab Bara-Jakbeop Dance and Beopgo-Jakbeop Dance are performed in the scene of 'gwigyeong'. (2) In the third procedure of 'gwan yok', Gwan yokge Bara-Jakbeop Dance is performed in the scene of 'gwan yokge'; and Uijaejineon Bara-Jakbeop Dance is performed in the scene of 'hwauijaejineon'. (3) In the fourth procedure of 'sinjungdan', Yojab Bara-Jakbeop Dance is performed in the scenes of 'onghoge' and 'dage'. (4) In the fifth procedure of 'sangdangwongong', Jeongrye Nabi-Jakbeop Dance is performed in the scene of 'jeongrye'; Cheonsu Bara-Jakbeop Dance is performed in the scene of 'cheonsu bara'; Doryangge Nabi-Jakbeop Dance, Sabangyosin Nabi-Jakbeop Dance, Yojab Bara-Jakbeop Dance and Beopgo-Jakbeop Dance are performed in the scene of 'doryangge'; Dage Nabi-Jakbeop Dance and Yojab Bara-Jakbeop Dance are performed in the scene of 'samnamtae'; Naerimge Bara-Jakbeop Dance is performed in the scene of 'hyanghwacheong'; Dage Nabi-Jakbeop Dance is performed in the scene of 'yokgeonmannara'; Yojab Bara-Jakbeop Dance, Sabangyosin Nabi-Jakbeop Dance and Beopgo-Jakbeop Dance are performed in the scene of 'dage'; Sadarani Bara-Jakbeop Dance is performed in the scene of 'sadarani'; and Unsimgae Nabi-Jakbeop Dance, Yojab Bara-Jakbeop Dance and Sabangyosin Nabi-Jakbeop Dance are performed in the scene of 'unsimgae'.

Third, regarding the dancing steps of Nabi-Jakbeop Dance ('Bulbo Dance'), upper body-based dancing steps consist of such 15 kinds as 'the step of putting both hands together', 'the step of kicking out', 'the step of opening up both hands', 'the step of folding both

hands', 'the step of 'beating', 'the step of spreading both arms and sitting', 'the step of standing and sitting diagonally', 'the step of kneeling down and sitting while looking straight ahead', 'the step of leaning back', 'the step of leaning forward', 'the step of beating upwards', 'the step of ggot-beating', 'the step of sitting face to face', 'the step of sitting with one's back on other's back', and 'the step of sitting crisscross', whereas lower body-based dancing steps consist of such 5 kinds as 'the step of kicking and going out', 'the step of 90-degree rotation', 'the step of knee bending', 'the step of knee stretching', and 'the step of sitting'.

Fourth, regarding the dancing steps of Bara-Jakbeop Dance ('Beopbo Dance'), upper body-based dancing steps consist of such 11 kinds as 'the step of bara-putting both hands together', 'the step of bara-lifting up', 'the step of bara-lowering', 'the step of lifting up hands one by one', 'the step of lifting up both hands', 'the step of bara-ringing', 'the step of striking both hands', 'the step of ringing overhead', 'the step of lowering from the head and ringing', 'the step of ringing on the ground', and 'the step of folding both hands and beating/pushing back', whereas lower body-based dancing steps consist of such 2 kinds as 'the step of bending/stretching knees and moving', and 'the step of rotating'.

Fifth, regarding the dancing steps of Beopgo-Jakbeop Dance ('Seungbo Dance'), upper body-based dancing steps consist of such 12 kinds as 'the step of gathering drumsticks', 'the step of sweeping rims and beating', 'the step of weaving hands', 'the step of stroking', 'the step of smiting both hands', 'the step of inserting drumsticks', 'the step of beating left and right', 'the step of catching breath', 'the step of winding drumsticks around neck',

'the step of leaning back and spinning on a rim', and 'the step of jeong-beating', and 'the step of wrapping-up', whereas lower body-based dancing steps consist of such 9 kinds as 'the step of moving at a rapid pace', 'the step of lifting up both heels', 'the step of putting feet together', 'the step of rotating', 'the step of lifting up a heel', 'the step of lifting up a foot', 'the step of lifting up knees', 'the step of bending knees and rotating', and 'the step of spinning'.

From this study's analysis on the moves of Jakbeop Dance performed in Buddhist ceremonies, the author understood the Jakbeop Dance of Sangjugwongongjae ceremony symbolized and realized the religious ideology and meaning of Buddhism through the means of dancing steps and moves. In addition, Jakbeop Dance maximized static dancing steps through the moderation of physical movements, thus expressing piety and politeness, and maximized dynamic and active dancing steps through the vigorous movements of arms, thus presenting a feeling of awe and solemnity. In this vein, Jakbeop Dance, which is performed in Buddhist ceremonies, seems to be an act of performing religious rituals and duties as well as a religious dance of which static/dynamic dancing steps are composed in a harmonious and balanced manner, thus realizing the symbolization and realization of religious ideology.

Key Words: Sangjugwongongjae, Jakbeop, Buddhist dance,
Nabi-Jakbeop Dance, Bara-Jakbeop Dance,
Beopgo-Jakbeop Dance